韓國語音韻論

鄭然粲 著

開文社

韓國語音韻論

鄭 然 粲 著

開 文 社

韓國語音韻論

鄭 然 粲 著

開 文 社

序

事實이 중요하냐? 方法이 중요하냐? 이같은 물음은 事實도 중요하고 方法도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그 중에서 어느 쪽이 좀 더 중요한가를 물은 것이라 할 것이다. 理論이 어려우냐? 혹은 實際가 어려우냐라는 물음은 事實에 대한 물음일 수도 있고, 方法에 대한 물음일 수도 있으니 대개 4가지의 경우가 전제되는데 어느 경우에나 어렵기는 하지만 좀 더 어려운 것이 어느쪽이냐를 물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理論에는 밝으나 實際에는 어둡다」와 같은 말이 쓰이는 경우가 있으며,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다」와 같은 말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理論과 方法은 事實과 實際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事實과 實際가 理論과 方法에 先行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세워진 理論이나, 찾아진 方法은 이미 事實과 實際 속에 先行的으로 內在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와 같이 主張하여, 理論과 方法을 輕視하려는 態度에 이르게 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理論과 方法이 없는 事實의 發見이나, 實際의 結果는 오히려 偶發的 事件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事實과 實際의 先行이 理論·方法을 輕視할 이유는 되지 못할 듯하다. 코치와 선수는 같은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

學問의 發達은 대개 그 理論과 方法의 發達일 수 있다. 理論과 方法의 發達은 事實의 解明과 實際의 適用을 기다려서만 그 價値를 드러낸다. 兩者는 相互 補充의 關係에 있고 排他的인 關係에 있는 것은 아니다.

國語學은 새로운 理論과 方法을 受容하면서 날로 발전하여 가고 있다. 새로운 理論과 方法의 受容을 조금도 늦출 수는 없다. 新進 氣銳

들의 이 方面의 努力은 크게 慶賀할 일이다. 그러나 近來의 理論的 發達은 그 速度가 너무나 빨라서 한 사람의 學者가 이를 모두 受容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미 保有한 理論이 적지 않건마는, 그것을 적용해 보기도 전에 또 다시 새로운 理論의 殺到를 보게 된다. 理論만을 追求하다 보면 實際의 業績을 남기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듯하다. 그러므로 適正線에서 그칠 줄 아는 것도 중요한 일로 생각된다.

이 책은 크게 새롭지는 않다. 그러나 다소간 새로운 理論에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새로운 理論은 대개 이미 있는 理論을 無效化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것에 이어지는 것이 그 일반적인 발달 경향일 것이다. 原子 理論의 發展이 分子 理論을 無效化하지 않는 것과 같다 하면 比喩가 좀 지나쳤을가.

1978年 가을 學期의 시작 무렵일 것이다. 開文社 編輯部에서 이 책의 執筆을 慫慂하였다. 나는 한마디로 거절하였다. 마침 옆에 있던 安秉禧兄이 해보라고 하였다. 나는 태도를 누구려 해보겠다고 하였다. 막상 붓을 들고 보니 처음의 나의 태도가 옳지 않았던가 하게 되었다. 健康도 좋지 못한데다 나의 게으른 버릇이 겹친 것이다. 分量에 비하면 시간이 너무 걸린 듯하다. 그러나 이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만약 무엇인가 써진 것이 있다면 이는 전혀 友情의 所致다. 安兄에게 깊이 感謝한다.

朴鍾哲君은 너무나 手苦가 많았다. 校訂·編次·註記·參考에 이르기까지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적어서 고마움을 表한다.

開文社 여러분의 그 참을성과 정성스러움에 感謝한다. 나는 時間 約束을 더러 어겼으며, 原稿도 흘려 썼던 것이다.

大方의 叱正을 바란다.

1980年 春分節 著者識

차 례

제 1 장 緖 論

1-1 國語音韻論이란 무엇인가? ……… 11
1-1-1 音聲의 連續性·個別性 ……… 13
1-1-2 音聲의 同一性 ……… 15
1-2 I.P.A. ……… 17
1-3 音聲의 分類 ……… 18
1-4 基本母音 ……… 21
1-5 子音의 分類 ……… 25
1-5-1 調音位置에 의한 子音分類 ……… 25
1-5-2 調音方式에 의한 子音分類 ……… 28

제 2 장 音 素

2-1 F. de Saussure의 langue와 parole ……… 35
2-2 音素의 定義 ……… 40
2-2-1 Sapir의 心理的 實在說 ……… 40
2-2-2 Jones의 物理的 實在說 ……… 44
2-2-3 Bloomfield의 物理的 實在說 ……… 45
2-2-4 Trubetzkoy의 辨別的 對立說 ……… 48
2-2-5 Twaddell의 抽象的 假構說 ……… 49
2-2-6 Jakobson 등의 辨別的 資質論 ……… 51
2-2-7 音素의 把握과 觀點 ……… 57
2-3 音素設定의 手順 ……… 58
2-3-1 Trubetzkoy의 音素設定의 規則 ……… 59

2-3-2 音素分析의 手順……63

2-4 音素體系……72

2-4-1 聯合關係와 統合關係……72
2-4-2 體系와 構造……74
2-4-3 對立의 種類……75
2-4-4 辨別的 資質……86

2-5 音素의 配列……108

2-5-1 音 節……108

제 3 장 音素 各論

3-1 子音 音素 體系……128

3-2 母音 音素 體系……129

3-3 國語 音素의 特徵과 發達……130

제 4 장 音韻論的 研究의 實際

4-1 15 世紀 母音體系의 本質(金完鎭)……157

4-2 15 世紀의 母音體系(李基文)……170

4-3 近代國語의 母音(鄭然粲)……185

4-3-1 高低對立의 母音體系……185
4-3-2 前後對立의 母音體系……187
4-3-3 「오·우」의 音價實證……190
4-3-4 母音推移의 時期……192
4-3-5 推移의 始末……193
4-3-6 ᄋᆞ音의 消滅過程……195
4-3-7 ᄋᆞ音의 第二段階 變化……201
4-3-8 ᄋᆞ音變化에 대한 干涉……203
4-3-9 口蹙 口張에 대한 疑問……204

參考文獻……209

찾아보기……211

제 1 장 緖　　論

1-1　國語音韻論이란 무엇인가?…11
1-2　I.P.A.…17
1-3　音聲의 分類…18
1-4　基本母音…21
1-5　子音의 分類…25

제 1 장 緒　　論

1-1 國語音韻論이란 무엇인가?

우리 나라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말을 하거나 들을 때에 쓰는 말소리의 體系와 機能을 이해하는 학문이 國語音韻論이다.

言語音의 機能과 體系를 연구하는 것이 音韻論이라고 할것 같으면, 國語音韻論의 硏究對象은 우리 나라 사람이 쓰는 言語音일 수밖에 없다. 이같은 定義는 우리 나라 사람이 우선 다른 나라 사람과 구별되고 그 쓰는 말도 다른 나라 사람이 쓰는 말과 다르다는 것이 적극적으로 전제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우리 나라 말이 아닌 다른 나라의 말도 많이 있음이 소극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또 우리 나라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外國語를 쓸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지마는 이러한 일은 일상 생활에서의 예사로운 일은 아니오, 대체로 몇몇 사람에게 드물게만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外國語에 대한 熟知度가 우리말의 그것에 비할 바는 못되는 것이다. 國語音韻論은 우리가 날마다 쓰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 나라 말의 소리를 言語學的으로 理解 說明하고자 하는 學問인 것이다.

우리말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하여, 그 쓰는데 있어서나, 듣는데 있어서나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따로 한 學問으로 세워 어렵게 연구할 것이 있겠느냐 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말의 소리 그 자체에 대하여 말하고자 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얼마나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말에 쓰이는 소리는 모두 몇 개나 되겠는가, 소리 ㄱ은, 소리 ㄴ에서 어떻게 다른가, 한 마디의 소리 '감'에서는 그 뜻으로 '柿'가 떠 오른다. '감'의 첫소리 ㄱ을 ㄴ으로 바꾸면 그때에는 '남'이 되고 그 뜻도 '他'로 되고 만다. '柿·他'의 뜻은 'ㄱ·ㄴ'을 좇아 나오니 '柿·他'의 뜻이 'ㄱ·ㄴ'에만 붙어 있는가. '감'의 가운데 소리 'ㅏ'를 'ㅗ'로 바꾸면 뜻 '柿'는 간 곳이 없고 뜻 '熊'이 따라 나온다. 뜻 '柿'는 'ㅏ'를 依支하고 뜻 '熊'은 'ㅗ'를 依支하는가? '감'의 끝 소리 'ㅁ'을 'ㄴ'으로 바꾸면 그 뜻은 '柿'이던 것이 '肝'으로 되고 만다. 소리가 바뀜에 따라 뜻도 바뀌므로 뜻을 갈라내는 힘이 소리에 있는 듯하나, 이러한 힘〔機能〕은 대체 소리의 어떤 性質에서 오는가.

이러한 疑問은 一時 一地點에 限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한 번 時點과 地點을 擴大하게 되면 또 다른 많은 疑問이 따라 나온다. 아들이 "데한민국"하면 아버지는 "대한민국"이야 하고, 경상도 사람이 "짐치"라고 하면 서울 사람은 웃을 수도 있다. 어제 쓰던 말과 오늘 쓰는 말이 다르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등도 우리의 또 다른 疑問이 아닐 수 없다. 우리말의 소리에 대한 可能한 疑問은 이같이 한 둘이 아니다. 이러한 모든 疑問에 대하여 有效한 解答을 주고자 하는 것이 國語音韻論의 目的이요 또 硏究 範圍이다.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다.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소리가 만들어져 나오고 귀는 이들 소리를 갈라 듣는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모두 말소리만은 아니다. 때로는 휘파람소리도 나올 수있고, 기침소리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關心은 그런 것에 있지 않고 오직말에 쓰이는 소리에만 있다. 마찬가지로 귀에 들리는 소리도 모두 말소리만은 아니다. piano를 치는 소리는 듣기는 좋지

만 音韻論의 硏究 對象은 되지 못한다. 우리의 관심은 여기서도 오직 말 소리에만 있는 것이다. 휘파람소리도 소리요, piano 소리도 소리요, 말소리도 소리라고 하면 소리의 뜻은 너무 넓은 듯하므로, 우리는 여기서 말소리만을 가르켜 '言語의 音聲' 혹은 줄여서 '音聲'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1-1-1 音聲의 連續性·個別性

音聲은 입에서 만들어지고 귀는 이를 갈라 내어 듣는다고 하였으니 音聲이 존재하는 장소는 입에서부터 귀까지의 空間이라 하겠다. 이 공간에서의 音聲의 存在 樣相은 音波로서 나타난다. 이같은 사실은 錄音器에 의하여 그대로 記錄하였다가 다시 들을 수도 있고 스펙트로그래프(spectrograph)[1]나 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2]와 같은 기계장치에 의하여 視覺化할 수도 있으니, 이 공간에서의 音聲의 實在를 의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공간에서의 音聲의 實在는 聽覺에 의하여서 뿐만 아니라 視覺에 의하여서까지도 感覺的으로 파악될 수 있으니 그 物理的 實在에는 조금의 의심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 의심할 수 없는 物理的 實在로서의 音聲이 바로 그대로 우리의 귀가 갈라내어 듣는 言語의 音聲과 언제나 일치하고 동일한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귀는 녹음기가 아니며, oscillograph 나 spectrograph 는 더욱 아닌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입도 蓄音器나 단순한 發聲裝置 따위가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物理的 實在의 存在 樣相은 일반적으로 連續的이며, 同一性이 없는

1) 스펙트로그래프(spectrograph) : 複合波(complex wave)를 분석하기 위해 고안된 기계의 하나로 음파의 스펙트럼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게 고안된 기계.
2) 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 : 원래 전류나 전압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기계로, 음파의 진동을 일차 전류의 흐름으로 바꾸고 다시 그 변화를 波狀으로 나타내도록 한 음성실험 기계의 하나이다.

것이 그 特徵이라고 한다. 한 없이 이어진 길다란 시간을 한 도막 잘라내어 一年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것을 다시 잘라서 12 個月이라 부르기도 한다. 一年과 12 個月이 이어진 時間이란 점에서 다를 것이 없으나 자르는 방법에 따라 一年이 되기도 하고 12 個月이 되기도 한다. 잘라서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慣習과 便宜에 매여 있는 것이고, 時間自體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니다. 鍾路區와 中區는 다만 이어진 널따란 地面일 뿐이다. 우리는 慣習과 便宜에서 이를 갈라 鍾路區라 하고 中區라 하는 것이다. 鍾路區와 中區의 區分이 地面 자체에서 생겨난 것은 아니다. 時間이란 次元上에서 전개되는 것이 音聲의 物理的 存在樣相이라면 그 依支하는 바 時間이 이미 連續的으로 存在하는 以上, 音聲도 그 자체로서는 連續的으로 存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音波記錄은 무엇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려준다. 우리의 귀는 다만 이러한 連續的인 實在를 非連續的으로 끊어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귀가 파악한 非連續的인 것과 物理的 實在로서 存在하는 連續的인 音聲 間에는 얼마쯤의 不一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豫見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는 아직 귀의 把握方式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밝혀내기를 미루어 두고 있는 것이니, 그것은 物理的 實在로서의 音聲의 存在樣相에 밝혀져야 할 것이 하나 더 있기 때문이다.

物理的 實在로서 파악되는 音聲의 存在樣相이 連續的인 것이 하나의 特徵이라면, 그 實現이 一回的이며 個別的임은 또 다른 하나의 存在樣相이다. 任意의 音聲 [p]를 A라는 사람이 發音하였다고 하자. 이 [p]는 한 번 實現되고 나면 사라지기 마련이다. 사라진 [p]를 다시 한 번 들으려면 다시 한 번 같은 [p]를 發音하면 된다. 과연 우리의 귀는 같은 [p]를 確認한다. 이때에 처음의 p를 p_1이라 하고 다시 들은 p를 p_2라 하면 [p_1]과 [p_2]는 과연 그 자체로서 같을 수 있겠는가.

같다고 확인한 것은 우리의 귀일 뿐이다. 이들 個別的인 [p₁]과 [p₂]는 우선 時間의 前後에서 같을 수 없다. [p₁]이 實現될 때에는 [p₂]는 아직 實現되지 않았고, [p₂]가 實現될 때에는 [p₁]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때이다. 뿐만 아니라 [p₁]과 [p₂]가 全等하려면 A라는 實現者의 緊張狀態가 우선 全等하여야 하고, 더하여 實現된 [p₁]과 [p₂]의 高低·强弱·長短 등의 配分이 또한 全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狀況이 실제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機械裝置에 의한 音像記錄에서도 나타난다고 한다. 이러한 狀況은 그 實現者가 A라는 同一人인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하거늘, 만약 그 實現者를 B로 바꾼다면 그에 따른 [p]의 個別性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말 것이니, 우리는 往往 音聲만 듣고도 그 音聲의 主人公을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에서 音聲이 사람마다 다를 뿐 아니라 物理的 實在로서의 音聲 自體의 實現은 一回的이며, 千差萬別의 個別性을 가지고 無限定으로 存在함을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物理的인 實在와, 우리가 그것을 知覺하고, 抽象하여 이루어진 觀念的 實在 間에는 완전한 合致가 있기 어려움은 거의 自明한 것으로 보인다.

物理的 實在와 觀念的 實在 間의 이같은 不一致는 다만 音聲에 있어서 이럴 뿐만 아니라, 視覺을 통하여 파악되는 物像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같은 나무에 열린 많은 사과는 모양과 크기와 빛깔에서 저마다 個別性을 가지고 열려 있으나, 우리는 그것이 복숭아가 아닌 점에서 같은 사과로 묶여지며, 그것을 같다고 하는 것이다.

1-1-2 音聲의 同一性

一連의 音聲이 千差萬別의 個別性으로만 존재하고, 연속된 音波로서만 존재하여, 구별하기 어렵다면 우리의 귀가 그것을 갈라내어 같

은 音聲으로 파악하고 더러는 구별하여 다른 音聲으로 파악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의 지금까지의 論議는 音聲의 個別性과 連續性을 좀 지나치게 강조한 느낌이 있다. 그것은 이러한 性質은 조심하여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이었다. 무한히 많은 이같은 音聲은 언제나 조금은 서로 다른 점이 있지마는 그보다 더 많은 서로 같은 점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점을 音聲의 同一性이라고 부른다면, 音聲은 이 同一性에 의하여, 많지 않은 수의 種類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任意의 音聲 [p_1], [p_2]가 A라는 사람에 의하여 두 번에 갈라서 實現되었거나, A·B라는 두 사람에 의하여 각각 實現되었다고 가정하자. 이때에 [p_1], [p_2]는 그 時間의 先後, 혹은 그 實現者의 다름, 혹은 高低·强弱·長短 등에서 서로 다른 個別性을 가지고 있음은 前述한 바와 같다. 그러나 여기서는 [p_1], [p_2]가 音聲으로 實現되는 調音位置와 調音方式을 다른 條件의 개입없이 보기로 하자. 이 位置와 方式은 서로 언제나 동일한 것이 되고 만다. [p_1]이 實現되는 바로 그 위치에서 바로 그 방식으로 [p_2]가 實現되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位置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實現되는 [p_1], [p_2]는 이미 서로 다를 수 없는 동일 [p]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동일한 [p]의 두 번에 걸친 實現이거나, 두 사람에 의한 實現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같은 音聲이라고 말할 때는 이 위치와 방법의 同一性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이니, 서로 다른 音聲이라고 하게 되면 그때에는 또 위치와 방식이 동일하지 않음을 뜻하게 된다. 音聲은 그 個別性에서 보면 무한히 존재하지마는 그 同一性에서 보면 몇 개 안 되는 것이 反覆實現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個別性보다는 同一性을 크게 重視하고 있으며, 우리의 귀는 이러한 同一性을 잘 알아차리게 훈련되어 있는 것이다.

1-2 I. P. A.

우리가 지금까지 論議한 音聲은 그 所在가 입에서부터 귀까지라는 物理的 空間에 매여 있고, 여기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이 空間에서는 실로 많은 音聲이 實現되고 聽取된다. 이 空間에서는 우리 國語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音聲이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外國語에 있는 여러 가지 音聲도 모두 나타날 수 있다. 이 空間은 어떤 특별한 言語만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이 空間은 실로 국제적인 音聲空間이라 할 만하다. 여기에 任意의 音聲 [p]가 등장하였다고 하자. 그리하여 우리가 이 音聲 [p]에 대하여 깊은 興味를 가지고 자세히 관찰하고 그것에 대한 각자의 見解를 서로 발표하고 토론한다고 하자. 우리는 각자가 모두, 자기가 이미 잘 알고 있는 音聲과 같은가 다른가를 확인하고 나서, 그것은 대개 「밥」이라고 할 때 첫소리나 끝소리와 같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paper」라고 할 때의 첫소리와 대개 같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팔」이라고 할 때의 첫소리와 같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자는 각자의 견해를 고집하게 되고, 남의 견해에 대하여는 동의하기 어렵게 된다. 엇갈린 견해를 封鎖하는데는 그 根源을 防止하는 것만한 것이 없고, 동일한 견해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規準을 가지는 것만한 것이 없을 것이며, 그러한 規準으로는 調音位置와 調音方法만한 것이 없을 것이다.

國際音聲學會는 대체로 이같은 規準에서 音聲을 분류하고, 이들의 하나 하나에 대하여 일정한 記號를 주어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일정하게 이를 表記할 수 있게 하였으니 이것이 國際音聲字母(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줄어서 I.P.A. 라고 하는 것이다.

I.P.A.는 簡略表記(broad transcription or notation)와 精密表記(narrow transcription or notation)가 있다. 한 音聲에 하나의 音聲記號를 배정하여 表記하는 것이 원칙이되, 필요에 따라 한둘의 補助記號를 附加 使用할 수 있는 것이 前者이고, 한 音聲의 미세한 부분까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대체로 하나 이상의 音聲記號를 배정하고 있는 것이 後者이다. 言語의 音聲을 밝혀내고자 하는 實用 範圍內에서는 簡略表記만으로도 거의 부족함이 없는 듯하여, 일반적으로 이것을 많이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 音聲記號는 [ ]에 넣어서 표기하니 [ ]는 대개 입에서부터 귀까지의 客觀的 物理的 空間을 떠나지 못하고 그 空間內에 있음을 뜻한다고 해석하여도 무방할 듯하다.

1-3 音聲의 分類

音聲은 일반적으로 母音(英 vowel, 獨 Vokal, 佛 voyelle)과 子音(英 consonant, 獨 Konsonant, 佛 consonne)으로 兩大分된다. 이 兩大 區分은 대개 調音樣式에 規準을 두고 있다. 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母音 : 허파에서 올라오는 空氣의 흐름(날숨)이 口腔 內部에서 마찰이나 閉鎖를 일으키지 않고, 舌面 中央部를 지나면서 만들어지는 音聲.

子音 : 母音이 아닌 音聲.

이같은 定義는 완전 무결한 것은 아니지마는 그 平明함을 取하여서 널리 愛用되고 있는 것의 하나라고 하겠다. 이 定義가 완전 무결하지 않다 함은 이른 바 半母音(semi-vowel)이라고 하는 [j], [w] 같은 것도 口腔 內部에서, 특별한 障碍를 입지 않고 發音되는 점이 다른 母音들과 다를 것이 없으나, 다만 音節 構成時에는 그 서는 자리가 子音과 같은 자리에 있어서, 音節 構成을 規準하면 子音으로 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러면 音節構成에 規準을 두고서, 「母音은 音節 主音을 이루는 音聲이고, 子音은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하면 어떤가. 이같은 定義도 매우 흔히 쓰이는 것으로 母音 子音을 나누는데 널리 愛用되는 것의 하나이기는 하나 이것이라고 하여 완전 무결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音節이란 것의 定義가 先行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에 또한 견해가 갈려 있기 때문이다. 一例로 stick는 英語에서 一音節이라 하나 우리 國語의 觀點에서 본다면 꼭 一音節이라 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면 이 見解를 좀 고쳐서, 독립하여 音節을 이룰 수 있는 音聲을 母音이라 하고 그렇지 못한 音聲을 子音이라 하면 어떤가. 이 見解의 難點은 written[ritn], table[teibl]의 [n], [l]이 母音이 아닌데도 音節을 이루고 있는 例로써 역시 어려운 것이 된다.

혹 音響學的으로 子音은 噪音이고 母音은 樂音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m], [ŋ]은 모음 [i], [u] 등과 마찬가지로 樂音에 속한다.

이러한 難點을 해결하기 위하여 Pike는 母音·子音이란 用語 이외에 다시 vocoid(母音類 혹은 母聲)와 contoid(子音類 혹은 子聲)를 따로 설정할 것을 提議하고 있다. 즉 從來의 母音·子音은 音韻論에서만 쓰기로 하고 音聲學的인 分類에서는 vocoid와 contoid를 쓰자는 것이다. 이 兩者에 대한 그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A vocoid is a sound during which air leaves the mouth over the center of the tongue(nonlateral) and without friction in the mouth (but friction elsewhere does not affect the classification). A contoid is anything else. (Pike, *Phonetics*, 1943, p.78)

vocoid에서 空氣의 通路를 口腔에 限定한 것은(air leaves the mouth) 鼻音[m·n·ŋ] 등을 除外하기 위함이요, 또 그것이 舌面 中央部를 지난다, 즉 over the center of the tongue라고 한 것은 舌側音

[1]을 除外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여 母音·子音에 대한 從來의 정의를 多少 補完하게 된 것은 理論的인 進展임에 틀림없으나, 이같은 태도가 音節의 定義에까지도 一貫되어야 하는 問題들은 또 다른 問題로 남게 된다.

근래에 와서 야콥슨(R. Jakobson)과 같은 이는, 母音·子音을 분리한 뒤에, 이들을 별개의 기준에 의해 분류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버리고, "辨別的 資質의 묶음"이라는 同一한 基準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이는 音韻論的인 基準에 치중된 견해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母音·子音이란 종래의 分類가 母音類, 子音類나 혹은 辨別的 資質의 묶음이라는 새로운 分類에 언제나 不一致하거나 불편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記述의 實際的 目的과 便宜를 좇아 이들 중의 하나를 適誼 取擇함이 좋을 듯하다. 本稿의 目的은 音韻에 중점이 있고 종래의 分類를 인용하여, 큰 불편이 없을 듯하므로 다만 이같은 엄격한 分類들이 있음을 제시함에 그친다.

發音器官이 일정한 위치에서 一定樣式으로 운동하여 音聲을 만들어 내는 행위를 調音(articulation)이라 하고,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調音行爲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音聲을 單音(single sound)이라고 한다. 둘 이상의 調音行爲가 동시에 일어나서 하나의 單音을 만들어 내는 일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調音行爲를 二重調音이라 한다. 發音器官들의 細部 名稱과 作用 등은 그다지 까다로운 것이 없을 뿐더러 우리들에게는 이미 상당히 熟知되어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따로 갈라 설명을 베풀지 아니 하였으니,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곳에 따라 조금씩 설명을 덧붙이기로 하겠다.

1-4 基本母音(cardinal vowel)

여러 言語에 존재하는 각양 각색의 母音을 일일이 다 모아서 분류하고 설명하는 일은 번거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 어느 나라 言語의 어떤 母音을 基準으로 하여 설명할 것인가 하는 基準 設定의 문제도 있게 된다. 母音은 어느 나라의 母音이고 간에 그것이 만들어질 때에는 대개 입술의 모양과 혀의 위치 즉 입을 벌리는 정도에 따라 혀가 높아지는 정도와 그때에 혀의 어느 部位가 높아지느냐를 기준하여 갈라지는 것까지는 대개 같지마는, 이때의 모양과 位置의 정도를 몇 가지로 할 것인가는 言語에 따라 사정이 달라지는 것이며, 그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 音聲의 하나하나를 모조리 記號化(文字化)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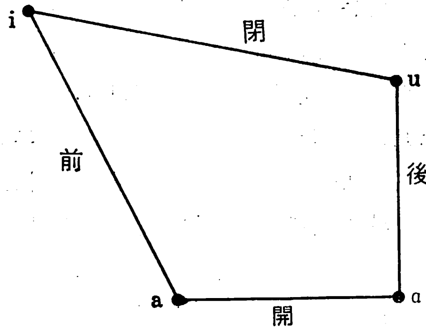
이에 特定 言語에 관계없이 母音 測定 및 記述의 基準이 되는 8個의 母音을 미리 정하여 놓으니 이것이 基本母音이라는 것이다. 이 方案은 다니엘 존스(Daniel Jones)에 의하여 처음 제시되었고, 國際音聲學의 原理(The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 pp. 3~8)에서도 채택되고 있다.

基本母音의 設定 原理는 그들 서로 간에 識別이 불가능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i·e·ɛ·a·ɑ·ɔ·o·u]의 8字로 표시되니 그 第1音 [i]는 開口度가 가장 작은, 가능한 限의 前舌閉母音으로 혀의 위치를 더 높이면 摩擦音 [j]로 변하게 된다.

제 5音 [ɑ]는 開口度가 가장 큰 後舌開母音으로 혀를 그 이상 뒤로 옮기면 摩擦音 [ɣ]이 나게 된다. 基本母音 [e·ɛ·a]는 [i]와 [ɑ]의 중간에 위치한 前舌母音들로서 [i]—[e], [e]—[ɛ], [a]—[ɑ]의 音響的 間隔이 거의 같도록 정한 것이며, 基本母音 [ɔ·o·u]는 後舌母音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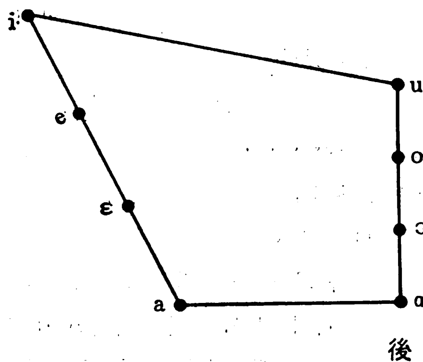
로서 前舌母音과 같은 방법으로 정해진 것이다.

基本母音 [i·a·ɑ·u]를 調音할 때의 혀의 위치를 X線 寫眞에 의하여 확인하면 「圖表 1-1」과 같이 나타난다.



[圖表 1-1]

[e]와 [ɛ]의 혀의 위치는 [i]와 [a] 사이를 三等分하는 二點上에 각각 오고, [ɔ]와 [o]의 혀의 위치는 [ɑ]와 [u] 사이를 三等分하는 二點上에 각각 오게 된다. 이를 母音圖로 보이면 「圖表 1-2」와 같은 것이 된다.



[圖表 1-2]

이 基本母音圖는 母音記述에 있어서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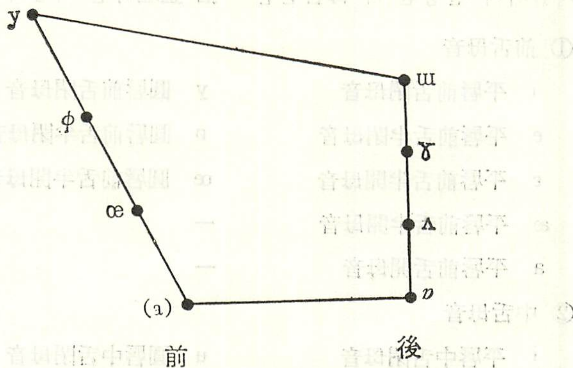
가령 이 母音圖上 [e]와 [ɛ]의 中間 位置에

은 基本母音 [e]와 [ɛ]는 다른 중간의 성질을

내타는 것이 된다.

基本 8母音은 혀의 위치에 따라 이같이 분류 서 그 가장 일반적으로 取하게 되는 입술 모양을 기준하여 보면, [i·e·ɛ·a·ɑ]는 平唇으로 발음되며, [ɔ·o·u]는 圓唇으로 發音된다. 이들 8母音을 第一次 基本母音이라 한다.

第一次 基本母音 [i·e·ɛ·a·ɑ]는 平唇母音인데, 이들은 같은 調音點에서 圓唇性을 가질 수도 있다. 第一次 基本母音 [ɔ·o·u]는 圓唇母音인데, 이들은 같은 調音點에서 平唇으로 발음될 수도 있다. 이들 第一次 基本母音 7개가 그 調音點은 각각 그대로 지키면서, 그 입술 모양만을 바꾼 것이 第二次 基本母音이 된다. 國際音聲字母는 이들의 각각에 대하여, [y·ø·œ·－·ɒ·ʌ·ɤ·ɯ]와 같은 文字記號를 배정하여 표시하고 있다. 이들을 母音圖로 보이면 「圖表 1-3」과 같은 것이다.



[圖表 1-3]

여기서 第一次 基本母音인 平唇의 [a]에 대한 第二次 基本母音인

圓脣이 設定되지 않고 [ㅡ]로 표시된 것은, 그같은 圓脣音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어떠한 言語에 있어서도 [œ]와 구별되어 나타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記號를 배정하지 않았다. 이 밖에 [i]와 [u] 사이의 중간 위치에 두 개의 基本母音을 더 설정하는 것이 편리한데, 平脣母音에는 [ɨ]를, 그 圓脣母音에는 [ʉ]를 배정하여 표시한다.

i—a 線上에 놓였거나, 그에 가까운 母音들은 前舌母音이니, 그들의 發音에 혀의 앞쪽이 작용하기 때문이요, ɑ—u 線上에 놓였거나, 그보다 약간 앞쪽에 있는 것은 後舌母音이다. [i]—[u]간의 거리는 [a—ɑ] 간의 거리에 비하면 훨씬 넓은데, 이 空間의 모양은 대개 삼각형과 같으니 이것이 中舌位가 되어 前舌系列과 後舌系列로 나누고 있다. 그러니까 [ɨ], [ʉ]는 中舌閉母音(central high vowel)이 되고, [ə] 같은 것은 中舌半閉, 혹은 半閉半開母音(central mid vowel)이라 할 것이다. 이 밖에 [æ], [ɐ]와 같은 表記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데 I.P.A. 圖表에 의하면 [æ]는 [ɛ]보다는 開口度가 좀 큰 [ɛ]의 變種이라고 볼 것이고 [ɐ]는 平脣中舌半開에 있는 母音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 母音들을 一括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① 前舌母音

i	平脣前舌閉母音	y	圓脣前舌閉母音
e	平脣前舌半閉母音	ø	圓脣前舌半閉母音
ɛ	平脣前舌半開母音	œ	圓脣前舌半開母音
æ	平脣前舌半開母音	—	
a	平脣前舌開母音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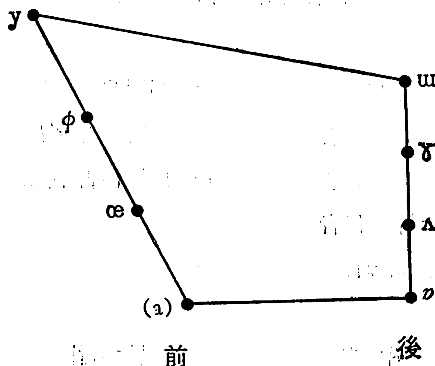
② 中舌母音

ɨ	平脣中舌閉母音	ʉ	圓脣中舌閉母音
ə	平脣中舌半閉母音	—	
ɐ	平脣中舌半開母音	—	

이 基本母音圖는 母音記述에 있어서 많은 實用的 便宜를 제공한다. 가령 이 母音圖上 [e]와 [ɛ]의 中間 位置에 한 점을 표시하면 그 점은 基本母音 [e]와 [ɛ]는 다른 중간의 성질을 가진 어떤 母音임을 나타는 것이 된다.

基本 8母音은 혀의 위치에 따라 이같이 분류하고 다시 그 가장 일반적으로 取하게 되는 입술 모양을 기준하여 보면, [i·e·ɛ·a·ɑ]는 平唇으로 발음되며, [ɔ·o·u]는 圓唇으로 發音된다. 이들 8母音을 第一次 基本母音이라 한다.

第一次 基本母音 [i·e·ɛ·a·ɑ]는 平唇母音인데, 이들은 같은 調音點에서 圓唇性을 가질 수도 있다. 第一次 基本母音 [ɔ·o·u]는 圓唇母音인데, 이들은 같은 調音點에서 平唇으로 발음될 수도 있다. 이들 第一次 基本母音 7개가 그 調音點은 각각 그대로 지키면서, 그 입술 모양만을 바꾼 것이 第二次 基本母音이 된다. 國際音聲字母는 이들의 각각에 대하여, [y·ø·œ·－·ɒ·ʌ·ɣ·ɯ]와 같은 文字記號를 배정하여 표시하고 있다. 이들을 母音圖로 보이면 「圖表 1-3」과 같은 것이다.



[圖表 1-3]

여기서 第一次 基本母音인 平唇의 [a]에 대한 第二次 基本母音인

圓脣이 設定되지 않고 [—]로 표시된 것은, 그같은 圓脣音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어떠한 言語에 있어서도 [œ]와 구별되어 나타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記號를 배정하지 않았다. 이 밖에 [i]와 [u] 사이의 중간 위치에 두 개의 基本母音을 더 설정하는 것이 편리한데, 平脣母音에는 [ɨ]를, 그 圓脣母音에는 [ʉ]를 배정하여 표시한다.

i—a 線上에 놓였거나, 그에 가까운 母音들은 前舌母音이니, 그들의 發音에 혀의 앞쪽이 작용하기 때문이요, ɑ—u 線上에 놓였거나, 그보다 약간 앞쪽에 있는 것은 後舌母音이다. [i]—[u]간의 거리는 [a—ɑ] 간의 거리에 비하면 훨씬 넓은데, 이 空間의 모양은 대개 삼각형과 같으니 이것이 中舌位가 되어 前舌系列과 後舌系列로 나누고 있다. 그러니까 [ɨ], [ʉ]는 中舌閉母音(central high vowel)이 되고, [ə] 같은 것은 中舌半閉, 혹은 半閉半開母音(central mid vowel)이라 할 것이다. 이 밖에 [æ], [ɐ]와 같은 表記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데 I.P.A. 圖表에 의하면 [æ]는 [ɛ]보다는 開口度가 좀 큰 [ɛ]의 變種이라고 볼 것이고 [ɐ]는 平脣中舌半開에 있는 母音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 母音들을 一括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① 前舌母音

i	平脣前舌閉母音	y	圓脣前舌閉母音
e	平脣前舌半閉母音	ø	圓脣前舌半閉母音
ɛ	平脣前舌半開母音	œ	圓脣前舌半開母音
æ	平脣前舌半開母音	—	
a	平脣前舌開母音	—	

② 中舌母音

ɨ	平脣中舌閉母音	ʉ	圓脣中舌閉母音
ə	平脣中舌半閉母音	—	
ɐ	平脣中舌半開母音	—	

③ 後舌母音

u 圓唇後 舌閉母音　　ɯ 平唇後舌閉母音
o 圓唇後舌半閉母音　　ɤ 平唇後舌半閉母音
ɔ 圓唇後舌半開母音　　ʌ 平唇後舌半開母音
ɒ 圓唇後舌開母音　　ɑ 平唇後舌開母音

1-5 子音의 分類

I.P.A.가 설정한 主要 子音들과 그 字母는 母音의 경우에 비하여 數가 많고 복잡하다. 이들 중의 어떤 것은 우리에게는 낯설은 것도 있다. 그러한 것들은 발음해 보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발음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정작 그 音聲인지 알아듣기 힘든 것도 있다. 이러한 것은 音聲 그것을 專門으로 연구할 적에나 필요할 듯하다. 우리의 當面 目的은 國語音에 限定되므로 이에 필요한 만큼만 설명하여 두기로 하겠다.

I.P.A.의 子音分類의 原理는 母音分類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調音 位置와 調音 方式이란 두 基準에 의한다. 이에 차례로 提示 說明하여 두겠다.

1-5-1 調音位置에 의한 子音分類

① 兩唇音(bilabial)에는 [p·b·m·ɸ·ß·w·ɥ]와 같은 字母가 배정되어 있으니 이들은 위·아랫 입술에서 調音되는 것이다. 이 중에서 [p·b·m·ß·w] 등은 국어의 "ㅂ·ㅁ·ㅸ·와·워" 등을 발음할 때에 나타나는 一部의 音聲들과 같은 것이나 주의할 점은 바로 一對一의 대응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을 발음할 때에는 누구라도 兩唇을 쓰지 않고는 발음할 수 없으므로 兩唇音이라 하는 것이다.

② 唇齒音(labiodental)에는 [ɱ·f·v·ʋ]등이 배정되어 있으니 아랫입술과 윗니 사이에서 調音되는 것이다. 英語의 'f·v'가 이러한 소리에 해당한다. 우리 국어에는 이러한 音聲이 쓰이지 않고 있으니, 英語를 배울 때에 f·v의 발음이 힘들었던 것은 이러한 사실 때문이다.

이 調音位置의 排列 順次는 입술에서 시작되어 안 쪽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다.

I.P.A.는 齒音(dental)과 齒莖音(alveolar)를 같은 칸에 배정하여 구별하지 않고 있으나 여기서는 갈라서 설명하겠다.

③齒音(dental)에는 [θ·ð] 등이 배정되니, 아래·윗니 사이에 舌尖이 들어갔다가 떨어지면서 調音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音聲을 간혹 齒間音(interdental)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音聲은 英語의 "thing, this"에서 th 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러한 소리는 국어에는 쓰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발음하기 힘들었으나, 이렇게 調音位置와 方式을 익히면 어렵지 않게 된다.

④ 齒莖音(alveolar)에는 [t·d·n·l·r·s·z…] 등이 배정되어 있으니 舌端과 웃잇몸 사이에서 調音되는 것이다. 국어의 "ㄴ·ㄷ·ㄹ·ㅌ·ㅅ"등이 이러한 소리에 해당한다. 우리 국어에서는 齒音이 따로 없어 齒莖音과 齒音의 엄격한 구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때로는 齒莖音을 그냥 齒音이라 부르는 수도 있다.

⑤ 捲舌音(retroflex)에는 [ʈ·ɖ·ɳ·ɭ·ʂ·ʐ…] 등이 배정되어 있으니 舌端이 硬口蓋 쪽으로 말려 올라가면서 調音되는 音聲이라 한다. 이러한 소리는 국어에서는 잘 쓰이지 아니한다. 혹 '물·불' 할 때의 ㄹ은 舌端이 상당히 말려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ㄹ이 권설음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한다. 권설음의 字母는 그 字體가 많이 일그러져 쓰기가 불편한 점이 있으므로, 때로는 正常 字體 아래에 한 점을 더하여 [ṭ·ḍ·ṣ] 등과 같이 표기되기도 한다.

⑥ 口蓋齒莖音(palato-alveolar)에는 [ʃ·ʒ]의 두개가 배정되어 있으니, 舌端과 齒莖 사이에서 調音되는 것은 齒莖音과 같으나, 前舌面이 口蓋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齒莖音과 다른 점이다. 국어에서는 ㅅ이 [j]에 先行할 때에 [ʃ]로 實現된다.

⑦ 齒莖口蓋音(alveo-palatal)에는 [ɕ·ʑ]의 두 개가 배정되어 있으니 齒莖과 硬口蓋 사이에서 調音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어에 이러한 音聲이 없기 때문에, 더러 그러한 音聲이 모르는 사이 實現되었다고 하더라도 前項 口蓋齒莖音과의 구별이 어려울 것이다. 이 音은 그 調音位置의 표시로 보아, 좀더 口蓋쪽으로 몰린 音이라 하겠다.

⑧ 硬口蓋音(palatal)에는 [c·ɟ·ɲ·ʎ…] 등이 배정되어 있으니, 前舌面과 硬口蓋 사이에서 調音되는 音聲들이다. 국어에서는 "ㄴ"이 [j]에 앞 설 때에 [ɲ]으로 實現되는 듯하고, "ㅈ·ㅊ·ㅉ" 등도 口蓋音으로 부르고 있으나, 破擦音을 두지 않고 있는 I.P.A.에서는 이에 맞는 音聲字母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어의 ㅈ·ㅊ·ㅉ는 보통 [tʃ·tʃʻ·tʃ'] 등으로 표기하니 이들이 口蓋音임은 말할 것도 없다.

⑨ 軟口蓋音(velar)에는 [k·g·ŋ·x…] 등의 字母가 배정되어 있으니, 이들은 軟口蓋와 後舌面 사이에서 調音되는 音聲이다. 국어의 "ㄱ·ㅋ·ㄲ·ㆁ" 등도 이 자리에서 調音되니, 軟口蓋音에 해당된다. 그러나 국어 字母에 해당되는 音聲字母가 다는 배정되어 있지 않음에 주의할 일이다.

⑩ 懸壅垂音(uvular)에는 [q·ʀ…] 등의 字母가 배정되어 있으니, 목젖과 後舌面 後部 사이에서 調音된다. 이들 字母가 지시하는 音聲들은 우리에게 알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 중 [R] 같은 것은 佛語 r의 巴里 變種으로 實現되는 수도 있으니, 그러한 기회에 혹 들을 수 있을 것이다.

⑪ 咽頭音(pharyngal)에는 두 개의 字母가 배정되어 있으니, 舌根

과 咽頭壁 사이에서 調音되는 音이다. 이들 音聲도 우리에게 알기 어려운 것들이다(I.P.A.표를 보라).

⑫ 聲門音(glottal)에는 [ʔ·h·ɦ] 3개의 字母가 배정되있으니, 聲門에서 調音된다. 이들은 혹 喉頭音이라 부르기도 한다. 국어의 'ㅎ'도 여기서 調音되며 聲門音에 해당되고 또 된소리의 한 資質이 [ʔ]에 의하여 표시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調音位置에 의한 子音의 分類를 일단 끝낸다. 이 방법은 調音位置를 분명히 지적하여 우리가 귀로 알아 듣기 어려운 音聲까지도 발음할 수 있게 하는 편리한 것이긴 하나 이 방법에 缺點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첫째는 여러 言語의 子音들을 모두 표기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言語의 하나 하나에 대한 표기는 도리어 불완전한 것이 되거나, 지나친 細分이 되고 마는 점이다. 즉 각 言語의 音聲表記가 실정에 맞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수의 補助記號와 表記上의 變改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처사로 보인다. 둘째로 이같은 分類의 또 하나의 缺點은 모든 子音의 調音位置가 원칙적으로 하나씩만 있다는 것이 전제된 듯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子音에 따라서 調音 位置가 두 군데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으니, 가령 [w] 같은 것은 圖表上에 두 번 나오고, 그 하나에 ( )를 끼워 第二 調音點임을 보이고자 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I.P.A. 圖表를 보라).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것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이같은 분류는 依然히 편리하고 훌륭한 분류인 것이다.

1-5-2 調音方式에 의한 子音分類

하나의 調音位置에서 하나의 音聲만 調音되는 것이 아님은 같은 調音位置에 배정된 音聲字母가 하나만이 아니었음에서 이미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우리가 前章에서 이미 끝낸 분류가 바로 이같은 것이었다. 하나의 調音方式은 또한 하나의 調音位置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調音方式에서 만들어지는 音聲도 하나만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調音位置에서 분류되는 音聲이 따로 있고, 또 調音方式에서 분류되는 音聲이 따로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같은 하나의 音聲이라도 두가지의 分類 基準에서 분류된 然後에야 더욱 명백히 그 성질이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調音位置라는 기준에서 子音들을 한 번 분류하고, 여기서 調音方式을 기준으로 다시 또 한 번 분류하려는 것은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데 있는 것이다.

① 破裂音(plosive): 口蓋帆이 올라가서 鼻腔 通路를 막고, 숨이 口腔 內部의 어느 部位에서 완전히 閉鎖되거나, 그것이 파열되면서 나는 소리니, [p·b·t·d·k·g·ʔ] 등이 그것이다.

破裂音은 閉鎖音(Stop)이라고도 하는데, 파열이란 말이 이들 音聲의 調音方式에 필수적인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서 그 부당함을 덜어버리려는 취향이라고 하겠다. 閉鎖音의 調音을 자세히 보면 언제나 파열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밥」 [pap]이라고 할 때에, 두 개의 [p]가 나타나는데, 처음의 [p]는 닫쳤던 입술이 파열되면서 나지마는 끝의 [p]는 열렸던 입술이 닫치면서 난다. 前者는 外破音(explosive 혹은 開放閉鎖音(released stop)이라 하고 後者를 內破音(implosive) 혹은 抑止閉鎖音(unreleased stop)이라 한다. 內破音은 外破音에서 구별 표기하기 위하여는 [p˺]와 같이 한다. 外破音과 內破音의 구별은 國語音聲의 설명에 필요한 것이다. ㄱ·ㅋ 등은 특정 위치에서 모두 같은 內破音 [K˺] 등으로 실현되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② 鼻音(nasal): 口腔 內의 어느 部位가 閉鎖되고 口蓋帆이 내려가 숨이 鼻腔으로 流出되면서 나는 소리니 [m·n·ŋ] 등이 그것이다. 이 때에 口腔內의 空氣壓은 上昇되지 아니한다.

③ 舌側音(lateral) : 口腔의 中央 通路가 차단되어 숨이 혀 옆을 지나면서 나는 소리니 [l], [ʎ] 등이 그것이다. 後者는 前者의 口蓋音이다.

④ 顫音(rolled) : 혀끝이나 목젖등이 떨려서 나는 소리니 [r·R] 등이 그것이다.

⑤ 彈音(flapped) : 혀끝을(혹은 목젖 등) 긴장시켜 한번 튀기면서 나는 소리니 [ɾ]이 그것이다. 국어의 ㄹ은 母音 間에서 이 소리로 實現된다.

⑥摩擦音(fricative) : 口腔內의 어느 部位에서 만들어진 좁은 틈을 숨이 빠져 나가면서 마찰을 이르켜 나는 소리니 [ß·f·v·θ·ð·s·z·ʃ·ʒ] 등이 그것이다.

⑦ 半母音(semi-vowel) : 口腔의 어느 部位가 마찰을 일으킬 정도로 좁혀지기는 하나 摩擦音과 같이는 좁혀지지 않고 나는 持續音이니 [w·j] 등이 그것이다. I.P.A. 圖表에서는 無摩擦持續音과 半母音(frictionless continuants and semi-vowels)이라는 한칸에 묶고 있다. 半母音은 다른 母音에로의 過渡(glide)가 전제되어 있고, 閉鎖의 程度가 좀 좁고 圓脣化도 좀 弱한 것으로 되어 있다.

音聲의 分類는 이밖에도 몇 가지가 더 있다. 먼저 聲帶 振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有聲音(voiced S.)와 無聲音(voiceless S.)으로 나누니 [b·d·g···] 등은 有聲音이고 [p·t·k···] 등은 無聲音이다. 有聲音과 無聲音의 구별은 보통은 閉鎖音·破擦音·摩擦音 등에서만 하게 되는데, 국어에 있어서는 이 구별이 잘 느껴지지 아니한다. 국어에서는 이러한 구별보다도 오히려 有氣音 또는 帶氣音(aspirated S.), 聲門化音(glottalized S.), 또는 喉頭化音(laryngealized S.) 등이 잘 구별된다.

有氣音 ㅍ[pʰ], ㅌ[tʰ], ㅊ[čʰ (tʃ=č)], ㅋ[kʰ] 등은 그 調音과 거의 동시에 呼氣의 過渡音이 수반되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後行母音의

발음에 앞선다. 이 呼氣의 過渡音은 聲門의 열리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강하게 되는 것이다.

聲門化音은 흔히 된소리 [硬音]라 불리는 것이니, 즉 ㅃ[pˀ]·ㄸ[tˀ]·ㅆ[sˀ]·ㅉ[čˀ]·ㄲ[kˀ]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調音時의 呼氣壓을 높이기 위하여 發音器官 전체의 긴장 혹은 후두의 긴장이 수반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有氣音과 聲門化音은 국어에서 매우 잘 드러나는 중요한 음성이다. 다시 이 밖에 調音時의 所要時間을 기준한 하나의 분류가 가능하다. 가령 子音에 있어서는 閉鎖音과 같이 그 調音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瞬間音이 있는가 하면 鼻音·舌側音·顫音·摩擦音과 같이 어느 정도의 시간적 지속이 있는 持續音이 있다.

이러한 시간적인 기준이 母音分類에서는 좀 다르기는 하나 길게 나는 것과 짧게 내는 것을 구별하여, 長音 表示에 [·], [:]과 같은 記號를 字母 뒤에 붙일 수 있다.

音聲의 자세한 설명은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은 아니나, 우리의 當面目的에서는 이 정도에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I·P·A 分類表를 옮겨 놓는다.

THE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Revised to 1951.)

		Bi-labial	Labio-dental	Dental and Alveolar	Retroflex	Palato-alveolar	Alveolo-palatal	Palatal	Velar	Uvular	Pharyngal	Glottal
CONSONANTS	*Plosive*	p b		t d	ʈ ɖ			c ɟ	k g	q ɢ		ʔ
	Nasal	m	ɱ	n	ɳ			ɲ	ŋ	ɴ		
	Lateral Fricative			ɬ ɮ								
	Lateral Non-fricative			l	ɭ			ʎ				
	Rolled			r						ʀ		
	Flapped			ɾ	ɽ					ʀ		
	Fricative	ɸ β	f v	θ ð | s z | ɹ	ʂ ʐ	ʃ ʒ	ɕ ʑ	ç ʝ	x ɣ	χ ʁ	ħ ʕ	h ɦ
	Frictionless Continuants and Semi-vowels	w | ɥ	ʋ	ɹ				j (ɥ)	(w)	ʁ		
VOWELS								*Front* *Central*	*Back*			
	Close	(y ʉ u)						i y ɨ ʉ	ɯ u			
	Half-close	(ø o)						e ø	ɵ ɤ o			
	Half-open	(œ ɔ)						ɛ œ æ	ɐ ʌ ɔ			
	Open	(ɒ)						a	ɑ ɒ			

(Secondary articulations are shown by symbols in brackets.)

Other Sounds.—Palatalized consonants: ƫ, ȡ, etc.; palatalized ʃ, ʒ: ʆ, ʓ. Velarized or pharyngalized consonants: ɫ, ɗ, ɀ, etc. Ejective consonants (with simultaneous glottal stop): p', t', etc. Implosive voiced consonants: ɓ, ɗ, etc. ɼ fricative trill. σ, ƍ (labialized θ, ð, or s, z). ʅ, ʓ (labialized ʃ, ʒ). ʇ, ʗ, ʖ (clicks, Zulu *c*, *q*, *x*). ɺ (a sound between r and l). ɴ Japanese syllabic nasal. ɧ (combination of x and ʃ). ʍ (voiceless w). ɪ, ʏ, ɷ (lowered varieties of i, y, u). ɜ (a variety of ə). ɵ (a vowel between ø and o).

Affricates are normally represented by groups of two consonants (ts, tʃ, dʒ, etc.), but, when necessary, ligatures are used (ʦ, ʧ, ʤ, etc.), or the marks ⁀ or ‿ (t͡s or t͜s, etc.). ⁀ ‿ also denote synchronic articulation (m͡ŋ = simultaneous m and ŋ). c, ɟ may occasionally be used in place of tʃ, dʒ, and ƫ, ȡ for ts, dz. Aspirated plosives: ph, th, etc. r-coloured vowels: eɹ, aɹ, ɔɹ, etc., or e˞, a˞, ɔ˞, etc., or ᶒ, ᶏ, ᶗ, etc.; r-coloured ə: əɹ or ə˞ or ɹ or ɚ or ɝ.

Length, Stress, Pitch.—ː (full length). ˑ (half length). ˈ (stress, placed at beginning of the stressed syllable). ˌ (secondary stress). ˉ (high level pitch); ˍ (low level); ˊ (high rising); ˏ (low rising); ˋ (high falling); ˎ (low falling); ˆ (rise-fall); ˇ (fall-rise).

Modifiers.—˜ nasality. ˳ breath (l̥ = breathed l). ˬ voice (s̬ = z). ʻ slight aspiration following p, t, etc. ̫ labialization (n̫ = labialized n). ̪ dental articulation (t̪ = dental t). ˙ palatalization (ż = ʑ). ̣ specially close vowel (ẹ = a very close e). ̨ specially open vowel (ę = a rather open e). ˔ tongue raised (e˔ or e̝ = ẹ). ˕ tongue lowered (e˕ or e̞ = ę). ˖ tongue advanced (u˖ or u̟ = an advanced u, t̟ = ƫ). ˗ or ̠ tongue retracted (i˗ or i̠ = ɨ˖, t̠ = alveolar t). ˒ lips more rounded. ˓ lips more spread. Central vowels: ï (= ɨ), ü (= ʉ), ë (= ə˔), ö (= ɵ), ë, ö. ̩ (e.g. n̩) syllabic consonant. ̆ consonantal vowel. ʃˢ variety of ʃ resembling s, etc.

제 2 장 音 素



2-1 F. de Saussure의 langue와 parole…35
2-2 音素의 定義…40
2-3 音素設定의 手順…58
2-4 音素體系…72
2-5 音素의 配列…108

第2章 音素

2-1 F. de Saussure의 langue와 parole…[illegible]
2-2 音素의 [illegible]…[illegible]
2-3 音素의 [illegible]…[illegible]
2-4 [illegible]…[illegible]
2-5 [illegible]…[illegible]

제 2 장 音 素(音 韻)

지금까지 우리는 입에서부터 귀까지의 物理的 空間에서 實現되는 여러 가지 音聲이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調音되고, 또 그것이 몇 가지로 갈라질 수 있는가 등에 대하여, 중요한 것들을 거의 알아두었다. 또 이러한 音聲을 표기하는 데는 일정한 字母를 [ ]에 넣어서 쓴다는 約束도 알아두었다. 이러한 音聲이 말에 쓰이는 音聲임을 전제하였으나, 정작 중요한 그 말에서의 音聲의 地位와 機能·體系 등에 대하여서는 아직 깊이 알아보지 않고 미루어 두었던 것이다. 이제 여기서는 미루어 두었던 이들 말과의 관계에 대하여 필요한 만큼 알아 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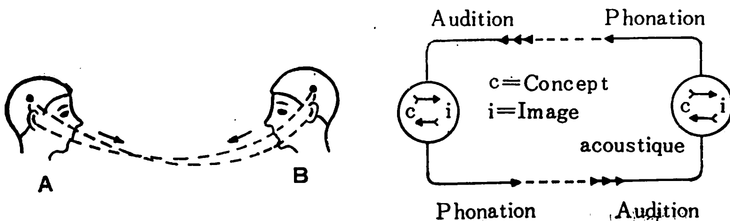
2-1 F. de Saussure의 langue와 parole

F. de Saussure는 對話의 過程을 두 局面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으니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論議한 바, 모괄호 [ ]로 묶어지는 局面, 즉 音聲學的인 것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제부터 알아보려고 하는 두 斜線으로 묶어지는 국면이다. / /으로 표시된 국면을 우리는 音韻論的인 空間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A·B 두 사람이 意思疎通을 위하여 對話의 方法을 취하였다고 가정하자. A·B 두 사람은 같은 말을 쓰고 있는 사람이다. 對話의 궁극적

목적은 각자의 의사 전달에 있으므로 意思는 對話의 實現에 앞선다. 그러나 意思는 감각적인 形體가 없다. 이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보일 수가 없는 것이다. 實現되지 않은 意思 그대로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이에 감각적인 手段의 필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그 수단은 對話인 한에 있어서는 또한 音聲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때에 對話에 앞선 意思가 概念으로 구성된다고 하면 概念도 또한 그것이 표시되기 위하여는 一定 形式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형식은 A·B 두 사람이 다 같이 잘 아는 恒存的 形式이어야 하는 것이고 音聲으로 表出되기 위한 映像形式이어야 할 것이다. F. Saussure는 概念(concept)을 C로, 聽覺映像(image acoustique)을 I로 표시한다. I와 C는 상호 喚起하는 하나의 記號로써 머리 속에 존재하니 이것이 langue다. A의 머리 속에서 선택된 기호가 입에서 實現되고, B의 귀에 전달되니, B는 I를 받아 C를 喚起한다. A의 意思는 B에게 전달된 것이다. 여기서, 發音에서 聽取까지의 過程을 parole이라 하고 그것을 제외한 부분이 langue에 해당한다.

音韻은 langue의 局面에 속하니 A·B 두 사람의 머리 속에 다 같이



恒存하는 I에 해당한다. I는 音聲을 통하여서 顯現되고 聽取를 통하여 認知된다. 그러나 音聲은 그에 先行하는 音韻의 典型이 없으면 實現될 意義를 잃게 된다.

langue와 parole의 관계는, 音韻과 音聲의 그것과 같다. 이러한 관계는 將棋, 貨幣, 樂譜 등 많은 비유에 의하여 설명되기도 한다. 이러한 비유는 다만 音韻과 音聲의 관계만을 위한 것은 아니오, langue와 parole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얼마쯤 敷衍 紹介하겠다.

A·B 두 사람이 一局의 將棋를 둔다고 가정하자. A·B 두 사람이 벌리는 局面은 두 사람의 對話 場面과 같다고 볼 수 있다.

競技에 臨하는 두 사람의 머리 속에는 경기규칙이 먼저 들어 있어야 하는데 이는 對話에 臨하는 두 사람이 같은 言語를 가지고 있어야 함과 같다. 이때의 言語는 音韻이라고 바꿔 말해도 관계 없다. 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競技는 이루어질 수 없다.

競技의 實現은 盤上에서 규칙에 의하여 진행되지만 정작 규칙은 머리 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규칙은 競技의 實現與否와는 관계없이 독립하여 존재하지만, 다만 그 顯現은 競技의 實現을 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音韻은 머리 속에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顯現은 音聲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

楚·漢과 그들의 士卒은 글자 表示와 빛깔이 좀 다르기는 하지마는 그들의 運用을 지배하는 규칙은 兩者의 머리 속에서 동일하다. 두 사람의 音聲은 구체적으로는 좀 다르기는 하지마는 그들의 머리 속의 音韻은 동일한 것과 같다.

規則은 말의 數와 그들 間의 관계만을 규제할 뿐이요, 그들의 顯現에 필요한 資料 自體나, 形象에 관계하지 않는다. 즉 말의 形象이 꼭 어떠해야 하며 말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대하여는 규제하지 않

는다. 말은 나무로 만들어져도 좋고 프라스틱으로 만들어져도 좋으나 어떠한 形式으로든지 다른 것과 구별되기를 요구한다.

音韻은 그 數와 그 대립 관계로만 의존하고 그들의 顯現에 필요한 資料인 音聲 자체의 개별적인 具體性에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音韻은 音聲을 그들의 數와 대립 관계의 顯現에 알맞은 것으로만 분할하고 대우한다. 그러므로 音韻의 顯現은 때로 視覺的 資料, 즉 文字記號에 의지할 수도 있으니, 이 視覺的인 資料는 바로 音韻이 顯現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音聲은 音韻 顯現의 資料로서 가장 적합한 것일 뿐이다. 發音器官이나, 聽取器官의 障碍는 音聲을 알지 못하게 하나, 이것으로 音韻이 損傷을 입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視覺 資料나 觸覺 資料에 의거하여 音韻을 아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規則의 支配에서 벗어난 말은 한갓 나무토막에 불과하다. 音韻의 顯現에서 떠난 音聲은 한갓 물리적인 음향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音聲에 대한 대우가 言語에 따라 다른 것은, 그것이 音韻에 의하여 결정되고, 音聲 자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두 音聲 [p], [b]에 대한 대우는 英語에 있어서와 국어에 있어서 다르다. 영어에서는 두 音韻 /p/, /b/의 實現에 쓰이지만, 우리 국어에서는 하나의 音韻 /ㅂ/의 두 다른 實現으로 보는 것이다.

音韻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뜻을 갈라내는 힘〔機能〕이다. 뜻을 갈라내지 못하는 音韻은 이미 音韻일 수 없다. 音韻의 이러한 점을 우리는 辨別的 機能(distinctive function)이라 한다. 音韻의 辨別的 機能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音韻들이 서로 구별되는 성질에서 온다. 音韻들이 서로 구별되는 이러한 성질을 示差的 資質(contrastive feature) 혹은 辨別的 資質(distinctive feature)이라 한다. 音韻은 辨別的 資質을 가지고 辨別的 機能을 행사한다.

그런데 音韻은 音聲을 통하여 顯現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辨

別的 資質은 音聲的 資質의 어떤 것과 같은 것이거나, 혹은 그 중의 어떤 것에 의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音聲的 資質 속에 音韻을 顯現시킬 만한, 어떤 資質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音韻이 顯現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여기서 音韻과 音聲의 깊은 관계를 알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든 辨別的 資質이 音聲에 의하여 顯現되는 限에 있어서는 音聲的 資質과 같은 것일 수 있으나, 모든 音聲的 資質이 바로 그대로 辨別的 資質일 수는 없는 것이다. 辨別的 資質은 그러므로 音聲的 資質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다. 우리는 훨씬 뒷 부분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音聲的 資質이 調音位置와 方式에 의한 것임을 이미 보았거니와, 辨別的 資質도 결과적으로는 이것에 의지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 같다. 우리는 지금까지 音韻과 音聲을 여러 모로 구별하였고 또 구별할 수 있었다. 그런데, 辨別的 資質이 音聲的 資質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면, 音韻의 독립한 존재는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그러한 主張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러한 見解가 이미 있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이나 견해만이 유일한 정답은 아닌 것이다. 관점이 대상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르다 혹은 같다 하는 것은 대개 觀點의 差異에서 생겨난 결과일 때가 많다. 이 觀點의 差異는 서로 다른 音韻의 定義를 여러 개 만들어 냈던 것이다. 이들 중 중요한 몇 개를 알아 보기로 하자.

2-2 音素의 定義

音韻과 音聲을 구별하여야 할 필요성을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學者들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 두 概念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音韻은 그 顯現이 音聲形式을 빌어서 확인되고 兩者 間에 부분적인 類似나 아니면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들 간의 限界가 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這間의 音韻의 定義들이 각자의 관점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런 추세였다고 할 만한 것이다.

音韻의 定義는 音韻이란 어떤 것이다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 같은 定義의 근거가 확실해야 하고, 그것으로 言語 事實을 記述 혹은 설명하는 데 보다 有效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定義는 또 다른 定義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보완되면서 점차 精密化되어 오늘의 定義에 이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定義들 중의 중요한 몇 가지를 보기로 한다.

2-2-1 Sapir의 心理的 實在說

입에서 調音되고 귀에서 청취되는 音聲은 객관적으로 언제나 다른 것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은 그러한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같은 音聲을 調音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듣는 사람도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이같이 마음 속에서 생각하는 音韻映像은 실제의 物理的 音聲은 아니요, 그것의 心理的 對等으로서 마음 속에 實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定義는 Baudouin de Courtenay (1845~1929, 波蘭人)에 의하여 주장되고, 大同小異한 主張이 많았던

것인데, 그 중에서도 E. Sapir[3](1884~1939)는 이같은 定義의 정당함을 구체적으로 例示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같은 경우를 예시한 거의 유일한 學者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Sapir는 可히 心理的實在說의 代表者가 될 만하였던 것이다. 이제 그의 Sound pattern in language[4]에 보이는 유명한 例를 보기로 하자.

英語의 音聲에는 [m·n·ŋ]과 같은 세 개의 鼻音이 있다. 이들 세 音聲은 調音位置에서 갈라지는데, 그 갈라지는 관계는, 그들과 같은 調音位置에서 갈라지는 閉鎖音 [b·d·g] 등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이들 音聲 間의 관계는 b : m=d : n=g : ŋ과 같은 비례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은 심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ŋ]은 [m·n]과 달리 語頭에 설 수 없는 것이다. met [met]나 net[net]는 아무렇지도 않고, 정상적인 데 대하여, nget[ŋet]는 터무니 없는 發音으로 느껴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單語도 없다는 것이다. 이때에 [ŋ]을 저 비례식과 같이 생각하는 限, 유독 [ŋ]만이 語頭에 설 수 없는 理由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ŋ]을 그에 대응하는 綴字 ng와 같이 [ŋg]으로 파악하면 그때에 비로소 [ŋ]이 語頭에 오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낼 수 있으니, [ŋ]은 심리적으로는 [mb-], [nd-] 등과 같은 系列을 이루는 [ŋg-]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심리적으로 같은 系列을 이루는 [mb-], [nd-], [ŋg-] 등은 어느 것도 語頭에 올 수 없는 것이다. 換言하면 綴字 ng로 표시되는 物理的인 音聲은 [ŋ]일 수밖에 없으나, 이것이 심리적으로는, 즉 音韻으로는 /ng/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형식으로 존재하는/mb-/, /md-/ 등이 語頭에 올 수 없는 것과 같이 /ng-/도 語頭에 올 수 없는

3) 美國의 言語學者, 1884年 독일의 Pomerania에서 出生, 5세 때 美國으로 이주, 미국 인디언들의 文化와 言語를 硏究, 시카고 예일大 敎授 역임, 언어연구와 인류학 사이의 상관성을 탐구하기도 했다. 저서로 1921년에 출판한 *Language*가 있음.

4) *Language* I. 37ff.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ng는 語末에 있어서도 심리적으로는 단순한 [m·n]과, 대립하여 존재하지 않고, ant : and=sink : sing과 같은 비례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英語의 [ŋ]은 어디서나 심리적인 實在 /ng/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Sapir의 이같은 心理的 實在論은 音韻의 一面을 잘 드러내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音韻의 이같은 一面을 전적으로 無效化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心理的 實在論은 그 定義 자체에서 客觀的 解明을 끌어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즉 音韻의 解明은 그 대상이 이러한 心理的인 實在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 定義 자체는 이러한 方法의 提示가 어려운 것과 그에 先行하여 心理 자체의 同一性이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 약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Sapir의 心理的 實在論은 그후 여러 學者들에 의하여 적절히 批評되었다. 그러한 몇 개를 소개하여 吟味하고 이 定義의 語學的인 意義와 그 弱點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두는 것은 音韻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우리의 努力에 도움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Trubetzkoy는 그의 유명한 *Grundzüge der phonologie*(1939年 : 李德浩 譯, 1977 : p. 61)에서,

> 音韻을 정의함에 있어서 心理學을 끌어들이는 일은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音韻은 하나의 言語學의 槪念이며 心理學의 槪念이 아니기 때문이다. 音韻의 정의에서 「言語意識」과 관계시키는 일도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言語意識」이란 것은 「言語構成體」를 말하는 隱喩的 表現이거나 혹은 그 자체로서 앞으로 定義되어져야 하고, 어쩌면 전연 定義되어질 수조차 없는 아주 막연한 槪念이기 때문이다.

心理的 實在說에 대한 보다 신랄한 批判은 Bloomfield의 後繼者들, 그 중에서도 Twadell(1935)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다만 Sapir만

을 겨냥한 공격은 아니고 心理的 實在說을 내세우는 見解나, 그와 類似한 見解들을 한꺼번에 공격하는 것이니 결국은 Sapir 도 공격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Twadell 은 먼저 基本的 用語의 定義는 다음 세 가지 規準에 맞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그것은 다른 것과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 즉 그 硏究範圍 內의 同一 序列에 있는 다른 어떠한 定義와도 중복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그것은 明言할 수 없는 假定이나, 애매한 用語가 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 (3) 그것은 方法論的으로 實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즉 硏究範圍 內에 있는 방법에 의하여, 구명할 수 없는 實在를 정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다시 心理的 實在說이 定義로서 有效한 것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는 구명할 수 없는「精神」이라는 것의 言語的 作用을 추측할 권리가 없다. 둘째 그러한 추측에서는 아무런 利益도 얻을 수 없다. 言語의 心理的 過程이란 전연 관찰할 수 없는 것이며, 心理的 精神의 言語的 過程에 대한 內省(introspection)이란 나무로 만든 난로 속에 불을 지피는 일과 같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였다.

이같은 批評들은 주로 心理的 實在說이 가지는 方法論의 弱點을 공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精神의 顯現은 行動을 통하여서만 관찰할 수 있는 것이므로 行動을 가지고 精神을 설명하려는 태도는 可하려니와, 그 결과로 얻어진 精神을 가지고 다시 그 行動을 설명하려 한다면 이는 循環論이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循環論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對象으로서 존재하는 音韻의 心理的 側面을 인정하여도 무방할 듯하고, 이 心理的 側面을 物理的인 方法으로 해명하는 일만이 남는 것이 된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명되는 대상에, 心理的인 側面이 있어서는 不可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2-2-2 Jones의 物理的 實在說

心理的 實在說과는 달리 音韻이 音聲으로 實在한다는 견해가 物理的 實在說이다. 物理的 實在說을 주장하는 견해는 어떤 言語의 音聲을 일정 방법으로 분류 정리하여, 그것을 音韻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言語의 音聲의 總和는 그 音韻의 總和와 같은 것이 된다. 다만 音聲이 무한히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音韻은 이들을 몇 개의 group으로 묶고 있는 단위가 된다. 하나의 物理的 對象은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측정 분류될 수 있다. 같은 길이가 미터法으로 측정될 수도 있고 尺寸法으로 측정될 수 있다. D. Jones의 音韻의 定義는 이러한 測定 方法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 音素란 任意의 言語에 있어서의 音聲들의 家族인데, 그 音聲들은 성격상 서로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 중의 어느 한 音聲(成員)도 單語에 있어서, 다른 것과 동일한 音聲的 環境에 쓰일 수는 없는 것이다.
>
> A phoneme is a family of sounds in a given language which are related in character and are used in such a way that no one member ever occurs in a word in the same phonetic context as any other member.[5]

이같은 定義는 實現된 音聲들을 그 성격상의 關聯性과 出現環境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한 音素로 묶는 일이므로, 처리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여 주는 강점이 있다. 다만 이 두 기준이 적용되려면 그에 앞서 音聲들은 먼저 개별적으로 갈라져 있어야 하고, 그 出現의 環境도 겹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音聲들의 성격상의 관련성은 우리가 앞서 다룬 바 있는 音聲의 分類 정도에서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환경에 나타나는 音聲들은 서로 다른 두

5) D. Jones, The Phoneme: its nature and use, p.10, Cambridge, 1962.

개의 家族에 겹쳐 所屬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所屬을 어느 한 쪽으로만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가령 국어의 語末에 나타나는 內破音 [t'] 는 音素 /t/의 成員으로만 所屬시키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t/ 뿐만 아니라 /tᶜ/, /cᶜ/, /s/ 등도 이른바 中和에 의하여 같은 [t']로 實現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난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 정의는 音素設定의 方式에서 그 出現環境에 注目한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 音聲環境이란 표현은 이후 美國 構造言語學에서의 分布(distribution)라는 概念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얼마쯤의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Jones의 音素란 성격상 類似한 여러 音聲이 家族으로 묶인 것이며, 그 成員으로서의 이들 音聲은 한 單語의 동일한 환경에서 출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2-2-3 Bloomfield의 物理的 實在說

音素를 音聲에 實在하는 것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Bloomfield의 定義는 역시 物理的 實在說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Bloomfield의 音素 定義는 우리가 앞서 본 바 D. Jones의 物理的 實在說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Bloomfield는 音素를 音聲의 辨別的 音聲資質의 最小 單位(a minimum unit of distinctive sound feature)[6]라 하였다.

音素가 音聲資質에 內在한다는 점에서는 物理的 實在說이나 音聲資質의 전부가 곧 音素는 아니라는 점에서 D. Jones의 定義와 다른 것이다. 그 資質 중의 일부인 辨別的 資質만이 音素가 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音聲的 資質에는 辨別的(distinctive) 資質과 非辨別的(nondistinctive) 資質이 있고, 이 두 資質을 합친 것이 「總體的 音響

6) Bloomfield: *Language*, p.79, New York, 1954.

資質」(gross acoustic feature)이란 것인데, 辨別的이란 말뜻을 갈라내는데 관계 있다는 것이며, 非辨別的이란 그렇지 못한 資質인 것이다. 가령 국어의 音素 /ㄱ/이 [k], [g], [k'] 등의 音聲으로 實現된다고 할 때에, D. Jones의 견해에 따르면 이 세 音聲은 각각 音素 ㄱ의 成員이고 이 셋을 합친 것이 音素 /ㄱ/이 되는 것이지마는 Bloomfield에 의하면 이 세 音聲 속에는 공통으로 恒存하는 不變의 特徵인 資質이 들어 있어서 이것이 發話時에는 反復하여 나타나고, 이것이 뜻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것만이 音素 /ㄱ/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즉 [g]에 들어 있는 資質 有聲性이나, [k']에 들어 있는 內破性과 같은 것은 非辨別的인 資質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Bloomfield에 의하면, 한 言語의 音素란 音聲이 아니라, 話者들이 實地의 말소리에서, 產出되고 認知되고록 훈련된, 音聲資質들의 一部에 불과한 것이다.

> The phonemes of a language are not sounds, but merely features of sound which the speakers have been trained to produce and recognize in the current of actual speech-sound.7)

이것은 마치 운전수가 붉은 信號 앞에서 정지하도록 훈련되어 있는 것과 같으니, 그 信號들은 전등이거나, 孔明燈이거나, 手旗거나 그밖의 다른 것이라도 관계가 없을 것이다. 다만 赤色이란 것이 이들 구체적인 信號들을 떠나서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다. 여기서 구체적인 信號들은 音聲에 비유되고, 그 赤色은 辨別的 音聲資質, 즉 音素에 비유되고 있다.

Bloomfield는 이러한 辨別的 音聲資質, 즉 音素가 기록장치만 정확하면 實驗室에서 확인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1934년에 위스콘신 대학에서 행한 강연에서 그는 音素의 物理的 定義는 앞으로 數十年이 지나면 音聲 實驗室에서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7) Bloomfield: *op. cit.*, p. 80.

이러한 예측이 이루어질 수 없음은 Twadell(1935)에 의하여 지적되었다. Bloomfield는 音素의 實在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記錄裝置의 미비에 돌리고 있으나 도대체 얼마나 정확해야 이같은 주장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장치는 이미 충분히 정확한 것이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音聲은 高低·長短·强弱·音色에 이르기까지, 人間 이상으로 정확하게 記錄하고 再生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기록 속에는 틀림없이 辨別的 音聲資質이 들어 있는 것으로 믿어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音素에 대한 일정한 音聲的 特質이 있음을 밝혀주지 못한다고 한다. 비교적 단순한 母音에 대하여서조차도 그 記錄에 있어서 이른바 formant 들은 매우 概略的이며 폭넓은 規定이 가능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유일한 합리적인 결론은 音波 중에 그러한 積極的 實在로서의 音聲資質을 증명할 수 없고 또 未來에 있어서의 증명을 믿어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Twadell의 이같은 反論에도 불구하고 Bloomfield의 辨別的 音聲資質을 音素로 定義하려 한 점은 높이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音波記錄에서 이러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가지고는 그 定義를 전적으로 無效로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辨別的 資質을 音波 記錄에서만 확인하려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를테면 調音的인 方面에서 求한다면, 그것의 抽出과 規定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音聲 分類에서 이미 이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구체적인 音聲이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지마는 그 分類를 調音位置와 方法에서 求할 수 있었고, 이를 다시 辨別的 資質이라는 한층 높은 基準에서 抽出 규정하는데 새로운 어려움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音波 記錄 중에서 확인하는 방법만이 모든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2-2-4 Trubetzkoy의 辨別的 對立說

한 사물이 다른 한 사물과 辨別되는 것은 대립을 전제로 한다. 兩者 간에 대립 관계가 없으면 兩者의 差異를 辨別해 낼 수 없다. 한 音聲資質에 辨別的 機能이 생겨나는 것은 그 音聲資質이, 다른 한 音聲資質과 대립할 때에만 가능하다. 즉 辨別的 機能은 대립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한 언어에서 單語의 知的 意味를 分化해 낼 수 있는 音響對立을 우리는 音韻論的 對立(phonologish opposition) 혹은 辨別的 對立(distinctive opposition)이라 하고 이러한 기능을 가지지 않는 音響對立을 音韻論的으로 非關與的 혹 非辨別的이라 한다. 特定 言語에서 知的 意味를 分化하는 辨別的 對立 혹은 音韻論的 對立의 各項(jedes Glied)을 音韻論的 單位 혹은 辨別的 單位라 하고, 더 이상 짧은 繼起的인 單位로 분석될 수 없는 音韻論的 單位를 音素라고 한다. 音素는 어느 것이나 한 音韻論的 對立의 한 項(ein Glied)이 되어야 하므로, 여기에서 音韻이란 한 구체적 音聲構成體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音韻的 關與的 資質들과만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音素란 한 音聲 構成體의 音韻論的 關與的 資質의 總和라고 말할 수 있다. 言語音聲들은 결코 音韻 자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한 音韻은 辨別的 資質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음성들은 非辨別的 資質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發話時의 구체적인 음성들은 오히려 音韻들의 資料的 象徵에 불과한 것이다.[8]

Trubetzkoy는 辨別的 對立에 의하여 音素를 定義하고, 음성 자체의 實質的 性格은 音韻의 資料的 象徵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

8 N.S. Trubetzkoy: *Grundzüge der Phonologie*: 李德浩 譯, pp.49~68.

2-2-5 Twaddell의 抽象的 假構說

單語와 文章을 만드는데 構成 要素로 사용하는 音韻을 物體(Dinge)로 파악하거나 實體化(Hypostasierung)하는 것을 피하고, 오직 音素 相互間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對立의 抽象的 假構物로 보는 것이 Twaddell의 定義다. 이 定義는 理論的이며 복잡한 것이 험이라 하겠다. 그가 사용한 비유를 소개하여 그것이 대강 어떤 것인지 알아 보기로 한다.

가령 다섯 개의 손가락은 「序列」을 이룬 한 同類(class)가 되는데, 하나 하나의 손가락은 그들 서로간의 위치에서 확인된다. A·B 두 사람의 손가락은 相似한 序列을 이루는 두 개의 同類가 된다. A의 中指는 그 자체의 길이에 있어서는 B의 藥指와 같을 수도 있으나, 이들 두 손가락은 相似한 序列을 이루지 못한다. 각자의 序列이 다르기 때문이다. A의 中指와 B의 中指는 객관적으로는 매우 다를 수 있으나, 同類에서의 그들 序列은 相似的이기 때문에 相似的 序列의 동일한 項目(term)이 된다.

모든 손의 中指는 크기와 모양과 빛깔에 있어서 대단한 다양성을 보일 것이지만 이같은 현저한 多樣性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든 中指는 相似的 序列을 이룬 類에서 相似的 項目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서 中指의 總和라는 抽象 概念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抽象 概念이 音素의 概念에 비유되고 있다.

pill, till, kill, bill 등은 [-il]을 共同으로 가지는 형식들로서 한 序列的 類를 이룬다. [p: t: k: b] 등은 이 형식들이 實現될 때마다, 언제나 반복해서 나타나는 상호간의 최소 音素的 差異를 抽象化한 項目이니 이들을 小音素(micro-phoneme)라 한다.

nap, gnat, knack, nab 등은 [næ-]를 共同으로 가지는 형식들로서

한 序列的 類를 이룬다. 이들 [næ-] 類의 諸形式에도 그들 相互間의 最小 音素的 差異를 거듭하여 드러내는 項目들은 [p : t : k : b] 등의 관계로, 추상적으로 존재한다. 즉 이들은 [næ-]類 諸形式의 추상적인 音素的 差異의 項인 것이니 이들도 또한 小音素들이 된다.

[-il]類 첫머리의 音素的 差異는 [næ-]類 끄트머리의 音素的 差異와 서로 相似的이다. 이는 마치 왼손 中指의 總和와 오른손 中指의 總和가 相似的인 것과 같다. 그러므로 [-il]類 첫머리 [p]와 [næ-]類 끄트머리의 [p]는 동일한 것은 아니나, 同一 序列에 있는 [t : k : b] 등과 差異를 드러내는 관계는 相似的이다. 즉 pill의 p가 till의 t에서 다르듯, nap의 p도 gnat의 t에서 다른 것이다. 이들 音素는 序列的으로 相似的이다. 諸形式 間의 相似的 序列에 있는 諸項, 즉 小音素의 總體를 大音素(macro-phoneme)이라 한다. 왼손 中指의 總和와 오른손 中指의 總和가 다시 中指의 總和라는 抽象 槪念이 되는 것과 같다. 大音素란 결국 Trubetzkoy 등의 「音素」와 같은 것이다.

音素란 어떤 言語에 있어서 諸要素 간의 相似的인 音素的 差異가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것을 記述하기 위한 用語上의 한 方便으로서, 하나의 抽象 槪念을 사용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音素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나타나는 것은 小音素와의 相關關係에 있는 音聲的 斷片이거나, 혹은 구별된 調音 複合體일 뿐이다. 이는 de Saussure가 langue와 parole을 구별하고 langue에 있어서는 積極的 辭項이 없는 差異들만이 있다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비유컨대 親族 關係를 표시하는 호칭과 같은 것이다. 「兄」이란 호칭은 친족 관계를 드러내는 項 자체로서만 존재하고, 積極的 辭項을 가지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만 이 抽象的 槪念이 話者의 精神 내지는 心理 속에 존재한다는 假定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2-2-6 Jakobson 등의 辨別的 資質論

"同時的으로 결합된 辨別的 資質들의 한 묶음이 音素를 형성한다" (The distinctive features combined into one simultaneous or, as Twaddell aptly suggests, concurrent bundle form a phoneme.)고 하는 Roman Jakobson, C. Gunnar M. Fant, Morris Halle 등의 見解는 주목할 만한 새로운 것이다.[9]

Jakobson 등의 이같은 定義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辨別的 資質의 처리 방법이 從來의 方法과는 달리 兩項對立(binary opposition)이란 독특한 방법을 채택하는 데 있는 듯하다. 이 兩項對立으로 辨別的 資質의 同一性을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 있다고 한다.

兩項對立이란, 音素間의 最小 辨別性(minimal distinction)이 어떤 資質의 有無에 의하거나, 서로 반대되는 한 雙의 資質에서 그 한 쪽을 取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대립을 말한다. 이러한 最小 辨別性은 聽者에게 있어서는, 兩者 擇一의 狀態(a two-choice situation)에 놓여 있으며, 당해 言語의 形態를 分化하는 하나의 特定 資質로서 존재한다.

예를 들면 bill이란 단어는 잇달은 세 개의 辨別的 資質束(bundles of distinctive features)을 가지고 있으니, 音素 /b/, /i/, /l/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音素 /b/는 다음과 같은 資質들의 묶음으로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9) Jakobson, Fant, Halle: *Preliminaries to Speech Analysis.* M.I.T.(1st ed. 1952) 6th ed. 1965, p.3.

이와 類似한 定義는 André Martinet의 "音素란 同時的으로 나타나는 辨別的 資質의 總體로 생각할 수 있다"(Un phonéme peut être considéré comme un ensemble de traits pertinents qui se realisent simultanément)고 하는 것이 있으나, 辨別的 資質의 處理方法이 Jakobson 등과 전혀 다르다.

A. Martinet: La Description Phonologique avec application au parler franco-provençal d'Hautevelle (avoie), Genève, Paris. 1956, p.40.

1) non-vocalic
2) consonantal
3) diffuse
4) grave
5) non-nasalized(oral)
6) lax
7) interrupted

그런데 英語에 있어서는 7) interrupted는 1), 2)의 資質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1), 2)는 剩餘資質이고, 資質 3)도 4)가 그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剩餘的인 것이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音素 /b/는 결국 4), 5), 6), 7)의 4개의 辨別的 資質이 同時的으로 묶인 것이 된다.

Jakobson 등은 모든 言語에 나타나는 辨別的 資質의 兩項對立을 대개 12가지로 보고 있으니, 결국 辨別的 資質은 24가지가 되는 셈이다. 모든 言語에 이 12가지 兩項對立이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그 對立의 수는 言語에 따라 다소의 出入이 있게 된다.

12가지의 辨別的 對立은 주로 音響音聲學的 方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우리들에게는 알기 어려운 점도 있으나, 參考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母音質 對 非母音質(vocalic vs. non-vocalic)

spectrum 위에 분명한 formant가 나타나는 것이 母音質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非母音質이다. 調音上으로는 口腔通路(oral tract)에 공기유통이 자유롭고, 聲門의 자극이 있는 것이 vocalic이고 그렇지 않는 것이 non-vocalic이다.

(2) 子音質 對 非子音質(consonantal vs. non-consonantal)

전체 에너지의 낮은 것이 子音質이고, 높은 것이 非子音質이다. 調音上으로는 口腔通路의 막음이 있으면 consonantal이고 그것이 없으

면 non-consonantal 이다.

(3) 集中質 對 分散質(compact vs. diffuse)

에너지가 spectrum 의 中央 部位에 集中하고 그에 따라 에너지의 전체적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 集中質이고 그 반대가 分散質이다. 調音上으로는 口腔의 最狹部(narrowest stricture)를 基準하여 前腔과 後腔으로 나누고, 前腔의 後腔에 대한 容積 比率이 크면 compact 가 되고(開母音, 硬·軟口蓋音, 後齒莖音), 그 반대가 diffuse(閉母音, 唇音, 齒莖音)가 된다.

(4) 緊張質과 弛緩質(tense vs. lax)

에너지의 全體量이 길고 큰 것이 緊張質이고, 그 반대되는 것이 弛緩質이다. 調音上으로는 보통 휴식 상태보다 口腔通路의 變形(deformation)이 심한 것이 tense 이고. 그 보다 덜한 것이 lax 이다,

(5) 有聲質 對 無聲質(voiced vs. voiceless)

첫째 formant 의 있고 없음에 따라 가른다. 調音上으로 聲帶 振動이 있으면 voiced 이고, 聲帶 振動이 없으면 voiceless 이다.

(6) 鼻腔質 對 口腔質(nasal vs. oral)

鼻腔 共鳴이 첫째 formant 위에 나타나면 nasal 이고, 없으면 oral 이다.

(7) 中斷質 對 持續質(interrupted vs. continuant)

閉鎖音의 spectrum 에서 無音을 보이는 空白 部分이 나타나고(有聲閉鎖音일 경우는 voice bar가 나타난다) 母音에로의 移行에 분명한 수직선이 나타나 그것의 突然함을 보이는 것이 中斷質이고, 그 移行이 점진적인 것이 持續質이다. 閉鎖音과 摩擦音이 이로써 구별된다.

(8) 噪音質과 非噪音質(strident vs. mellow)

spectrum 에 나타난 波狀이 불규칙적인 것이 噪音質이고 보다 규칙적인 것이 非噪音質이다. 前者는 噪音이 强하고 後者는 噪音이 비

교적 弱하다. 英語의 /s/는 strident이고, /θ/는 mellow이다.

(9) 抑制質 對 非抑制質(checked vs. unchecked)

聲門의 압축이나 閉鎖에 의한 空氣流通의 抑制가 있고 없음에서 갈라진다.

(10) 鈍重質 對 銳輕質(grave vs. acute)

spectrum의 주파수가 적은 쪽, 즉 底邊 쪽에 에너지가 집중한 것이 鈍重質이고 이에 反하는 것이 acute다. /i/의 第2 formant는 spectrum의 위쪽에 있으니 acute이고, /u/ 의 第2 formant는 아랫쪽에 있으니 grave다. 調音點이 周邊的 位置(前·後, 唇·軟口蓋)에 있는 것이 grave이고, 中間 位置(硬口蓋, 齒莖)에서 나는 것이 acute다. 母音은 後舌이 grave, 前舌이 acute다.

(11) 低音質 對 平音質(flat vs. plain)

圓唇性은 低音質을 만드는 효과를 낸다. 圓唇과 平唇의 대립으로 생각하면 된다.

(12) 高音質 對 平音質(sharp vs. plain)

혀를 口蓋 쪽으로 올려 口腔을 줄이면 sharp質의 효과를 얻는다. 口蓋性으로 생각하면 된다.

Jakobson 등의 이같은 定義는 종래의 定義 등과 비교하여 어떤 주목할 점이 있겠는가.

첫째로, 辨別的 資質에 音響學的 基盤을 제공하여, 이를 물리적으로 구명할 수 있게 한 점이다. 이는 Bloomfield 등이 기대하였던 바이고, Twaddell 등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았던 難題 중 難題였던 것이다. 그러던 것을 Jakobson 등이 비로소 이같은 객관적 해명의 確實性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같은 방법에 의한 解明이 종래의 어떤 방법보다도 보다 많은 說明力을 가진다는 점이다.

둘째로, 音素를 辨別的 資質의 동시적인 결합인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以上, 分析의 最小 單位가 音素에 있지 않고 辨別的 資質에 있음을 제시한 점이며 이러한 辨別的 資質의 最小 單位들을 확실한 數로 제시한 점이다. 종래의 音素 定義에서는 音素가 分析의 最小 單位였고, 音素 間의 대립에 辨別性이 부분적으로 지적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辨別的 資質을 먼저 一定數의 單位로 정하여 놓고 그들의 결합으로 音素가 된다는 것과 같은 定義는 없었던 것이니, 이러한 定義는 分析의 最小 單位가 辨別的 資質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태도는 최근의 生成音韻論의 態度와 이미 다를 것이 없는 것이 되기도 한다.

세째로, 辨別的 資質 表示에 兩項對立說을 도입하여, 이를 積極(+)과 消極(−)으로 표시하니, 資質의 數는 音素의 數보다 훨씬 적어서 說明과 記述이 크게 간편하여진 점이다. 가령 하나의 資質을 설정하여 그것이 있고 없음을 積極과 消極으로 표시하면 두 개의 單位를 辨別해 낼 수 있고, 두 개의 資質을 설정하여 다시 그와 같이 표시하면, 그 結合으로 규정될 수 있는 單位는 2×2, 즉 4개가 될 수 있고, 3개의 資質을 그와 같이 결합하면 2×2×2, 즉 8개의 單位를 辨別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n*개의 資質設定은 결국 이론적으로 2의 *n*乘만큼의 辨別 能力을 가지는 것이 된다. 換言하면 어떤 言語의 音素들을 그보다 훨씬 적은 數의 그 辨別資質의 結合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가령 네 개의 音素 甲, 乙, 丙, 丁이 있다면 이를 구별해 내는데 두 개의 資質 a·b만 있으면 될 수 있는 것이다.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甲	乙	丙	丁
a	+	+	−	−
b	+	−	+	−

네째로, 이같은 兩項對立說의 導入은 다만 설명이 간편할 뿐 아니

라 보다 많은 說明力을 가지기도 한다. 가령 母音 子音 流音(liquid) 移音(glide) 間의 구별은 [±vocalic]과 [±consonantal]이란 두 개의 資質을 세우고 이들의 組合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이다.

	V	C	L	G
voc	+	−	+	−
cons	−	+	+	−

이같은 설명은 종래의 어떠한 설명보다도 自然言語(natural language)에 나타나는 사실들을 더욱 정당하고 효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母音은 +vocalic 이고 −consonantal 이며, 子音이란 −vocalic 이고 +consonantal 이며, 流音은 +vocalic 에 +consonantal 이고, 轉移音은 −vocalic 에 −consonantal 인 것이다.

Jakobson 등의 이같은 방법은 그 資質 規定을 調音的인 것으로 바꾸어 최근의 生成音韻論에 그대로 採擇되고 발전하여 간 것이다.

Jakobson 등의 이같은 音素 定義는 종래의 어떤 정의보다도 확실히 일보 전진한 훌륭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종래의 모든 定義가 이것으로 대체되고, 이것으로 音素의 定義가 완결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보다 깊은 연구에 기대할 수밖에 없겠다. 다만 現段階에서 이 定義에 대한 미흡한 점을 굳이 찾는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 되지 않을까 한다.

첫째, 音響的 資質 優先의 이 견해를 더욱 철저히 밀고 나가면 音聲學的 側面과 맞닿게 되고, 音素의 獨立的 存在를 부정하는 결과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音素가 言衆에게 있어서는 音聲보다 오히려 구체적인 하나의 實像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방면에서 이루어진 종래의 견해들도 계속 유효한 것으로 남아 있어야 할 것 같다.

둘째, 이미 있는 音素들에 대한 분류와 그 상호간의 관계는 이 定義

로서 설명하는 것이 보다 유력한 것이 사실이나, 音素設定의 手段 등이 종래의 방법보다 반드시 유력한 것인지는 잘 알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가 다소 未洽한 채로 남아 있는 듯하다.

세째, 辨別的 資質의 設定이 보편적인 것으로 존재한다면, 그 범위와 설정 방법이 이 정도에서 충분한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는 듯하고, 같은 관점에 선 見解들도 서로 차이가 있는 듯하다. 즉 兩項對立에서 兩項의 決定과 그 根據는 견해에 따라 상당한 융통성이 있을 듯하다.

2-2-7 音素의 把握과 觀點

우리는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音素의 定義 여섯 개를 소개 검토하였다. 이들 定義는 모두 그럴 듯하고 훌륭한 것들이었으나, 모두 얼마쯤의 難點을 가지고 있었다. 같은 대상을 두고 내리는 定義가 서로 같지 않은 이유는, 觀點의 差異에서 온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한 觀點의 差異는 觀察者의 方法에서 緣由하는 것이기도 하지마는 對象 자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側面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音素의 定義가 다양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이같은 사실을 배척할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다양한 定義는 音素의 正體를 밝히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는 一面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 개의 서로 다른 定義는 여섯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음을 보이는 동시에 音素 자체가 또한 여섯 가지 그러한 側面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langue와 parole, 言語能力과 遂行, 價値體系와 그 手段, 非連續的인 分割方式과 連續的인 實象, 音韻과 音聲 등은 모두 동일한 사실의 兩面이요, 관점에 의하여 생겨나는 兩面인 것이다. 어느 定義가 가장 좋은 것이냐는 설명력이 많고 쉬운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

개의 定義는 이러한 방향으로 精密化되어 온 것들이라 할 것이니 이들에 대한 충분한 음미는 어느 것이나 音素의 正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2-3 音素設定의 手順

배·사과·밤·대추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과일들이 서로 섞여 한 무더기로 쌓여 있을 때에, 이것들에 일정한 手段 方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種類로 가르고, 품질과 등급을 갈라내는 일과 같은 것이 이른바 手順이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 音聲들이 서로 어울려서 言語形式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들이 몇 개의 音素로 되어 있으며 어떤 것을 하나의 音素로 보아야 할 것이냐 등을 알아내는 데 어떠한 방법을 어떠한 順序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音素設定의 手順이다. 우리가 日常에 쓰고 있는 말들은 대개 일정한 길이를 가진 하나의 연속적인 音聲形式으로 나타나서, 위에 말한 배·사과 등의 무더기 같이 구별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하나의 音素가 거듭 나타날 때에는 그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좀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수도 있고, 어떤 두 音素가 잇달아 나타날 때에는 그것이 하나인지 둘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국어를 사용할 때에는 發話에서나 聽取에서나 별로 어려운 일은 없는데, 이는 우리가 늘 그것을 쓰고 있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익숙한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개인이 마음대로 쓰기는 하지마는 個個人의 멋대로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니 우리들 個個人은 될 수 있으면, 남에게 알기 쉬운, 남과 같은, 우리들 共同의 音素와 그 實用 規則을 잘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다. 國語의 音素가 모두 몇 개가 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쓰이는 가를

잘 알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規則을 이해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몇 개의 音聲이 잇달아 實現되어 있을 때 그것을 몇 개의 音素로 볼 것인가를 알아내는 手順 및 規則들은 잘 알려진 것이 몇 가지 있으므로 이에 하나씩 차례로 설명하여 두겠다.

2-3-1 Trubetzkoy 의 音素設定의 規則

Trubetzkoy 는 音素設定의 規則을 4가지 두고 있다.[10)]

> **規則 1**: 한 言語에서 두 개의 音聲이 완전히 동일한 音聲的 環境에 나타나고, 單語의 知的 意味에 아무런 차이를 불러 일으킴이 없이, 서로가 交替될 수 있으면, 이들 두 音聲은 한 音素의 隨意的 變異音들이다.

어떤 言語에서든지 이같은 隨意的(自由) 變異音(free vortation or fluctuation)은 얼마쯤 있는 것인데, 一般 言衆들은 이것의 존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가령 국어의 「울보」라는 단어에서 音素 /ㅂ/은 [u:lbo]나 [u:lßo]와 같이, [b], [ß]로 발음될 수 있는데, 어느 쪽으로 實現되더라도 이 단어의 뜻은 변경되지 않는다. [b]와 [ß]의 差異는 입술의 닫히는 정도가 다르니 [b]는 완전히 닫히고, [ß]는 닫힐락 말락하는 것이다. 또 英語에서 sit 의 /t/는 [t⁼]로 발음하여 破裂을 시켜도 좋고 [t']로 발음하여 閉鎖에 그쳐도 좋으니, 어느 경우거나 sit 의 뜻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다. 국어의 [b]~[ß]와 英語의 [t⁼]~[t'] 등은 自由變異音의 關係에 있는 것이니, 독립한 音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b], [ß]는 音素 /ㅂ/의 두 自由變異音이고, [t⁼], [t']는 /t/의 두 自由變異音들이다. Trubetzkoy 의 隨意的 變異音은 美國 등에서 自由變異音이라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 **規則 2**: 만일 두 개의 音聲이 완전히 동일한 音聲環境에 나

10) N.S. Trubetzkoy: *op. cit.*, 李德浩 譯, pp.69~96.

타나서, 單語의 意味를 변화시키거나, 혹은 不可知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서로 交替될 수 없으면, 이들 두 音聲은 두 개의 서로 다른 音素의 音聲的 實現이다.

가령 두 개의 音聲 [t]와 [p]가 완전히 동일한 音聲環境 [-al]이라는 위치에 나타나서 [tal]과 [pal]이 되었다고 하면, 月·足의 뜻을 가진 두 단어 /달/과 /발/이 생겨난다. 이때에 [t]와 [p]의 交替는 곧 그 뜻 月·足의 交替를 가져오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같이 音聲의 交替가 그 뜻의 交替를 가져올 때는 그 音聲 [t]와 [p]는 각각 독립한 音素 /t/와 /p/라는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동일한 音聲環境 [-al]에, [p], [t] 뿐만 아니라, 다른 音聲들 [tᶜ], [pᶜ] 또는 [tˀ], [pˀ] 등도 바꿔 넣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그 뜻도 탈(假面], 딸[女息], 팔[腕], 빨(? 將洗 혹은 將哺) 등과 같이 서로 다른 단어가 생겨나므로 이들 音聲들도 모두, 音素 /tᶜ/, /tˀ/, /pᶜ/, /pˀ/ 등의 實現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일정한 音聲環境을 하나의 틀거리(frame)로 정하여 놓고 그 틀거리에, 交替되는 項目(item)을 계속하여 하나 하나 바꿔 넣어 보아서, 그 뜻의 다르고 같음을 확인하여 가면 뜻을 갈라내는 項目인 音聲들이 音素로 설정될 수 있는 것이다. [—al]이라는 代替環境 틀거리(substitution frame)에 ㄱ～ㅎ까지의 代替項目(substitution item)을 바꿔 넣어 보면 이들 項目들이 대체로 뜻을 갈라내고 있어서 모두 音素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代替의 方法은 音素뿐 아니라 다른 것의 확인에도 널리 쓰이는 한 방법이다.

또 「달」, 「탈」과 같이 두 단어의 뜻이 다만 한 音素의 差異에 의하여 구별되는 짝을 最小對立의 짝(minimal pair contrast)이라 하고 이러한 짝을 모아서 音素를 찾아내는 한 방법으로 쓰고 있는데 위에 보인 Trubetzkoy의 規則 2는, 결국은 代替法과 最小對立語의 짝을 두고 정한 規則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한 言語

의 모든 音素가 다 찾아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의할 일이다. 가령 국어에서 위와 같은 방법을 계속하여 나가면 [ral]이나 [ŋal] 같은 형식도 나타나게 되는데 국어에서 「랄」, 「알」과 같은 단어는 없으므로 音素 /r/, /ŋ/의 확인은 [-al]과는 다른 틀거리 [ka-]과 같은 것을 쓰거나 다른 방법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規則 2에서 좀 문제가 된다면 「不可知하게」라는 표현일 수 있는데, 「不可知」의 정도가 상당한 폭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작다」라는 말을 요즈음의 여학생들은 흔히 「짝다」와 같이 발음하는 수도 있고, 「사람」을 「싸람」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不可知하게 된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로 不可知한가는 확정하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

> **規則 3** : 한 言語에서, 聽覺的으로나 調音的으로 서로 親族關係에 있는 두 音聲이 절대로 동일한 音聲環境에 나타나는 일이 없으면, 이 두 音聲은 한 音素의 相補的 變異音(kombinatorishe Varianten)으로 평가된다.

국어에서 音聲 [r], [s] 등은 末音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그 반대로 [l]音은 바로 末音에서만 나타난다. 그런데 [l]은 流音으로 [s]보다는 [r]에 더 가까우므로 [r]와 [l]은 한 音素 /ㄹ/의 相補的 變異音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결국 「相補的 分布」에 있는 變異音 등을 한 音素로 묶는 美國式 方法의 한 가지와 같은 것이다.

> **規則 4** : 보통은 規則 3에 해당되는 두 音聲들이라도, 만일 이들이 당해 言語에서 나란히 이웃하여, 즉 한 音聲 結合의 項들로 올 수 있고, 이들 중 어느 하나가 고립된 위치에 올 수 있으면 이들은 同一 音素의 變異音으로 평가될 수 없다.

이 規則 4는 결국 規則 3의 附則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Trubetzkoy가 보인 이같은 경우의 例로는 英語의 [r]과

[ə]를 들고 있다. [r]은 母音들 앞에만 올 수 있는데 反하여 [ə]는 母音 앞에 올 수 없다. 그러므로 [r]과 [ə]는 同一 音韻의 相補的 變異音으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평가할 수 없게 하는 것은 profession[prəfešn]과 perfection[pəfekšn]과 같은 단어의 발음에서 [r]과 [ə]가 이웃하여 나타나고 또 [ə]만이 홀로도 나타나기 때문이라 한다.

국어에는 이와 같은 例가 얼른 생각나지 않으나, 앞에 言及한 音素 /ㄹ/의 變異音 [r]과 [l]이 나란히 이웃하여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하면, 同一 音素 /ㄹ/로 묶일 수 없다는 것과 같은 主張이 될 것이다. 물 [mul]의 ㄹ은 [l]로 되고, 造格語尾 ―로 [-ro]의 ㄹ은 [r]로 되는데 이 둘이 나란히 이웃하여 ㄹ[l]+ㄹ[r]과 같이 되어, 즉 「물+로」와 같은 경우의 發音은 [mulro]와 같이 되지 않고, r의 實現을 볼 수 없는 [mullo]와 같이 되니, 결국 [r]과 [l]은 나란히 이웃하여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同一 音素 /ㄹ/의 變異音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상 4개의 規則은 Trubetzkoy가 音素設定을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Trubetzkoy는 이밖에 個別音素와 音素結合을 구별하는 規則 7개를 따로 마련하고 있음을 附言하여 둔다.

音素를 설정하는데 왜 그 規則이 이같이 4개씩이나 필요한가? 이는 音素의 設定이 하나의 規則만으로는 남김없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音聲들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이것들을 분석하여 하나의 音素로 묶기도 하고 갈라서 두 개의 音素로 세우기도 하니, 그때 그때에 적용되는 基準이 혹 知的 意味이기도 하고, 音聲的 類似性, 즉 그 친족관계이기도 하며, 音聲環境이기도 하다. 결국은 세 개의 기준을 둔 셈이다. 規則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느 것이나, 단어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들

規則의 適用이 단어 위에서 이루어지니, 이 規則들만을 한정하여 생각하면, 이른바 word phonology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3-2 音素分析의 手順

美國의 構造言語學은 音素分析의 手順을 매우 엄격하고 기계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점진적인 改善 혹은 發展이 계속되어 왔고 이러한 결과로 오늘날의 生成音韻論과 같은 단계에 이르러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生成音韻論은 종래의 音韻論보다는 說明力이 매우 강력하고, 한 言語의 音韻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을 예언할 수 있는 힘까지 가진다고 하니, 이러한 音韻 理論이 종래의 理論보다 有力하다함은 거의 의심할 수 없지마는, 이러한 理論이 곧 종래의 理論을 모두 無效化하는 것이 아니며, 종래의 이론을 딛고 넘어선 하나의 발전된 새로운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이론이 있기까지의 묵은 이론은, 새로운 이론의 보다 깊은 이해에 오히려 필요하기까지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이론은 이를 깊이 연구한 새로운 학자들에 기대기로 하고, 이러한 새로운 이론의 이해를 위한 한 방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기서는 오히려 從來 理論의 중요한 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하여 두고자 한다. 이는 無益한 일이라고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Sapir 등의 現場作業(field work)에서 출발하는 美國 言語學은 音素分析에 앞서서, 그 資料로서의 音聲的인 記述에 철저를 기하는 傳統을 세운다. 충분히 자세하고 잘 정리 분류된 音聲的 資料는 音素의 分析을 그만큼 손 쉽고 정확한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構造言語學에서의 音素分析은 第一次的으로 音聲的 資料 整理에서부터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서 그것에 의하여 音素分析에 착수하는 것이며, 보다 윗 層位(level), 즉 形態論이거나, 統辭論的 層位의 情報

를 기다리지 않거나, 배제하려고까지 한다. 이러한 태도는 音素分析에서 엄격하고 기계적인 방법과 범위 등을 규정하게 되어 音素分析의 문제는 音素論層位와 그 下位層位의 情報에서만 해결하여야 하고 上位層位의 情報를 끌어들이는 이른바 層位混合(level mixing)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辨別性의 확인에서도 단어의 表差的 意味(diffrential meaning)만 물을 뿐, 指示的 意味(referential meaning)를 묻지 않았던 것이다. 言語를 있는 그대로 記述 分類할 뿐, 그것이 왜 그러냐에 대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좋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끝까지 堅持하기 어려운 事實들이 차츰 발견되면서, 上位層位에서부터 下位層位로 내려오는 것과 같은 전혀 새로운 生成理論에 도달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美國 構造言語學이 그 간에 발전시킨 音素分析의 手順들을 소개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最小對立語에 의한 音素分析

가령 우리가 다음과 같은 音聲 資料를 가졌다고 하자.

(1—a) [nam]——남(他)
[tam]——담(墻)
[pam]——밤(夜)
[sam]——삼(痲)

이들 資料는 길이에 있어서나, [-am]으로 끝난다는 점에 있어서나 그 모양이 서로 비슷하고 앞 뒤에 休止가 있고, 한 單語라는 점에서도 같다. 다만 첫머리의 [m·t·p·s] 등만이 다르다. 그런데 이들 단어의 뜻은 前記한 바와 같이 서로 다르다. 이때에 이들 뜻의 差異는 첫머리의 [n·t·p·s]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같이 몇 개의 단어가 가능한 最小의 音聲的 差異에 의하여 그들의 의미를 갈라내고 있을 때에, 이들 단어의 짝들을 最小對立의 짝(mini-

mal pairs)들이라 한다. 이들의 最小對立은 대개 한 音聲의 代替(substitution)나 添加(addition)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한 音聲이 뜻을 갈라내는 경우 그 音聲은 대개 한 音素로 보아도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 보인 [n·t·p·s] 등은 국어의 音素 /ㄴ·ㄷ·ㅂ·ㅅ/ 등으로 보아도 좋은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소개한 바 Trubetzkoy의 規則 2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最小對立語에 의한 音素의 分析은 매우 손쉬운 방법이며, 두 개의 音聲이 별개의 音素인가 아닌가 하는 것과 어떠한 音聲的 資質이 辨別的 資質인가 등을 알려주는데 유효한 것이기는 하나 모든 音素가 最小對立語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言語에 따라서 最小對立語를 찾기 어려운 音素를 가진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最小對立語에 의한 音素分析의 진정한 의미는 語義의 表差로 音素를 확인하는 것이나, 이는 결과로써 原因을 추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原因이 結果에 의해서만 밝혀지지 않을 것은 이론적으로 到達할 수 있는 당연한 결론인 것이다. 音素가 다르기 때문에 語義가 달라지는 것이고, 語義가 다르기 때문에 音素가 다른 것은 아니다. 이같은 사실은 同音異義語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다. 가령 다음과 같은 例는 그와 관련된 서로 다른 단어에 대한 정보가 없이는 어떤 音素로 처리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

(1—b) [čip]——짚(藁) or 집(家)
[nat]——낮(晝) or 낯(顔)
[mat(ta)]——맞다(適) or 맡다(臭)
[muk(ta)]——묵다(宿) or 묶다(束)

등은 이들만의 資料로서는 音素를 설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들의 단어들은 屈折時에 드러나는 다른 경우를 참조하지 않는다면 [-p, -t, -k(c)] 등이 어느 音素와 관계되는지 알기 어려우며, 이런 경우의 해석에는 最小對立의 방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다.

(2) **分布에 의한 音素分析**

音素分析에 分布를 고려한 것은 美國言語學만의 독자적인 발견은 아닌 듯하다. 우리는 앞서 Trubetzkoy의 規則 3이 벌써 分布를 고려하고 있음을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美國의 音素論에서 만큼 分布를 重視하고 이를 엄격하게 規定하여 이것의 適用으로 始終一貫한 것은 없을 듯하다. 分布는 美國 構造言語學이 발전시킨 音素分析의 방법 중 가장 重要視된 것의 하나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分布란 Harris의 定義[11]에 의하면 어떤 要素가 일어날 수 있는 環境의 總和를 의미한다. 여기서 要素란 音素와 같다. 이같은 생각은, 音素들은 어떤 것이나 모두,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제한이 있고, 환경이 그들 音素에 干涉할 수 있으며, 또 개개의 音素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은 원칙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하나의 前提 혹은 假定에서 出發하고 있다.

두 개의 音聲 [x], [y]가 있다 하고, 그때에 그것들이 出現할 수 있는 환경을 각각 線分 A와 B로 표시하면, [x], [y]가 드러내는 分布는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 즉 相補的 分布, 等積分布, 抱括的 分布, 重複分布 등이 가능하다.[12]

(2—a) **相補的 分布**(complementary distribution)

X : ———A
Y :   ———B

X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 A에는 Y는 나타나는 일이 없고, Y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 B에는 X는 나타날 수 없다. A와 B의 總和를 하나의 分布로 볼 때에 A와 B는 상호 보충하여 하나가 되니 相補的인 것이다. 이것은 마치 두 각 A·B가 하나의 직각을 이룰 때에 두

11) Z.S. Harris: *Methods in Structural Linguis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12) Block, B.: A note on contrast, *Language* 29, pp. 59~62.

각 A·B를 서로 보각이라 하는 것과 같다. 相補的 分布를 혹 排他的 分布라고도 한다. 이같이 音聲 X·Y가 相補的인 分布를 보이면 대개 하나의 音素로 묶이는 것이다. 相補的 分布의 例는 어떤 言語에서나 흔히 찾아진다. 가령 국어에서 音素 /ㄱ/의 경우를 보면, 그 出現되는 환경에 따라 音聲 [k]와 [g]로 實現된다. [k]는 語頭 및 語中의 無聲的 環境에만 나타나고, [g]는 語中의 有聲的 環境에만 나타난다. 이때 [k]와 [g]의 환경은 서로 겹치는 일이 없이 배타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k]와 [g]는 音素 /k/의 條件變異音(allophone)이라 한다. 音素/k/의 또 하나의 條件變異音 [k']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같은 現象이 音素 /ㄷ/이나, 音素 /ㅂ/의 경우에도 各 [t]와 [d], [p]와 [b]로 그대로 나타나니, [t]와 [d], [p]와 [b]의 환경이 相補的인 것이나, [d]와 [b] 등의 환경은 [g]의 환경과 같으므로 [d], [b]도 [k]에 대하여 相補的인 것이 된다. 相補的인 分布만에 의하여 音素를 설정하려면 이러한 겹치는 경우가 있게 되어, 그것이 충분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또 하나의 다른 기준, 즉 音聲的 類似性을 고려해야 하며 다시, 이 점에 대하여는 한 번 더 言及하게 될 것이다(p.70, 3. 音聲的 類似性 참조).

(2—b) 等積分布(coincident distribution)

X : ———A
Y : ———B

X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 A에는 Y도 나타날 수 있고, Y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 B에는 X도 나타날 수 있다. 즉 A와 B가 완전 일치하여, A가 X의 환경인 동시에 Y의 환경이기도 하고, B가 Y의 환경인 동시에 X의 환경이기도 한 것이다. 두 개의 환경 A·B는 同一 平面 위에 쌓여 있는 하나의 분포인 것이다. X의 환경 면적 A와 Y의 환경 면적 B가 全等한 것이니, 이것이 等積分布라는 것이다.

等積分布를 가지는 두 音聲은 우리가 앞서 언급한 바, 自由變異音의 관계에 있는 경우다. 이런 例에 해당하는 국어의 音素는 /ㅈ·ㅉ·ㅊ/ 등이다. /ㅈ·ㅉ·ㅊ/는 보통의 경우에는 [tʃ], [dʒ], [tʃ'], [tʃᶜ] 등으로 實現되는 口蓋音이지마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을 齒莖音 [ts], [dz], [ts'], [tsᶜ] 등으로 발음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여도 뜻의 차이를 가져오지 아니 한다. 이러한 경우 [tʃ]와 [ts]는 한 音素 [ㅈ]의 自由變異音이다. 이들의 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自主 : [tʃadʒu] or [tsadzu]
天地 : [tʃᶜəndʒi] or [tsᶜəndzi]
짝 : [tʃ'ak] or [ts'ak]

(2—c) 抱括的 分布(incorporating distribution)

X : ——A, ———A′
Y : ———B, ——B′

X의 환경 A가 Y의 환경 B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반대로 X의 환경 A′가 Y의 환경 B′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X는 Y가 實現되는 모든 환경에서 實現될 수 있으나, Y만 實現되고 X는 실현될 수 없는 환경이 있을 때(즉, A,B)와 또 그 반대인 때(즉, A′, B′)가 각각 포괄적 분포를 이루는 것이다.

가령 국어에서 音素 /ㅂ/이 有聲的 環境에서 實現될 때에는 때로는 [b]로 또 때로는 [ß]로도 實現되는데, [ß]가 나타나는 모든 환경에는 [b]도 나타날 수 있으나, [b]가 나타나는 모든 환경에는 [ß]가 다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이니 [b]와 [ß]의 환경은 포괄적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된다. 이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갈비 : [kalßi] or [kalbi] (可能)
곰보 : [kombo] or [komßo] (不可能)

(2—d) 重複分布(overlapping distribution)

X : ———A

Y :   ———B

A와 B의 일부가 중복될 때, 즉 어떤 환경에서는 X와 Y가 모두 實現될 수 있으나, 어떤 환경에서는 서로 배타적으로 實現될 때에 A·B는 중복분포를 이루게 된다.

국어의 音素 /ㄷ/은 환경에 따라 [t], [d], [t'] 등으로 實現되는데, 音素 /ㅌ/도 그 환경에 따라 [tʰ], [t']로 實現된다. 두 音素 /ㄷ/, /ㅌ/은 그 變異音의 하나인 [t']의 경우에 서로 중복되어 나타난다. 이때에 音素 /ㄷ/, /ㅌ/은 중복분포를 보이는 것이다. 變異音 [t'] 자리에서의 중복은 音素 /ㄷ/, /ㅌ/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音素 /ㄸ/, /ㅈ/, /ㅊ/, /ㅉ/, /ㅅ/, /ㅆ/ 등과도 중복되어 [t']의 歸屬 및 解釋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t'] 자리에서와 같은 중복의 경우는 分布만에 의하여는 한 音素로 묶는 것이 어려운 것이 된다. 국어에서 [t']가 音聲的으로 音素 /ㄷ/과 가장 가깝고, 또 音素 /ㄱ·ㅋ·ㄲ/ 등의 경우에 나타나는 [k']와, 音素 /ㅂ·ㅍ·ㅃ/ 등의 경우에 나타나는 [p']와 같은 관계의 同型性을 고려하여, /ㄷ/의 한 條件 變異音으로 묶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音素 /ㅈ·ㅊ·ㅉ·ㅅ·ㅆ/과의 관계는 따로 中和理論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이들 間의 中和만을 인정하고, 전부를 한 音素로 묶는 것과 같은 일은 우리들의 音韻觀念의 實相에서 너무나 멀어지는 일이므로 取擇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處理는 現段階에서 아직도 未解決의 狀態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分布에 의한 音素分析은 충분히 자세한 音聲的 資料를 매우 엄격하고 객관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層位混合(level mixing)이 없는 處理를 할 수 있다는 强點이 있으며, 많은 音素가 이같은 방법으로 분

석 설정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마는 어떤 音素에 있어서는 이같은 分布 一邊到의 適用이 만족스런 결과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차츰 밝혀지고 그것에 대한 얼마쯤의 補完도 이루어져 있었다. 分布에 이어, 이를 보완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3) 音聲的 類似性(phonetic similarity)

두 개의 音聲이 相補的 分布를 이루는 경우에도 한 音素로 묶일 수 없는 例로는 英語의 [h]와 [ŋ]의 경우이다. [h]는 音節 첫머리에만 나타나고 [ŋ]은 音節末에만 나타난다. 이들 두 音聲은 그 환경만을 따진다면 분명한 相補的 分布를 이룬다. 이는 우리 국어에 있어서도 거의 같은 형편에 있는 것이다. 다만 국어의「ㅎ」은 表記上으로는「놓다·놓고·놓지·놓는」과 같은 경우가 있으나, 각각 [노타·노코·노치·논는]과 같이 實現되고 마니 依然히 末音으로는 實現되지 않으므로 分布만을 본다면 [ŋ]과 相補的임에는 變함이 없는 것이다. 英語의 [h]와 [ŋ]이나, 國語의 [ㅎ]이나「ㅇ」은 이같이 相補的인 分布를 이루고 있는데도 한 音素로 묶을 수 없으니, 그것은 이들이 音聲的으로 너무나 顯隔한 差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h]는 無聲音(voiceless sound)인데, [ŋ]은 有聲音(voiced sound)이요, [h]는 摩擦音(fricative)인데, [ŋ]은 鼻腔音(nasal)이요, [h]는 聲門音(glottal)인데, [ŋ]은 軟口蓋音(velar)이다. 그리고 國語의 音素/ㄱ/은 그 變異音으로 [k]와 [g]를 가지며, 두 音聲은 相補的 分布를 보이고 있으며, 두 音聲은 音聲的 類似性이 매우 커서 우리는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이니, [k], [g]의 유일한 차이는 聲帶 振動의 有無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이 두 音聲 [k]와 [g]는 한 音素 /ㄱ/으로 묶을 수 있었다. 그러나 [k]와 [d] 혹은 [k]와 [b] 등도 相補的 分布에 있는 것이나, 이들 間에는 音聲的 類似性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ㄱ/의 異音으로 채택될 수 없었음은 앞서 言及한 바와 같다. 여기서 우리는 音聲的 類

似性이 分布에 의한 音素分析을 補完하는 한 기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音聲的 類似性이라는 것도 정도의 문제이므로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얼마나 비슷하여야 하나의 音素로 묶일 수 있으며, 얼마나 달라야 하나의 音素로 묶일 수 없는가는 言語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言語를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그 사람의 知識水準이나 經驗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국어의 /애/와 /에/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잘 구별이 안 되는 듯하고, 나이 많은 분이라 하더라도 第二音節 이하에서는 상당히 넓은 變異의 幅이 있는 듯하다.

分布에 더하여 音聲的 類似性까지를 고려하고서도 重複分布(2-d)와 같은 경우에는 [t']의 자리를 共有하면서 音素 /ㄷ·ㅌ·ㄸ/ 등이 중복될 뿐 아니라, 音素 /ㅅ·ㅆ·ㅈ·ㅊ·ㅉ/ 들과도 중복되니 [t']는 [p'], [k'] 등이 /ㅂ·ㄱ/과 가지는 관계와의 同型性에서 /ㄷ/에 더 가까운 것은 사실이나, /ㅅ·ㅈ/ 등과의 관계는 다만 멀다고 하면, 이는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未解決로 남아 있게 된다함은 前述한 바이다. 이러한 現象에 대한 解決은 層位混合의 禁忌를 버리지 않는 限 이루어지지 아니할 듯하니, 최근의 生成音韻論에서 形態素로부터 직접 表面形을 유도하는 것 등은 우리의 깊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構造言語學의 音素分析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아직도 魅力이 있으며, 層位混合의 禁忌를 얼마쯤 緩化하고, 다른 層位의 情報를 얼마쯤 받아들인다는 方向으로 나간다면, 生成音韻論과의 거리는 그다지 큰 것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生成音韻論은 지금도 오히려 그 理論의 自體 更新을 거듭하고 있는 듯하고 그 理論의 갈래도 構造言語學의 그것에 못지 않게 다양한 듯하기 때문이다. 言語使用의 궁극의 목적이 의사 전달에 있다면, 그 수단의 一面

으로 채택된 音素들의 問題에, 그보다 上層에 있는 形態論이나, 統辭論, 意味論 등의 干涉이 얼마쯤 있으리라는 것은 처음부터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같은 干涉을 하나의 禁忌로 여겼던 構造言語學은 또한 처음부터 難點을 안고 있었던 것이 된다. 그러나 音素가 한갓 手段에만 그치고 그들 자체의 秩序를 전혀 안가진다고 보고 오직 上層의 支配에만 의지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잘못된 견해일 것이다.

2-4 音素體系

지금까지 音素의 定義, 音素設定의 規則, 音素分析 등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見解들을 대강 알아보았다. 이는 곧 個個의 音素를 알아내는 방법이기도 하였다. 本章에서는 이들 個個의 音素가 다른 音素들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서, 全體 體系와 構造를 이루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 集團의 成員 間에는 相互間에 親疎關係가 있고 位階秩序가 있듯이 音素들도 그들 相互間에 親疎關係를 가지고 서로 對立을 이루면서, 하나의 體系를 갖추고, 질서정연한 構造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2-4-1 聯合關係와 統合關係

言語要素들의 相互關係는 어떠한 層位에 있어서나, 聯合關係와 統合關係라는 두 가지의 관계에 의하여 體系를 이루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

라고 우리가 말했을 때에, 形態論의 層位에서 이들 要素를 생각하면

첫째의 要素 「철수」는 意味와 形態面에서 類似性이 있는 다른 要素들과 聯合된 一群으로 머리 속에 存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철수」의 친구 「복동이, 은수, 명수, 철호」 등 一群의 젊은이 이름이 머리에 떠오르고 그들과 대립된 「철수」가 여기에서 선택되어 나타난 것이 된다. 그 다음 要素 「는」도 같은 機能을 수행하는 「은」 등과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고, 같은 系列에 속하는 이와 유사한 요소들, 이를테면 「-이/가, 의, -에게, -을/를, -와/과」 등과 대립을 이루는 一群으로 머리 속에 존재하다가 여기에서 「-는」이 선택되어 나타난 것이다. 나머지 要素들의 존재 양상도 이와 같다. 같은 系列上에 있는 要素들이 聯想이나 記憶 등의 關係에 의하여 一群을 이루어 머리 속에 존재하다가 그 중의 한 要素가 적당한 것으로 선택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要素 間의 이러한 관계를 F. de Saussure는 聯合關係(rapports associatifs)라고 부르고 있으며,[12] Henri Frei는 記憶上의 關係(rapports memoriels)[13]라 하고, Halliday는 選擇關係 혹은 系列關係(choice relation or paradigmatic relation)[14]이라 부르고 있다.

音素 相互間에도 이같은 聯合關係가 존재한다. 가령 한 音素 /ㄱ/을 머리 속에 떠올리면 이와 매우 친근한 관계에 있으면서, 이와 대립하여 존재하는 /ㄲ/, /ㅋ/ 등이 떠오르게 되고, /ㄱ/이 硬音이나 有氣音이 아니고 平音이라는 점에서 같은 平音 系列 上에 놓여 있는 /ㄷ·ㅂ·ㅅ·ㅈ/ 등이 聯想으로 떠오를 것이며, 이때에 /ㄱ/이 이들과 확실한 구별을 가지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統合關係는 要素 상호간의 配列關係다. 言語要素는 時間이란 次元에서 繼起的으로 전개되어, 하나의 線狀 配列로 나타나므로 어떤 要素는 앞서고 어떤 要素는 뒤따라 서게 된다. 앞선 要素와 뒤따른

12) F. de Saussur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170.
13) Henri Frei: *La Grammaire de Fautes*, p.33.
14) Halliday: 新英文法辭典, 三省堂, p.213.

要素는 상호 의존 관계를 가지면서, 비로소 일정한 가치를 가지게 되고, 이때의 依存 關係는 요소와 요소끼리일 수도 있고, 要素와 全體間의 관계일 수도 있다. 이같은 관계를 F. de Saussure는 統合關係(rapports syntagmatique)라 하고, Henry Frei는 線條上의 關係(rapports discursifs)라 하고, Halliday는 連鎖關係 혹은 統合關係(chain relation or syntagmatic relation)이라 하였다. 앞서 보인 例文에서 「철수」는 앞서고 「-는」은 그것에 뒤따라 붙어 있으니, 이 순서는 바뀌지 아니한다. 「영희」는 「—를」에 앞서고, 「사랑한다」는 行爲는 그 主體가 「철수」이며, 그 行爲의 目的은 「영희」임을 보이고 있다.

音素 相互 間에도 이같은 統合關係가 존재한다. 「철수는」은 /tʃ'-ə-l-s-u-n-ɨ-n/과 같이 8個의 音素가 繼起的으로 先·後하여 線狀으로 배열되어 있다. 「철수는」은 8個 音素의 連鎖로서 그들의 協力下에 價値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音素 상호간의 連結關係가 統合關係인 것이다.

2-4-2 體系와 構造

여러 音素들은 상호간에 聯合關係와 統合關係를 가지면서 존재하고 있는데 모든 音素 間의 聯合關係의 總和가 드러내는 모습을 일반적으로 體系(system)라 부르며, 모든 音素의 가능한 統合關係의 總和가 드러내는 모습을 構造(structure)라고 부르고 있다. 體系와 構造를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는 은연 중에 이것을 잘 구별하여 쓰고 있는 듯하다. 音素體系란 말은 자주 듣지마는 音素構造란 말은 거의 들을 수 없으며, 統辭構造란 말은 흔히 듣고 있으나, 統辭體系란 말은 거의 들을 수 없는 것이다.

한 體系와 한 構造는 다같이 일정 시간과 일정 공간의 靜態를 전제한다. 그러므로 體系와 構造는 시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言語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의 일정한 言語에는 하나의 體系와 하나의 構造가 있을 뿐이다.

言語는 體系요 構造이기 때문에, 그 要素들의 機能이나 價値는 다른 要素들과의 連帶的 相互 關係에 의하여 상대적으로만 결정된다. 이러한 관계를 떠난 要素는 이미 要素가 아니며, 아무런 機能이나 價値도 발휘할 수 없다. 要素는 언제나 全體를 전제하며, 이때 全體는 體系이거나 構造이다. 要素는 하나일 수는 없을 것이니, 다른 要素와의 관계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다.

體系와 構造는 변천할 수도 있다. 體系와 構造의 變化는 모든 要素의 동시적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 要素의 變化는 반드시 다른 要素에 영향을 미치고, 드디어는 體系와 構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판의 將棋는 競技 進行에 따라, 말(駒)들이 차례로 죽어 나가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경기는 진행되고 있어서 마치 競技 全體에는 支障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한 말(駒)의 죽음은 全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같다.

2-4-3 對立의 種類

音素를 辨別的 資質의 同時的 묶음으로 정의할 수 있었다면 辨別的이란 한 音素가 다른 音素와의 對立을 전제하고, 그것들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것이 다른 것과 구별되려면, 兩者 사이의 差異를 드러내는 資質도 있어야 하지마는 兩者 間의 對立을 가지게 하는 共通的인 資質도 전제되어야 한다. 이때에 兩者 間의 共通의 資質은 「比較의 基盤」(base de comparaison)이 된다. 「比較의 基盤」을 전혀 갖지 않은 것은 대립을 이루지 못한다. 한 音素가 정의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音素의 內容이 밝혀져야 하는데, 音素 內容이란, 그 音素가 가지는 모든 關與的 資質의 總和다. 關與的 資質들은 일정한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對立으로 존재하는데 音韻體系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對立의 種類가 밝혀져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辨別的 資質만을 인정하고 그것을 資質複合體로 표시하는 生成音韻論의 그것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닐 듯하다.

A. 全體體系와의 關係下에서 이루어지는 對立의 分類

하나의 對立은, 그것이 속하는 全體的 對立體系와의 관련하에서, (1) 兩面的 對立과 多面的 對立, (2) 孤立的 對立과 比例的 對立의 4가지로 나누어진다.

(1) 兩面的 對立과 多面的 對立

① 兩面的 對立(bilateral opposition)

對立을 이루는 두 項(즉, 두 音素)이 共有하는 資質들의 總體(즉, 比較의 基盤)가 그 두 項 사이에만 獨占的으로 존재하고, 다른 對立들 사이에는 발견되지 않을 때, 두 音素의 關係는 兩面的 對立을 이룬다.

兩面的 對立은 흔히 alphabet의 大文字 E·F의 關係로 비유된다. 이 두 文字의 모양은 F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데, 다른 글자에서는 이같은 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 F는 比較의 基盤이요, 이것은 이 두 文字가 독점하고 있다.

국어의 音素 /ㅅ/과 /ㅆ/은 다 같이 舌端·摩擦音이요, 軟音과 硬音으로 대립하고 있다. 比較의 基盤이 되는 舌端·摩擦은 이 두 音素만이 독점하고 있으며, 다른 音素에서는 찾아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두 音素의 對立은 兩面對立이다. 다시 音素 /ㄴ/과 /ㄹ/의 對立도 兩面的이다. /ㄴ/과 /ㄹ/은 다 같이 舌端·響音인데, /ㄴ/은 鼻音이요, /ㄹ/은 流音이다. 舌端·響音이 比較의 基盤이 되는데, 舌端·響音은 /ㄴ/과 /ㄹ/ 이외에는 없다. 따라서 이 두 音素의 對立은 兩面的이다.

/ㄱ/과 /ㅋ/의 對立은, 그 共通資質로서 通口·軟口蓋·閉鎖性을 가지고 있으며, /ㄱ/이 軟音, /ㅋ/이 有氣音으로 대립하고 있다. 그런

데 通口·軟口蓋·閉鎖音에는 이밖에도 硬音의 /ㄲ/이 있으므로 兩面對立이 되지 못한다. 이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比較의 基盤이 되는 共通資質에 非硬性이란 消極的(—) 資質을 주게 되면 다시 兩面的 對立으로 묶일 수도 있다. 辨別的 資質에 積極(+)과 消極(—)을 두어 音素 間의 關係를 규정하려 한 것은 Jakobson[15]의 兩項對立(binary system)의 방법이었고 이 방법의 發展的 適用이 최근의 生成音韻論이 보여 주는 한 방법이라면, Trubetzkoy의 이 兩面對立 등과 같은 방법은 새롭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ㄱ/과 /ㄲ/의 對立은 無氣性을 共通資質에 추가하면 兩面的 對立이 이루어지고, /ㅋ/과 /ㄲ/은 非軟性을 共通資質에 추가하면 또 兩面的 對立이 되고, /ㄱ/과 /ㆁ/은 非硬·無氣性을 共通資質에 추가하면 兩面的 對立이 되고, /ㅋ/과 /ㆁ/에는 非硬·非軟을 추가하고, /ㄲ/과 /ㆁ/에는 非軟·非硬을 추가하면 또 각각 兩面的 對立이 될 수 있을 것 같다(이때/ㆁ/은 軟音). 다만 Trubetzkoy의 比較의 基盤에는 이러한 消極的 資質을 얼마쯤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확실한 言及이 없고, 兩面的 對立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과, E·F의 비유 등으로 추측한다면 消極的 資質을 比較의 基盤에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② 多面的 對立(multilateral opposition)

두 音素 間의 共通資質이, 당해 言語의 다른 音素에도 나타날 때에는 이들의 對立이 多面的이라 불리운다. 그러니까 이것은 兩面的 對立의 反對가 되는 것이다.

多面的 對立은 흔히 alphabet의 大文字 P·R·B 등의 字形에 비유된다. P와 R은 共通 部分으로 P를 가지고 있는데 이 共通 部分은 P와 R間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B에도 있다. 그러므로 P·R의 관계는

15) R. Jakobson, and M. Halle, *Fundamentals of Language*, The Hague: Mouton, 1956.

多面的이다.

/ㅂ/과 /ㄷ/ 間의 對立은 多面的이다. 이들 間의 共通資質, 즉 比較의 基盤은 通口·閉鎖·軟音이라는 데 있다. 그런데 이러한 資質은 音素 /ㄱ/에도 있으니, /ㅂ/과 /ㄷ/의 관계는 多面的 對立이다. 다시 /ㄱ/과 /ㅁ/ 間의 관계도 多面的이다. 이들 間의 共通資質은 子音的인 데 있을 뿐이다. 子音的인 音素는 이밖에도 많이 있으니 이들의 對立은 多面的이다.

多面的 對立은 다시 等質的 對立(homogeneous opposition)과 異質的 對立(heterogeneous opposition)으로 나눌 수 있다. 多面的 對立의 두 項이 兩面的 對立의 連鎖로 이어져 그 兩極端이 될 때는 等質的 對立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異質的 對立이다. 獨語에 있어서 /u/와 /e/의 對立은 多面的이다. 이들 두 音素는 母音性이라는 事實만을 共有하고 있는데, /u/와 /e/ 間에는 兩面的 對立만으로 이루어진 /u/ : /o/, /o/ : /ö/, /ö/ : /e/와 같은 하나의 連鎖로 이어져 있다. /u/ : /o/는, 獨語 母音에 圓唇後舌音은 /u/와 /o/뿐이니, 兩面的이요, /o/와 /ö/는 半閉·圓唇으로 兩面的이요, /ö/와 /e/는 半閉·前舌로 兩面的이다. 처음의 /u/와 끝머리의 /e/는 多面的 對立이나, 그 사이에는 /u/ : /o/, /o/ : /ö/, /ö/ : /e/와 같은 連鎖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等質的이다.

국어의 母音 /이/와 /우/의 對立은 閉母音이라는 共通資質을 가지는데 閉母音은 이밖에도 /으/가 있으므로 多面的이다. 그런데 /이/와 /으/ 間의 對立에는 共通資質로서, 閉母音 이외 平唇을 추가하여 가지면 兩面的 對立을 이루게 된다. 國語의 平唇閉母音은 이 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으/와 /우/ 間의 對立은 共通資質로서 閉母音이라는 것 이외에 後舌性을 추가하여 가지면, 兩面對立이 된다. 後舌閉母音에는 /으/와 /우/만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우/의 對立은

多面的이나, 그 사이에 /이/ 對 /으/, /으/ 對 /우/의 對立과 같은 兩面對立으로 이어지므로, /이/ 對 /우/는 等質的 多面對立이 된다. 그러나 /ㄷ/과 /ㅂ/의 對立은 이같은 連鎖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異質的 多面對立이 된다.

等質的 對立은 이를 다시 線狀對立(linear opposition)과 非線狀對立(unlinear opposition)으로 나눌 수 있다.

국어의 音素 /ㄱ/ 對 /ㅋ/과, /ㄱ/ 對 /ㄲ/ 間의 對立만을 兩面的이라고 인정하면, /ㅋ/ 對 /ㄲ/ 間의 對立은 通口·軟口蓋·閉鎖를 共通資質로 하는 等質 多面的 對立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이 等質性의 連鎖는 하나밖에 없으므로 線狀的 對立이 된다(이들 對立이 兩面的인가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할 수 있음은 前述한 바이다). 한편 /이/ 對 /으/의 對立도 역시 等質的 多面對立이기는 하지만, 兩項 間의 連鎖가 「이·으·우」 뿐만 아니라, 「이~으~어~오~우」와 같은 또 하나의 길을 택할 수 있기 때문에 非線狀的인 대립이 된다.

(2) 比例的 對立(proportional opposition)**과 孤立的 對立**(isolated opposition)

對立을 이루는 두 項 사이의 관계가 다른 대립에서도 발견될 때, 그러한 대립을 比例的 對立이라 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孤立的 對立이라 한다. /ㄱ/과 /ㅋ/의 대립은 氣의 有無로 이루어지는데, 이같은 관계는 /ㄷ/과 /ㅌ/, /ㅂ/과 /ㅍ/, /ㅈ/과 /ㅊ/ 등의 대립에서도 같은 관계가 있으므로 比例的 對立이 되고, 硬軟의 有無로 대립되는 /ㄱ/과 /ㄲ/도 같은 관계가 /ㄷ/과 /ㄸ/, /ㅂ/과 /ㅃ/, /ㅈ/과 /ㅉ/, /ㅅ/과 /ㅆ/ 등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므로 比例的 對立을 이룬다. /ㅂ/과 /ㅆ/의 대립이나, /ㄷ/과 /ㆁ/의 대립은, 이같은 관계를 가진 다른 音素의 對立雙을 찾기 어려우니 孤立的 對立이다.

B. 對立項들 間의 관계에 의한 分類

音素對立의 種類는 體系를 고려하지 않고도 분류될 수 있다. 對立에 관여하는 對立項들 間의 관계에 따라, (1) 有無的 對立(privative opposition), (2) 等差的 對立(gradual opposition), (3) 等値的 對立(equipollent opposition)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1) 有無的 對立(privative opposition)

어떤 對立이 일정한 資質의 有無로 이루어져 있을 때에, 그같은 對立을 有無對立이라 한다. 이때에 資質을 가진 項을 有徵表項(marked member)이라 하고, 資質을 가지지 아니한 項을 無徵表項(unmarked member)이라고 한다. /ㄱ/과 /ㅋ/의 對立은 氣性資質의 有無로 對立하고, /ㄱ/과 /ㄲ/의 대립은 硬性資質의 有無로 대립한다. /ㅋ/과 /ㄲ/은 有徵表項이고, /ㄱ/은 無徵表項이 된다. 有無的 對立은 혹 缺如的 對立이라고도 한다.

(2) 等差的 對立(gradual opposition)

어떤 對立이 일정한 資質의 정도의 차이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때에 그 같은 대립을 等差的 對立이라 한다. /이/와 /에/의 대립은 開口度의 정도의 차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에/와 /애/의 대립도 역시 開口度의 差異에 의하여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와 /에/, /에/와 /애/의 對立은 等差的 對立이 된다. 또한 이 等差的 對立을 혹 漸進的 對立[16]이라고도 하고 또 혹 階段對立이라고도 한다.

(3) 等値的 對立(equipollent opposition)

對立을 이루는 兩項이, 논리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 이들의 對立項은 徵表의 有無나, 程度의 差異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ㅂ/과 /ㄱ/의 對立이나, /ㄱ/과 /ㄴ/의 對立 등 많은 對立이 이와 같은 것에 속한다. 等値的 對立은 혹 均衡的 對立이라고도 한다.

16) 金完鎭 : 音韻論 및 音聲學(國語學概論, 語文學硏究會編, 首都出版社, 1965).

C. 辨別的 機能(distinctive function)의 作用範圍에 의한 分類

對立을 이루는 音素들이 語形에 실제적으로 사용되면, 그 分布에 따라 辨別的 機能을 발휘하는데, 그 作用範圍에 따라 (1) 不變對立, (2) 可中和對立으로 나눌 수 있다.

(1) 不變對立(constant opposition)

두 音素의 對立이 어느 위치에서나, 변함없이 그 辨別的 機能을 발휘할 때에 그러한 對立을 不變的 對立이라 한다. 국어의 音素 /ㄴ/과 /ㅁ/의 대립은 語頭·語中·語末의 어느 위치에서나 변함이 없으니 이들의 대립은 不變的이다.

語頭에서	눈(眼) 對 문(門), 놈 對 몸
語中에서	하나(一) 對 하마(河馬), 감식(減食) 對 간식(間食), 망녕(亡靈) 對 망명(亡命)
語末에서	간(肝) 對 감(柿), 반(半) 對 밤(栗), 산(山) 對 삼(麻)

不變對立은 혹 固定的 對立이라고도 한다.

(2) 可中和對立(neutralizable opposition)

두 音素의 對立이 어떤 위치에서는 유지되나, 다른 위치에서는 유지되지 못할 때에, 그러한 대립을 可中和對立이라 한다. 可中和對立을 이루는 두 音素가 辨別的 機能을 유지하는 위치를 辨別位置(position of relevance)라 하고, 辨別的 機能을 발휘하지 못하는 위치를 中和位置(position of neutralization)라 한다. 辨別位置에서는 辨別的 機能을 발휘하는 두 개의 音素가 中和位置에서 그 辨別的 機能을 발휘하지 못하는 現象을 中和(neutralization)라고 한다. 하나의 可中和對立을 이루는 두 音素가 그 中和位置에서 中和가 된다는 것은 辨別位置에서 가졌던 그들의 독특한 資質을 잃어버리고, 그들 間의 比較의 基盤이 되었던 共通資質들만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에 中和位置에 나타난 項을 原音素(archiphoneme)라 부르고 있다.

국어의 音素에서 可中和對立을 이루는 것들은 상당히 많다. /ㄱ/과 /ㅋ/, /ㄱ/과 /ㄲ/, /ㄷ/과 /ㅌ/, /ㄷ/과 /ㄸ/, /ㅂ/과 /ㅍ/, /ㅂ/과 /ㅃ/ 등은 모두 音節末에서 中和된다. 이때에 音節末이란 위치는 이들 音素의 中和位置가 되고 이 中和位置에 나타난 音素는 原音素가 實現된다하며, 原音素는 보통의 音素보다는 추상적인 것이다. 有氣音에 대립하는 것을 平音(즉, 無氣音)이라 하고, 硬音에 대립하는 것을 軟音이라 한다면 위에 보인 可中和對立은 平音 對 氣音, 軟音 對 硬音의 對立이 되는데, 이들의 中和位置에 나타난 原音素는 平音·氣音·軟音·硬音에서 다시 추상된 音으로 보는 것이다. 위에 보인 可中和對立의 原音素는 事實 抑制 閉鎖音, 즉 內破音으로 辨別位置에 나타난 相應하는 開放 閉鎖音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音素의 抽象化를 어디까지에서 한정해야 하며, 따라서 中和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직도 충분히 명백한 해명 단계에 이르지 못한 듯하다. 가령 이들 原元素를 잠깐 K'·T' P' 등으로 표시한다고 하면, 이들은 다시 /ㆁ/, /ㄴ/, /ㅁ/ 등 子音 앞에서 辨別的 機能을 상실하고 /ㆁ/, /ㄴ/, /ㅁ/ 등과 中和된다. 이때에 中和位置에 나타난「ㆁ·ㄴ·ㅁ」등은 原音素 k', t', p' 등과 /ㆁ/, /ㄴ/, /ㅁ/ 등과의 中和에서 오는 또 다른 次元의 原音素가 된다. 이러한 것까지 原音素로 인정할 것인가는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국어의 音素對立에는 이밖에도 /ㅅ/, /ㅆ/, /ㅈ/, /ㅊ/, /ㅉ/ 등이 /ㄷ/과 音節末에서 中和를 보이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것들 間의 對立도 可中和對立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는 아직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는 듯하다.

D. 相 關(correlation)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립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對立의 分

類에 의하여 한 音素가 다른 音素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親疎關係를 이해하는데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었고, 이들 音素의 內容이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하였다. 한 音素는 한 가지의 대립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대립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그 참여 방식이 音素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게 하니, 音素끼리의 親疎關係는 對立關係와 같은 것이며, 對立에는 音素 內容과 관계가 있음을 알게 한다. 어떤 言語의 音素들 間의 對立들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그 言語의 音素體系를 이해하는 것이 된다. 이상에 보인 9가지의 대립을 다시 그들의 親疎關係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으니; 그 하나는 相關(的 對立)이요, 그 다른 하나는 無關(的 對立)이다.

兩面的 對立, 比例的 對立, 有無的 對立 및 可中和對立을 이루는 두 音素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대립을 이루는 兩項을 相關雙(correlation pair)이라 하며, 이러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音素들을 無關的 關係에 있다고 한다. 相關的 對立은 有無的 對立이기 때문에, 그 대립의 兩項은 한 資質, 즉 한 徵表의 有無로써 구별되는데, 이때에 이같은 資質을 相關徵表(mark of correlation)이라 한다. 相關的 對立은 또 比例的 對立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은 相關徵表에 의한 대립이 둘 이상 있게 된다. 동일한 相關徵表의 有無에 의하여 대립하는 相關雙의 總體를 相關(correlation)이라 한다. 하나의 相關은 系列(series)과 序列(orders)로 구성되는데, 系列이란 調音點의 差異에 의하여 구별되는 一群의 子音들과, 혀의 最高點의 位置 差異에 의하여 구별되는 一群의 母音을 지시하며, 序列이란 調音 方式의 差異에 의하여 구별되는 一群의 子音들과 開口度의 差異에 의하여 구별되는 一群의 母音을 가리킨다.[17]

17) 國語國文學辭典, 이 部分의 설명은 開口度에 의한 差異를 系列이라고 하였다.

국어의 音素 /ㅂ·ㄷ·ㅈ·ㄱ/, /ㅍ·ㅌ·ㅊ·ㅋ/, /ㅃ·ㄸ·ㅉ·ㄲ/ 등은 각각 平音(혹은 軟音)系列, 氣音系列, 硬音系列을 이루니, 平音系列은 無徵表系列이고, 氣音系列과 硬音系列은 有徵表系列이다. /ㅂ/, /ㅍ/, /ㅃ/, /ㄷ·ㅌ·ㄸ/, /ㅈ·ㅊ·ㅉ/, /ㄱ·ㅋ·ㄲ/ 등은 각각 한 序列을 이룬다.

母音 音素의 경우에도 /이·에·애/는 前舌平唇系列이고 /위·외/ 등은 前舌圓唇系列이며, /으·어·아/는 後舌平唇系列이고, /우·오/는 後舌圓唇系列이다. /이·위·으·우/는 閉母音序列이고, /에·외·어·오/는 半閉半開, 즉 中度序列이고, /애·아/는 開母音序列이 된다.

한 相關은 한 相關徵表로 구별되는 병행된 두 系列과 몇 쌍의 同一序列에 속하는 짝지어 있는 音素를 포함한다. 平音系列의 音素 /ㅂ·ㄷ·ㅈ·ㄱ/은, 有氣音系列 /ㅍ·ㅌ·ㅊ·ㅋ/으로 더불어 하나의 相關을 이루는데 그 相關徵表는 氣音性이며, 相關雙은 네 개가 있게 된다. 즉 /ㅂ—ㅍ/, /ㄷ—ㅌ/, /ㅈ—ㅊ/, /ㄱ—ㅋ/ 등이 그것이다. 이 때에 平音系列은 無徵表系列이며, 有氣音系列은 곧 有徵表系列이고 그 相關徵表 氣音性으로, 이 相關을 氣性의 相關이라 부른다.

다시 軟音系列(즉, 平音系列)의 音素 /ㅂ·ㄷ·ㅈ·ㄱ·ㅅ/은 硬音系列 /ㅃ·ㄸ·ㅉ·ㄲ·ㅆ/ 등으로 더불어 또 하나의 相關을 이루는데, 그 相關徵表는 硬音性이며, 그 相關雙은 각각 같은 序列에 있는 두 音素들의 짝이니, 다섯 개가 있게 된다. 즉 /ㅂ—ㅃ/, /ㄷ—ㄸ/, /ㅈ—ㅉ/, /ㄱ—ㄲ/, /ㅅ—ㅆ/ 등이 그것이다. 이때 軟音系列은 無徵表 系列이며, 硬音系列은 有徵表系列이다. 이 相關은 그 相關徵表 硬音性을 좇아, 硬性의 相關이라 부르게 된다.

平唇系列의 母音 /이·에·으·어/ 등은 圓唇系列의 母音 /위·외·우·오/ 등으로 더불어 하나의 相關을 이루는데, 그 相關徵表는 圓唇

性이며, 그 相關雙은 각각 같은 序列에 있는 두 音素들의 짝이니, /이—위/, /에—외/, /으—우/, /어—오/와 같이 4개가 있게 된다. 이때 平唇系列은 無徵表系列이며, 圓唇系列은 有徵表系列이다. 이 相關은 그 徵表 圓唇性을 쫓아 圓唇의 相關이라고 부른다.

E. 相 關 束(correlation bundle)

한 音素가 A·B 두 개의 相關에 동시에 참여하여, A相關雙의 짝도 되고, B相關雙의 짝도 되면, 그 音素와 같은 系列의 音素들도 그와 같은 노릇을 하게 된다. 이때에 관련된 두 개의 相關 A·B는 하나의 相關束을 이루게 된다. 여기서 對立項의 關係 혹은 系列間의 關系에 따라 두 가지 가능한 相關束의 경우가 想定되는데, 한 相關雙을 이루는 두 項이 다 같이 다른 한 相關雙에 參與하는 경우와, 그중의 한 項만이 다른 相關에 참여하는 경우다. 前者의 경우는 四肢的 相關束이라 하고, 後者의 경우는 三肢的 相關束이라 한다. 梵語의 閉鎖音들은 有聲의 相關과 氣性의 相關을 가지는데, 이 두 相關이 다시 어울려서 하나의 四肢的 相關束을 이루니 그것은 다음과 같다.

```
p—ph    k—kh    t—th
|  |    |  |    |  |
b—bh    g—gh    d—dh18)
```

국어의 閉鎖音들은 氣性의 相關과 硬性의 相關을 가지는데, 無徵表項을 共通項으로 가지기 때문에 三肢的 相關束이 된다. 氣性의 系列에 다시 硬性이 참가할 수 없고 硬性의 系列에 다시 氣性이 참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관계는 다음과 같다.

```
  ㅂ        ㄷ        ㅈ        ㄱ
 ╱ ╲      ╱ ╲      ╱ ╲      ╱ ╲
ㅍ · ㅃ   ㅌ · ㄸ   ㅊ · ㅉ   ㅋ · ㄲ
```

18) Trubetzkoy의 原著에는 縱線이 없는데 筆者가 알기 쉽게 그것을 더 넣었다. p.86.

相關이나, 相關束과 같은 對立 方法은 音素의 分化가 매우 효율적으로 되어 있음을 의미하니, 하나의 相關徵表는 같은 系列에 있는 모든 音素가 그것을 공유함으로써, 그에 대립하는 다른 系列과의 차이를 드러낸다. 이러한 徵表資質은 그 言語의 音素體系에서 매우 높은 辨別性을 드러내고 따라서 한층 중요한 資質임을 알려준다. 어떤 言語의 音素體系가 이러한 대립을 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言語의 音素體系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짜여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대로 한 音素體系에서 相關에 참여하지 못하는 音素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그 音素體系는 散漫한 體系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잘 짜여진 音素體系는 그것을 이루고 있는 音素 相互間의 關係도 분명하고 효율적이지만, 그것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語義分化와 機能의 分化 등에도 높은 效率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4-4 辨別的 資質(distinctive feature)

音素를 辨別的 資質의 同時的 묶음과 그 體系라고 한다면, 辨別的 資質들은 音素를 구성하는 要素들이다. 어떤 資質이 辨別的이냐, 혹은 辨別的이 아니냐 하는 것은 言語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마는 이를 크게 분류하면, 대체로 ① 母音資質, ② 子音資質, ③ 韻律資質 등으로 분류된다. 母音的 資質에 의하여 母音 音素들이 이루어지고, 子音的 資質에 의하여 子音 音素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韻律的 資質들로만 이루어지는 독립한 音素는 추상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다른 音素나 音素結合體에 上加되어 나타난다. 어떤 言語의 辨別的 資質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밝히고, 그 대립을 정리하면 全體體系가 이루어지게 된다.

(1) 辨別的 母音資質과 그 體系

辨別的 母音資質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 部位資質(features of localization)
ⓑ 開口度資質(features based on degree of aperture)
ⓒ 共鳴資質(resonance features)

部位資質이란 母音을 辨別하는 資質이 혀의 가장 높아진 위치에서 나오는 경우와 입술 모양의 圓·平에서 나오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다. 앞서 相關을 설명할 적에 같은 舌位에서 나오는 一群의 母音을 系列이라 하고, 같은 開口度에서 나오는 一群의 母音이 序列이 된다함은 이미 언급한 바이다. 序列은 혹 段階(class)라고도 한다. 共鳴資質이란 鼻腔共鳴이 辨別的 資質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니, 이같은 共鳴資質을 가진 言語로는 佛語를 들 수 있을 것이다. 母音體系는 일반적으로 部位資質과 開口度資質에 의하여, 짜여지는 것이므로, 이들 두 가지 資質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體系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어떤 母音體系는 몇 개의 序列만 있고 系列은 하나만 있는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母音 體系는 그 모양이 하나의 線狀을 이루므로 線狀體系(linear system)라 부른다. 이러한 體系를 가진 言語는 있다고 하여도 드물 것이다. 이러한 體系의 母音에서는 前舌·後舌·圓唇·平唇 등과 같은 系列에서 오는 資質은 辨別的 機能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어떤 母音體系가 二系列로 되어 있다면, 그 系列은 前舌과 後舌로 되어 있는 것이다. 部位資質은 前舌系列 對 後舌系列로 갈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二系列 體系에서는 그 後舌系列이 대개는 圓唇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나, 이러한 圓唇性은 辨別的 機能이 없으므로 剩餘資質(redundant feature)로 나타나게 된다.

어떤 母音體系가 三系列로 되어 있다면 그 系列은 前舌과 後舌의 대립으로 되어 있고, 다시 이 중의 한 系列이 圓唇과 平唇으로 대립되어 있는 것이다.

어떤 母音體系가 四系列로 되어 있다면 그 系列은 前舌과 後舌의 대립에, 다시 前舌系列이 圓唇과 平唇으로 대립하고, 後舌系列도 圓唇과 平唇으로 대립한 것이 된다.

系列, 즉 部位資質에서 갈라지는 一群의 音素들을 體系化한다면, 많은 言語의 母音體系는 대개 이상의 4가지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대개 4가지 體系 중의 하나를 보여 줄 것이다. 환언하면 母音들을 系列別로 體系化한 것이 된다.

母音들은 또 하나의 辨別的 資質인 開口度에 의하여도 體系化될 수 있다. 어떤 言語의 母音이 몇 개의 序列로 이루어져 있느냐는 辨別的인 開口度가 몇 개 있느냐와 같은 것이다. 辨別的 開口度가 둘이면 序列도 둘이며, 開口度가 셋이면 序列도 셋이고, 開口度가 넷이면 序列도 넷이 된다. 開口度가 한 가지만 있는 母音體系는 알려져 있지 않다.

어떤 母音體系가 二序列로 되어 있다면 閉母音(高母音)과 開母音(低母音)이 대립되어 있는 것이 되고, 序列이 셋이면 閉母音·中間母音(半閉半開)·開母音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 되고, 序列이 넷이면 閉母音·半閉母音·半開母音·開母音으로 대립되어 있는 것이 된다.

部位資質과 開口度資質이 어울려서 만들어 내는 母音體系에는 다음과 같은 類型이 있을 수 있다.

a) 어떤 母音體系가 두 개의 母音 /i/, /a/만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들을 辨別하는 資質은 部位資質, 즉 系列로도, 開口度資質, 즉 序列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나, 그 어느 경우에도 線狀體系를 이룰 것이다. 系列로 해석하면 前後로 連結된 水平線狀이 될 것이고, 序列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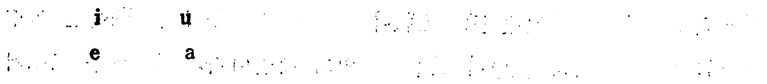
해석하면 上下로 연결된 垂直線狀이 될 것이다. 두 母音 間에는 어떻게 연결하든 하나의 線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無序 二系거나, 二序 無系일 것이다. 실제로 自然言語에 이같은 母音體系를 가진 言語는 있기 어려울 것이다.

i—a(前舌 對 後舌, 즉 部位資質)
i
l (閉母音 對 開母音, 즉 開口度資質)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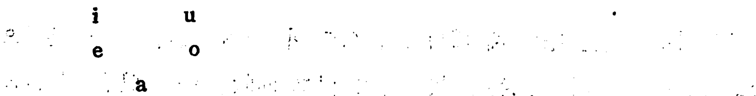
b) 어떤 母音體系가 세 개의 母音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론적으로 가능한 이들의 體系는 線狀일 수도 있고 面狀일 수도 있을 것이다. 線狀體系라면 다시 無序 三系列 體系의 水平線狀이거나, 三序 無系列의 垂直線狀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體系가 自然言語에 있을 것같지 않다. 面狀體系일 경우 그 母音이 /i · a · u/와 같은 것이면, 三角形의 面狀體系가 되겠는데, 그것은 二序(列), 二系(列)의 三角體系일 것이다. Greenland Eskimo 語는 이같은 三母音體系라고 한다.

i u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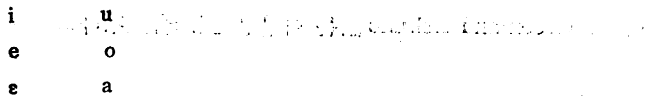
c) 어떤 母音體系가 4개의 母音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론적으로 가능한 이들의 體系의 類型은 線狀, 面狀, 體狀이 다 있을 수 있을 것이다. 線狀이라면 4개의 母音이 한 줄로 늘어선 體系일 것이니 序列만 있거나, 系列만 있는 것일 것인데, 自然言語에 이같은 체계가 있기는 어려울 것이다. 面狀體系라면 四角形을 드러낼 것이고, 體狀體系라면 三角錐와 같은 모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面狀體系일 경우가 가장 蓋然性이 큰 것이니, 그 네 개의 母音이 /i·e·a·u/ 등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二序 二系의 四角體系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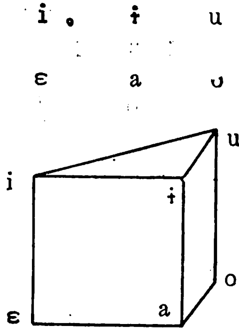
d) 어떤 母音體系가 5개의 母音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가능한 體系의 類型은 面狀이거나, 體狀일 수 있겠다. 그러나 실제의 自然言語에서는 대개 三序 二系의 三角體系, 즉 面狀體系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日本語, 西班牙語, 羅典語 따위는 /i·e·a·o·u/와 같은 五母音으로 面狀의 三角體系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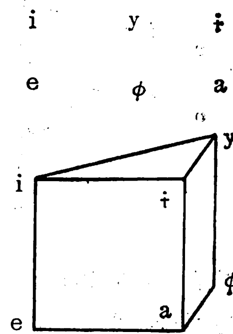


e) 어떤 母音體系가 6개의 母音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가능한 體系의 類型은 面狀이거나 體狀일 수 있을 것이다. 三序 二系의 體系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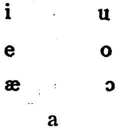


와 같은 四角體系(方形)가 될 것이고, 二序 三系라면, 前舌系와 後舌系에 다시 그 어느 한 쪽이 圓唇 系列을 더 가지는 것이 될 것이니, 그러한 경우는 表面으로는 四角體系를 보일 것이나, 圓唇系를 이으면 三角柱의 形相을 가진 體狀이 될 것이다(이는 分子의 構造式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理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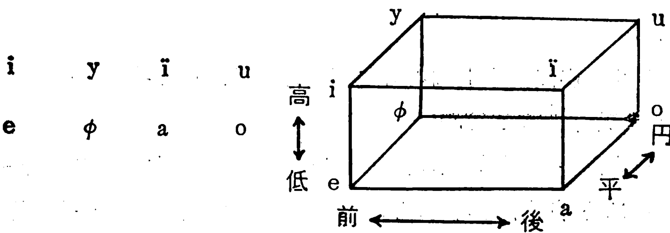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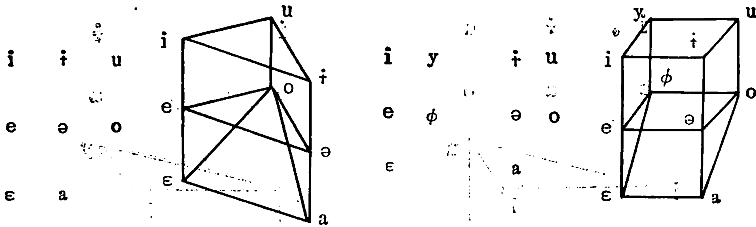
f) 伊太利語는 四序 二系의 七母音體系인데 다음과 같은 面狀의 三角體系로 되어 있다.



g) 土耳其語의 8母音은 二序四系의 體狀 四角體系를 보여주고 있다.



h) 現代 國語의 母音體系는 8母音 體系와 10母音體系가 다 가능한데, 前者의 경우는 三序 三系의 體狀 四角體系가 되고 後者의 경우는 前舌 圓唇系列이 하나 더 있게 되어 三序 四系의 體狀 四角體系가 된다.



i) 生成音韻論의 12 母音體系와 그 資質母型

우리는 지금까지 個別言語들이 가지고 있는 母音들에 대하여, 그 辨別的 資質은 어떠한 것이며, 그들의 對立體系는 어떠한 것일 수 있는가를 종래의 理論에 의거하여 대강 알아보았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경향들은, 이러한 종래의 이론보다 더욱 새롭고 훨씬 강력하다고 하는 生成 音韻論의 理論이 도입되면서, 新舊 理論이 하나의 斷層을 이룬 채 공존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早晩間에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여기서 生成音韻論의 이 부분에 해당하는 基本的 理論을 얼마쯤 알아보고, 그것들이, 이미 소개한 바의 종래의 理論에서 얼마나 다르며, 얼마나 같은가를 살펴보기로 한다.[19]

우선 生成音韻論에서 제시하는 母音體系는 다음과 같은 12 母音으로 되어 있다(圖表 2-1).

이 母音圖는 특정한 個別言語의 母音體系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世界의 모든 自然言語의 母音體系를 記述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母音의 數는 몇 개나 되며, 그러한 母音들이 體系를 이룰 적에 갖추어야

19) 生成音韻論의 理論은 「田相範著 : 生成音韻論」에 의한다. 이 책에 종래의 理論도 批判하고서, 새로운 理論이 제시되어 있다. 이 책을 잘 이해하려면 종래의 理論을 더욱 잘 이해하여야 될 것으로 믿어진다.

[圖表 2-1]

	Front		Back	
	Unr.	Rd.	Unr.	Rd.
High	i	ü	ɨ	u
Mid	e	ö	ʌ	o
Low	æ	œ	a	ɔ

할 資質은 몇 가지나 되겠는가를 제시하는 母音圖인 것인다. 우리는 훨씬 앞의 音聲分類에서 基本母音圖를 공부한 바 있다. 그 基本母音圖가 特定 個別言語의 母音을 보인 것은 아니지마는 그것을 기준하여 특정 個別言語에 나타나는 모든 母音 音聲들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이 12 母音體系圖는 세계의 모든 自然言語의 母音體系를 이에 準據하여 記述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母音 音素 體系의 基本圖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이 母音體系 基本圖는 旣述한 바 여러 가지 體系圖에 대한 설명과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면 三序 四系의 體狀 四角體系를 보여 준다고 하겠으니, 三序列은 開口度資質이 高·中·低로 되어 있고, 四系列은 部位資質, 前舌, 後舌에 각각 平唇과 圓唇을 배합한 것이다. 表面上으로 나타난 사실만 본다면 이 母音體系圖가 前述한 바 종래의 體系圖들에서 크게 다른 것은 없어 보인다. 圓唇系의 低母音 /œ·ɔ/를 제거하면 現代 國語의 最大 體系와 거의 비슷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면서도 이 體系圖는 世界의 모든 自然言語의 母音體系를 記述하는데 꼭 필요한 資質의 數와 그 對立만을 제시한다고 하니, 대체 이 母音體系圖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차례로 음미하여 보자.

첫째 어찌하여 12 개의 母音을 두었는가? 모든 自然言語의 母音의 數는 대체로 12 개면 유효한 數로서 足하다는 것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적은 數의 母音을 가진 自然言語는 물론 많이 있을 것

이나, 이보다 많은 수의 母音을 가진 自然言語는 거의 없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둘째, 어찌하여 前舌·後舌만을 두었는가? 바꾸어 말하면 어찌하여 中舌을 두지 않았느냐? 모든 自然言語는 한 體系 안에서 中舌母音과 後舌母音이 對立(contrast)하는 일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音聲學的으로 中舌母音을 두는 것과는 別個의 것이다. 이는 종래의 주장에서도 部位資質로서는 中舌系를 두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 종래의 주장과 크게 다를 것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종래의 주장이 中舌을 적극적으로 배제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 새로운 體系圖는 그 배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이 다른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部位資質에서는 前·後 舌位의 對立이 기본적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前舌·後舌은 또 각각 平唇과 圓唇을 가질수 있는데, 開口度資質이 最大인 低母音에도 圓唇을 배정하고 있는 것은, 自然言語의 體系에서는 흔치 않을 것이나, 그같은 배정이 필요함을 보인 듯하다.

세째, 開口度資質(즉, 序列)을 high·mid·low의 셋만 설정한 것은 종래의 주장에서 크게 다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中間 開口度 mid가 나타나 있으나, 이 表에서는 적극적인 한 資質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高·低의 否定인 不閉, 不開의 의미를 가진다. 즉 이는 高母音의 對項이기도 하고 低母音의 對項이기도 한 것이다. mid는 資質母型에서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表는 경우에 따라서 二序·三序·四序의 體系로 바뀔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종래의 어떤 母音體系圖와도 다르다.

네째, 資質 設定의 基準이 종래의 것과 다르다. 部位資質 開口度를 인정하고 있음은 종래의 것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나, 종래의 個別的인 母音體系圖에서는 그 개별적인 사정, 즉 그 言語에서의 辨別性만

을 기준하는 것이었으나, 여기서는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取하고 있는 資質設定의 基準은 音聲學的인 方法과 거의 같아 보인다. 우선 舌身(the body of the tongue)의 前後 上下의 位置와 입술의 모양에 따라 결정되나, 이들을 갈라내는 기준으로 中立位(neutral position)라는 概念을 설정하고 있다. 中立位는 마치 座標에 나타나는 原點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이니, 積極 資質 前後 上下에 대하여는 언제나 消極(—)을 가지는 것이 특별히 주의할 점이다.

中立位란 구체적으로 어떤 母音을 내기 直前의 口腔의 모양으로서, 軟口蓋(velam)는 치켜져 있어서 空氣가 鼻腔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舌身은 [e]를 발음할 때 정도로 높아져 있고, 舌端(the blade of the tongue)은 숨쉴 때 정도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舌身이 中立位보다 앞에 오면 [—back], 뒤에 오면 [+back], 또 올라가면 [+high], 내려가면 [+low], 같은 높이, 같은 자리면 [—high, —low —back]과 같은 資質을 가지는 것으로 記述된다. 前舌은 後舌의 對項[—back]으로 표시되는 것도 주의할 것이다. 여기에 다시 唇狀의 圓平을 [±round]로 표시하는 것이다.

앞서 보인 母音體系圖를 그 辨別的 資質에 따라 다시 정리하여 表로 보이면 다음과 같은 資質母型(feature matrix)이 이루어지는데, 資質 表示가 兩項對立의 表示 方法을 取함으로써, 表目은 넷으로 줄어들고, 이에 ±만 더하면 되는 것이다.

	i	e	æ	ü	ö	œ	ɨ	ʌ	a	u	o	ɔ
high	+	−	−	+	−	−	+	−	−	+	−	−
back	−	−	−	−	−	−	+	+	+	+	+	+
low	−	−	+	−	−	+	−	−	+	−	−	+
round	−	−	−	+	+	+	−	−	−	+	+	+

이 資質母型이나, 앞에서 보인 母音體系圖는 모든 自然言語의 母音

記述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이것이 個別言語의 母音 記述을 위하여 쓰일 적에는 대체로 이 범위 안에서 記述될 것이나, 몇 개의 資質이 加減되어도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tense]가 그와 같은 것의 하나이다.

이상 우리는 生成音韻論의 母音體系 등에 대하여, 그 극히 작은 일부분을 보았으나, 이 새로운 이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만 새로운 것으로 가득차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이론의 충분한 이해를 위하여는 오히려 종래의 이론들도 충분히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辨別的 子音資質과 그 體系

辨別的 子音資質도 역시, 調音位置에서 오는 部位資質과 調音 方式에서 오는 障碍克服資質과 共鳴 隨伴의 有無에서 오는 共鳴資質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母音資質에 있었던 開口度資質이 여기서는 障碍克服資質로 바뀌어서 子音資質을 드러내는데 적당한 이름으로 바뀐 것이다. 調音位置와 調音方式 등은 우리가 音聲의 分類에서도 이미 적용한 바 있는 音聲分類의 기준이기도 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辨別的 資質의 동시적인 묶음을 音素로 보고, 이들 辨別的 資質에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니, 音聲分類에서 적용하였던 기준이 바로 그대로 音素의 分類에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a) 子音 音素의 辨別的 部位資質 基本 三系列

子音 音素들의 辨別的 部位資質은 基本的 三系列를 둘 수 있다. 이는 母音의 部位資質에서 前·後舌 兩系列을 두었던 것과 같은 이치다. 唇音(labials)系列, 舌端音(apicals, 혹은 齒音 dentals)系列·舌背音(dorsals, 혹은 軟口蓋音 velal)系列 등이 그것이다.[20]

20) Trubetzkoy: *Grundzüge der Phonologie*, p. 186. (李德浩譯에서는 喉音(Gutturalen)

각 系列은 동일한 辨別的 部位資質을 가진 모든 子音들의 總體를 가리키는 것이다. 가령 국어에서 예를 든다면, /ㅂ·ㅍ·ㅃ·ㅁ/ 등이 唇音系列이고, /ㄷ·ㅌ·ㄸ·ㄴ/ 등은 舌端音系列이며, /ㄱ·ㅋ·ㄲ·ㆁ/ 등은 舌背音系列이라 할 것이다. 이들 系列과 系列 間에는 異質的 多面 對立 關係가 있는 音素들로 되어 있다. 즉 /ㅂ/ : /ㄷ/ : /ㄱ/ 등의 對立 關係는 比較의 基盤인 共通資質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없으며, 連鎖의 다리가 없으므로 異質的인 것이다. 이러한 系列을 基本的 系列이라 부르고 있다. 이들 基本的 系列은 世界의 거의 모든 自然言語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하면 /p/·/t/·/k/와 같은 音素를 안가진 言語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三個 系列의 特性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으니, 입술과 혀끝과 혀등[舌背]은 口腔을 閉鎖하는 데 가장 적절히 움직일 수 있는 器官이기 때문이다.

言語에 따라서 基本 系列를 몇 개 더 가질 수도 있다. 가령 /s/ 같은 것도 汎世界的인 布分를 가지는 音素인데, 이것의 調音 部位는 舌端系列에 속할 수도 있고, 硬口蓋系列에 속할 수도 있다. 또 舌側音系列도 汎世界的 音素의 하나인데, 보통은 舌端系列에 속하지마는 특별한 系列을 따로 형성하는 言語들도 있다고 한다.

이밖에도 舌端系列과 舌背系列의 중간에 硬口蓋系列도 世界의 아주 많은 言語들에 나타나는 系列이고 喉頭에 따로 한 系列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系列이 基本 系列이 되려면 당해 言語에서 다른 系列과 多面的 對立을 이루어야 한다고 한다.

b) 障碍段階資質[21]

障碍를 만들어 내고 그 障碍를 극복하는 일이 子音의 本質을 형성

舌背音(Dorsalen), 舌尖音(Apikalen), 齒音(Dentalen), 唇音(Labialen) 등과 같이 되어 있다.

21) Trubetzkoy는 이를 第一度 障碍克服種類 資質이라 함. p.220.

한다고 한다. 母音에서 開口度가 序列을 만들어 냈던 것과 같이, 子音에서도 이 障碍의 정도에 따라, 그것들이 크게 세 種類로 분류될 수 있다.

口腔 通路의 間隙이 가장 작고, 따라서 最高의 障碍度(degrees of obstruction)를 가진 것이 閉鎖音(occlusiones)들이고, 間隙과 障碍가 그 다음 정도에 있는 것이 摩擦音(fricatives or spirants)이고, 다시 그 다음의 最小障碍와 最大 間隙에 있는 것이 響音(sonorants)들이 된다(響音은 母音의 基本性格인 無障碍性에 가까운 것이나, 이에 완전히 도달하지는 못한 것이다). 閉鎖音은 瞬間音(momentaneous)이고, 摩擦音과 響音은 持續音(continuants)이다. 다시 閉鎖音과 摩擦音을 합쳐서 響音에 대립시켜 障碍音(obstruents)이라 하기도 한다.

三個 障碍度에 의하여 分類된 이같은 子音들 間에는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5種의 兩面對立이 존재할 수 있다.

a) 響音 對 障碍音
b) 瞬間音 對 持續音
c) 閉鎖音 對 摩擦音
d) 摩擦音 對 響音
e) 閉鎖音 對 響音

이들 5種의 兩面對立은 모두가 論理的 有無對立인데, 이것이 既述한 基本 系列들에 비례적으로 나타나면, 동시에 比例對立이 되고, 이때에 5種의 相關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어떤 言語가 그 響音과 障碍音 間에 兩面的이고 比例的 對立을 가졌다면 이 言語에는 響音相關이 있게 되는데, 이때에 그 障碍音에 音聲的으로는 閉鎖音과 摩擦音을 가졌다고 해도, 音韻論的으로는 非關與的(irrelevant)임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閉鎖音과 摩擦音 間에는 한 쪽이 다른 한 쪽의 條件 變異音일 것을 前提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만약 어떤 言語가 그 瞬間音과 持續音 間에 兩面的이고 比例的인 對立을 가졌다면 이러한 言語에는 하나의 持續相關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摩擦音과 響音 間의 對立이 音韻論的으로 無効임을 전제하여야 할 것이다. 나머지 3種도 모두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하나의 自然言語에 실제로 이러한 相關들이 골고루 다 있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障碍段階資質에서 분류되는 閉鎖音·摩擦音·響音 間의 구별은 個別言語의 音素體系에 따라, 그 對立의 性格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 말한 것은 障碍를 이루는 間隙을 기준하여 閉鎖音·摩擦音·響音 등으로 나누었으니, 이는 母音에서 開口度를 기준하여 高母音·中間母音·低母音 등으로 구분하였던 것과 같은 이치였다.

c) 障碍 方法 資質

部位에서 오는 資質에 의하여 基本 三系列을 둘 수 있고 障碍度 基本 三段階(혹은 序列)에서 오는 資質에 의하여 三類(閉鎖音·摩擦音·響音)를 둘 수 있음은 이상에서 대략 살펴 보았다. 그러나 子音의 辨別的 資質에는 이밖에도 障碍를 이루는 방법에 의한 資質들을 더 추가할 수 있다.

동일한 障碍 部位와 동일한 障碍度에서 오는 資質이 同時的으로 結束되어 이루어지는 音素에 障碍 方法에서 오는 하나의 資質을 추가하면 다른 音素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同一 系列 同一 段階에 속하는 音素가 하나만이 아니라는 뜻과 같다. 가령 국어의 音素 /ㄱ·ㅋ·ㄲ·/, /ㅂ·ㅍ·ㅃ/, /ㄷ·ㅌ·ㄸ/ 등은 각각 同一 部位(系列)와 同一 障碍度 段階(序列)를 가지는 一群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일부는 障碍 方法에서 오는 資質들을 追加하여 가짐으로써 새

로 辨別的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障碍 方法은 이론적으로는 特定 系列이나 特定 段階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閉鎖音類·摩擦音類 등의 순서로 몰려 나타나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법에서 우는 資質을 추가하면 有無對立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相關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相關으로서 일반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a) 緊張相關(correlation of tense)

b) 有氣相關(correlation of aspiration)

c) 有聲相關(correlalion of voice)[22]

緊張相關이란 硬音과 軟音의 대립으로 이루어지는 相關이니, 障碍의 强度와 障碍克服 手段의 强度가 相應한다. 障碍가 입 등의 筋肉緊張으로 강화되면, 이를 극복하는 空氣의 壓力도 따라서 강화된다. 反對로 입 등의 肋肉이 弛緩되면 공기의 압력도 약화된다. 국어의 軟音과 硬音 間의 대립은 이같은 것에 속한다 하겠다.

有氣相關은 氣의 有無도 대립하는 一群의 子音들이니, 국어의 平音과 有氣音 間의 대립이 이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有聲相關은 聲의 有無로 대립하는 一群의 子音들이니 英語의 有聲子音과 無聲子音 間의 대립이 이같은 것에 해당한다.

d) 共鳴資質(resonance feature)

子音의 辨別的 資質로서 이상에서 論議한 것과 좀 다른 것 하나는 共鳴資質을 들 수 있다. 이 共鳴資質은 鼻子音(nasal consonant)과 口腔子音(oral consonant) 間의 대립에서만 나타난다. 환언하면 鼻子音들이 가지는 鼻腔共鳴을 하나의 資質로 보는 것이다.

鼻音은 보통 軟口蓋를 내려 口腔 通路를 막아버리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鼻腔에서는 調音이 될 수 없으므로, 그 調音은 閉鎖音 位置

---

22) Trubetzkoy는 이밖에도 强度·反復·解消·先氣 등을 두고 있다. p. 228.

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閉鎖音과 鼻音은 대개 兩面的 對立 關係에 있게 되고, 많은 言語에서는 比例的 對立을 이루기도 한다. 部位에서 오는 基本 三系列의 閉鎖音은 /p t k/라고 하면 /p : m, t : n, k : ŋ/ 등과 같은 比例的이며 有無的인 대립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鼻音相關으로 다룰 수도 있다.

e) 生成音韻論의 子音資質들[23]

子音의 記述을 위하여, 어떤 資質을 어떤 기준에서 어떤 성격으로 몇 개나 마련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고, 이들의 성격이 旣述한 바 종래의 방법에서 얼마나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anterior]란 資質을 두고 있으니, 이는 舌端이 齒莖(gum ridge)과 硬口蓋의 境界를 사이에 두고 그 앞 部分(즉, 齒莖에서부터 그 앞쪽)에서 空氣의 障碍를 일으켜 내는 소리는 [+anterior]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즉, 硬口蓋에서부터 뒤쪽) [−anterior]의 資質을 가지는 것이 된다. [p], [b], [f], [v], [m] 따위의 唇音과, [t], [d], [s], [z], [θ], [ð], [l], [n] 따위의 齒音은 [+anterior]의 資質을 가지게 되고, 硬口蓋音 [č], [š], [ǰ], [ž], [r] 등과, 軟口蓋音 [k], [g], [ŋ], 聲門音 [h] 등이 [−anterior]의 資質을 가지게 된다.

anterior(前方的)란 用語는 우리들에게는 좀 새로운 것일지 모르나, 지금까지 우리가 取해 온 종래의 用語들과 비교하면 대개 部位資質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位置에서 오는 部位資質로는 基本的인 三個를 두었으니, 唇, 舌端(혹은 齒) 혹은 舌背(혹은 口蓋) 등이 그것이고, 이밖에 舌背를 兩面하여 硬口蓋·軟口蓋로 가르거나 혹은 따로 聲門 등을 더 추가할 수 있었던 것들이다. 그러나 이같은 여러 개의 部位資質을 齒莖과 硬口蓋를 경계로 하여 前方的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兩分하고, 다시 그 積極項에 [+anterior]를 그 消極項에

23) 田相範 : 前揭書, pp. 53~54.

[—anterior]를 두고 있다. 여기서 [±]는 우리가 對立의 종류에서 갈라낸 일종의 有無對立이란 用語와 비슷하고, 따라서 相關이란 것과도 부분적으로 같아지는 것이나, 그런 것보다는 훨씬 包括的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종래의 區分이 3개 내지 5개이던 것이 2개로 줄어진 것으로 보여서 다 같은 [+anterior]에 속하는 唇音系列과 齒音系列의 구별이 어려운 듯이 보여지나, 그것은 염려할 것이 없으니, 다음에 설정되는 또 하나의 資質 [±coronal]과의 배합에서 이같은 것의 구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래 唇音·齒音과 같은 구별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다 작은 資質을 설정하여 이를 다 구별해 낼 수 있는 더욱 基本的인 資質로 보여지는 것이다.

[±coronal(舌頂的)]이란 혀의 앞 부분(즉, 舌尖〈tip of tongue〉과 舌端〈blade of tongue〉)이 中立位보다 높은 위치에서 空氣의 障碍를 일으켜 내는 소리들이 [+coronal]의 資質을 가지며, 그렇지 않으면 [—coronal]의 資質을 가지게 된다.

[± anterior]가 齒莖과 硬口蓋를 경계로 한 舌端의 前後 運動에서 오는 資質이라면, [± coronal]은 中立位를 기준한 舌端의 上下 運動에서 오는 資質인 것이다. 齒音(혹은 舌端音)과 硬口蓋音 등은 舌端이 적극적으로 올라가는 것이니 [+ coronal]이고, 唇音과 軟口蓋音들은 舌端의 積極的인 上昇을 가지지 못하니, [— coronal]의 資質을 가지게 된다.

이같은 資質設定은 종래의 部位資質이 唇과 舌面, 聲門 등으로 前後만을 기준하여 平面的으로 三分내지 五分하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舌端 하나의 運動을 前後·上下로 입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더욱 간편하고 정확해진 것으로 보인다. 모든 子音은 이들 두 資質 중의 積極(+)이거나 消極(—)이거나를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이 된다. [±anterior]를 갈라내는 前後를 垂直軸으로, [± coronal]을 갈라내는

上下를 水平軸으로 하여 이를 座標로 보이면 종래의 분류가 다 포함되니, 다음과 같다.

[+ant, +cor]=Dentals t s θ n d z ð l	[−ant, +cor]=Palatals č š ǰ ž r	[+cor]
		↑ (中立位) ↓
[+ant, −cor]=Labials p f m b v	[−ant, −cor]=Velars k ŋ g	[−cor]

[+ant]←—齒莖口蓋境界—→[−ant]

이는 종래의 觀點에서 본다면 일종의 子音相關體系圖와 비슷한 것이라 할 만하다. 다만 종래에는 音素가 먼저 있고 그 資質을 析出하여, 相關을 결정하였으나, 여기서는 資質이 먼저 있고 그들 間의 대립이 가능한 相關으로 나오는 듯하니, 같은 사실을 보는 觀點은 서로 判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母音들은 모두 [−ant, −cor]의 資質을 가진다.

종래의 調音方式에서 나오는 資質들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되고 있다.

[±voice]는 聲帶(vocal cords)의 振動 有無에 따라, 그 중의 하나를 資質로 가지게 된다. 이는 종래의 資質에서 다를 것이 없다. 母音·鼻音·流音 등은 대개 [+voice]의 資質을 가지게 된다.

[±continuant]는 허파에서 올라오는 空氣의 흐름이 口腔에서 완전히 閉鎖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cont]와 [−cont]의 資質을 가지게 된다. 破擦音(africate), 聲門破裂音(glottal stop), 鼻音 등은 [−cont]의 資質을 가지게 되니, 대개 종래의 瞬間音 등과 일치하고, 摩擦音(fricative)와 流音 등은 [+cont]를 가지게 되니, 대개 종래의 持續音 등과 일치하게 된다.

[±tense]는 口腔筋肉의 긴장 여부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는 혹 [±glottalized]로 보기도 하니, 이는 喉頭緊張의 有無 與否로 보는 것이다.24) 이에 대한 종래의 用語로는 다만 硬性이 있다.

[±aspirate]는 氣의 隨伴 與否로 결정되는 資質이니, 종래에도 두었던 資質이다.

[±nasal]은 목젖을 낮추어 공기가 코로 나오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鼻音과 그밖의 子音과를 구별하기 위한 資質이다. [n], [m], [ŋ]은 [+nas]이고, 그밖의 것은 [−nas]이다. 佛語의 鼻母音(nasalized vowel)처럼 母音이 [+nas]의 資質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strident]는 발음할 때에 시끄러운 雜音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별되는 資質이니, 대개 齒擦音(sibilant) [s], [z], [c], [č], [j], [š], [ž] 따위가 [+strident]의 資質을 가진다. 이는 종래의 障碍性 혹 噪音性 등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히 같다고는 할 수 없겠다.

f) 生成音韻論과 傳統的 音素論의 몇 가지 差異點

이상에서 辨別的 資質 등을 중심으로 하여 종래의 音素論과 生成音韻論 間의 부분적인 몇 가지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제 이들 兩者 間의 差異를 정리하여 本節을 끝내고자 한다.

첫째, 兩者가 다 같이 辨別的 資質이란 것을 두고 있으며, 그 중의 어떤 것은 서로 같은 것도 있다. 예를 들면 有聲性·有氣性·緊張性 같은 것은 그 資質의 내용까지도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들 辨別的 資質이 가지는 地位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인다. 종래의 音素論에서는 이들의 有無로 辨別的 對立을 이루는 單位는 音素일 뿐이고, 辨別的 資質 자체는 따로 單位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生成音韻論에서는 辨別的 資質 자체가 하나의 單位로 존재하며, 그것도 [±]와 같은 대립된 兩項으로 존재한다.

24) 이병건 : 현대한국어의 생성음운론 p. 63에는 [±tensenes] 대신 [±glottalized]를 두고 있다.

둘째, 종래의 音素論에서는 音素의 數 그들 間의 對立體系 등은 당해 個別言語에서 關與的(relevant)이냐 非關與的(irrelevant)이냐에 의하여 결정되던 것이나, 生成音韻論의 辨別的 資質은 모든 自然言語의 音素 記述에 충분한 것으로 설정하였고, 特定 個別言語를 전제로 설정된 것은 아니고 舌身의 前後·上下 運動 등에 一定 基準을 두고 있으니 근본적으로 音聲學的인 性質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 ]로 표시되고 있음은 주의할 만하다.

세째, 종래의 音素論에서는 音素나 그 內容의 記述 分析이 이른바 項目配列式(item and arrangement model 〈I A model〉)에 의하여 처리되었으나, 生成音韻論에서는 그같은 記述이 項目過程式(item and process model 〈I P model〉)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다. 이 두 model은 1954年 Hockett의 Two models of grammatical description, (Word, 10 pp. 210~31)에 의하여 一般化된 것이다. 言語의 構造는 構成 要素의 項目表와 그 結合 樣式을 밝히면 끝난다고 보는 것이 項目配列式이니, 가령 baked라는 英語 單語를 예로 들면, bake라는 形態素에 -ed라는 形態素가 이같은 順序로 결합된 것이고, 의미는 bake라는 動詞 意味에 「過去時」라는 의미가 결합되어 「特定行爲가 一定 時에 행하여진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項目過程式이란 같은 語形 baked가 bake라는 語形에서 접미사 첨가라는 過程을 거쳐서, 誘導된 한 語形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生成音韻論은 根底에 있는 音形表示(phonological representation)를 구체적인 音聲表示(phonetic representation)로 옮기기 위하여, 그 중간에 規則으로 정하여진 많은 과정이 있게 된다.

네째, 音素論에서는 音素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生成音韻論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다섯째, 音素論에서는 層位混合이 禁忌 事項이나, 生成音韻論에서

는 上層 情報의 導入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다.

끝으로 國語의 音素를 記述하는데 필요한 母音資質과 子音資質을 附記한다.

	p	pʰ	p'	t	tʰ	t'	č	čʰ	č'	k	kʰ	k'	s	s'	h	m	n	ŋ	l	w	y
vocalic	−	−	−	−	−	−	−	−	−	−	−	−	−	−	−	−	−	−	+	−	−
consonantal	+	+	+	+	+	+	+	+	+	+	+	+	+	+	−	+	+	+	+	−	−
nasal	−	−	−	−	−	−	−	−	−	−	−	−	−	−	−	+	+	+	−	−	−
continuant	−	−	−	−	−	−	−	−	−	−	−	−	+	+	+	−	−	−	+	+	+
strident	−	−	−	−	−	−	+	+	+	−	−	−	+	+	−	−	−	−	−	−	−
anterior	+	+	+	+	+	+	−	−	−	−	−	−	+	+	−	+	+	−	+	−	−
coronal	−	−	−	+	+	+	+	+	+	−	−	−	+	+	−	−	+	−	+	−	−
high	−	−	−	−	−	−	+	+	+	+	+	+	−	−	−	−	−	+	−	+	+
low	−	−	−	−	−	−	−	−	−	−	−	−	−	−	+	−	−	−	−	−	−
back	−	−	−	−	−	−	−	−	−	+	+	+	−	−	−	−	−	+	−	+	−
round	−	−	−	−	−	−	−	−	−	−	−	−	−	−	−	−	−	−	−	+	−
aspirated	−	+	−	−	+	−	−	+	−	−	+	−	−	−	−	−	−	−	−	−	−
glottal	−	−	+	−	−	+	−	−	+	−	−	+	−	+	−	−	−	−	−	−	−

	i	e	ö	æ	ɨ	ə	a	u	o
high	+	−	−	−	+	−	−	+	−
low	−	−	−	+	−	−	+	−	−
back	−	−	−	−	+	+	+	+	−
round	−	−	+	−	−	−	−	+	−

[圖表 2-2] 국어의 자음과 모음의 자질25)

25) 남기심 등 : 언어학개론 p.192와 193.

	ṗ	pʰ	p'	b	m	t	tʰ	t'	d	n	s	s'	z	č	čʰ	č'	k	kʰ	k'	g	ŋ	l	y	w	h
vocalic	−	−	−	−	−	−	−	−	−	−	−	−	−	−	−	−	−	−	−	−	−	+	−	−	−
consonantal	+	+	+	+	+	+	+	+	+	+	+	+	+	+	+	+	+	+	+	+	+	+	−	−	−
high	−	−	−	−	−	−	−	−	−	−	−	−	−	+	+	+	+	+	+	+	+	−	+	+	−
back	−	−	−	−	−	−	−	−	−	−	−	−	−	−	−	−	+	+	+	+	+	−	−	+	−
low	−	−	−	−	−	−	−	−	−	−	−	−	−	−	−	−	−	−	−	−	−	−	−	−	+
anterior	+	+	+	+	+	+	+	+	+	+	+	+	+	−	−	−	−	−	−	−	−	+	−	−	−
coronal	−	−	−	−	−	+	+	+	+	+	+	+	+	+	+	+	−	−	−	−	−	+	−	−	−
round	−	−	−	−	−	−	−	−	−	−	−	−	−	−	−	−	−	−	−	−	−	−	−	+	−
aspirate	−	+	−	−	−	−	+	−	−	−	−	−	−	−	+	−	−	+	−	−	−	−	−	−	−
glottalized	−	−	+	−	−	−	−	+	−	−	−	+	−	−	−	+	−	−	+	−	−	−	−	−	−
voice	−	−	−	+	+	−	−	−	+	+	−	−	+	−	−	−	−	−	−	+	+	+	+	+	−
continuant	−	−	−	−	−	−	−	−	−	−	+	+	+	−	−	−	−	−	−	−	−	+	+	+	+
nasal	−	−	−	−	+	−	−	−	−	+	−	−	−	−	−	−	−	−	−	−	+	−	−	−	−
strident	−	−	−	−	−	−	−	−	−	−	+	+	+	+	+	+	−	−	−	−	−	−	−	−	−

	ι	e	æ	ü	o	u	o	a	ɨ	ə
back	−	−	−	−	−	+	+	+	+	+
high	+	−	−	+	−	+	−	−	+	−
low	−	−	+	−	−	−	−	+	−	−
round	−	−	−	+	+	+	+	−	−	−

[圖表 2-3] 국어의 자음과 모음의 자질26)

26) 이병건 : 현대 한국어의 생성음운론 p.15와 p.68에서

2-5 音素의 配列

한 도막의 言表는 길거나 짧거나 간에 그 수행에 시간이 소요되고 시간의 진행에 따라, 그 要素들이 順次的으로 전개 배열되는 것이므로, 언제나 線條狀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線狀으로 나타난 이 한 도막의 言表는 일정한 層位의 一定한 基準에 따라 分割될 수 있는데, 이 때에 얻어진 最小의 도막이 單位 要素가 된다. 單位 要素들은 그들 相互間에 관계를 가지게 되니 이를 統合關係 혹은 連鎖關係라 한다 함은 앞서 言及한 바이다. 音素의 統合으로 나타나는 音素論의 單位에는, 抑揚에서 오는 抑揚段落(intonation group)이 있고, 또 숨을 쉬거나, 중간에 약간의 休止를 둘 수 있는 氣息段落(breath group)이 있고, 소노리티(鳴音度, sonority)의 屈曲에서 오는 音節이 있다. 이러한 段落이나 音節이 있게 되는 이유는, 한 도막의 言表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높이와 같은 緊張度와 같은 속도로는 수행될 수 없으니, 各 音素의 實現에 필요한 힘의 배정이 다르고, 거기에 더하여 자연스런 律動이 따르기 때문이다. 音節은 이러한 段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이니, 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2-5-1 音 節

音節은 그 앞 뒤에 休止를 놓을 수 있고 끊어서 발음할 수 있는 最少 音連鎖를 말한다. 音節을 音聲學的으로 설명한 것 중 유명한 것은 各 音聲의 鳴音度를 기준한 것이다.[26]

26) D. Jones: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Cambridge, 1957, pp. 23~24. Otto Jespersen: *Lehrbuch der Phonetik,* Leipzig und Berlin, 1932, p. 191.

(1) Jespersen 의 sonority 8 度

sonority 란 어떤 言語音이 동일한 强度·高低·長短으로 발음될 때의 最大 可聽距離의 相對値를 말한다. 發話者가 예사로 발음한 音聲이라도, 각 音聲에 따른 힘의 配定이 서로 다르며, 그에 따라 聽取者에게도 어떤 音聲은 좀 크게 들리고, 어떤 音聲은 좀 작게 들리는 것이다. 이러한 鳴音度는 각 音聲의 性質(quality)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대체로 母音은 子音보다 鳴音度가 크다. 鳴音度는 동일한 强度·동일한 高低·동일한 長短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힘을 주는 이른바 accent 나 prominance 와는 다른 것이다. 鳴音度는 대체로 開口度와 聲門 狀態에 相應하는 것이니, 開口度가 크면 鳴音度도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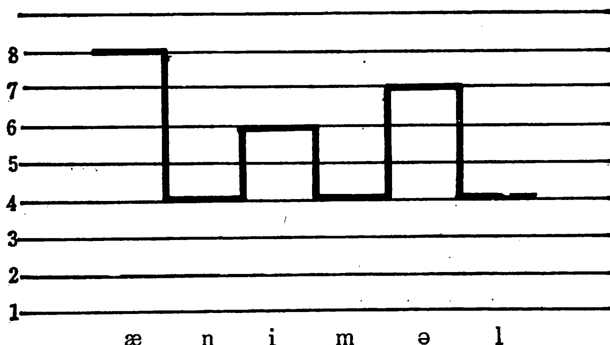
Jespersen 이 측정한 객관적 sonority 의 度數는 다음과 같이 8度로 되어 있다.

(1) 無聲 閉鎖音 : [p], [t], [k]
無聲 摩擦音 : [f], [s], [ç], [x]
(2) 有聲 閉鎖音 : [b], [d], [g]
(3) 有聲 摩擦音 : [v̌], [z], [ɣ]
(4) 有聲 鼻音 : [m], [n], [ŋ]
舌側音 : [l]
(5) 舌顫音 : [r]
(6) 閉母音 : [y], [u], [i]
(7) 半閉半開母音 : [Ø], [o], [e]
(8) 開母音 : [ɔ], [æ], [ɑ], [a]

線條狀으로 이어진 音素들은 각기 그 音素를 실현하는데 따른 音聲器官의 開閉, 緊張度, 呼氣壓 등에 따라 일정한 sonority 를 가지고 배열되는데, 이때에 크고 작은 sonority 가 봉우리와 골짜기를 이루면서 이어지게 되니, 音節은 sonority 가 상대적으로 큰 音의 數(즉, 봉

우리)만큼 있게 된다.

예컨대 英語의 animal[ænimǝl]은 [8-4-6-4-7-4]와 같은 것이 되고 [æ], [i], [ǝ] 셋이 봉우리를 이루므로 3音節語가 된다. 이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봉우리를 이루는 音 [æ],[i], [ǝ]를 成節音(syllabic sound)이라 하고, 골짜기에 오는 音들을 非成節音(non-syllabic sound)이라 한다. 母音들은 봉우리를 이루는 成節音이고, 子音들은 골짜기를 이루는 非成節音이 되니, 母音과 成節音, 子音과 非成節音은 여기서와 같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지마는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音이 成節音이냐 혹은 非成節音이냐 하는 것은 그 音聲 자체의 調音方式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先行 혹은 後行하는 音聲에 대한 鳴音度의 大小에서 결정되는(즉, 연속되는 音들의 상대적인 鳴音度로 決定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鳴音度가 最小인 소리는 成節音이 되기 어려울 것이고, 鳴音度가 最大인 소리는 非成節音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鳴音度가 중간 정도인 4, 5, 6度인 소리들은 경우에 따라 成節音일 수도 있고 非成節音일 수도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추리가 가능하고, 實例에서도 찾아지는 것이다. 가령 英語의 button

[bʌtn], bottle[bɔtl], rhythm[riðm] 등의 [n], [l], [m] 등은 animal의 경우와는 달리, 成節音이 되고, high[hai], how[hau], hay [hei] 등의 [i], [u]는 非成節音이 되는 것이다. 어떤 音이 成節音이 될 수도 있고, 非成節音이 될 수도 있으면, 이러한 音들은 子音으로서 鳴音度가 큰 것이고 母音으로서는 鳴音度가 작은 것임을 알 수 있다.

鳴音度에 의한 音節의 파악은, 어떤 音聲連鎖가 몇 개의 音節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분명한 제시를 주지마는 언제나 분명한 제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령 같은 鳴音度를 가진 音聲連鎖가 있어서 봉우리와 봉우리가 혹은 골짜기와 골짜기가 이어진 경우라든지, 봉우리와 골짜기가 차례로 이어진 경우라도 그 골짜기가 先行하는 봉우리에 붙인 것인지, 혹은 後續하는 봉우리에 붙인 것인지를 명시하여 주지는 않는다. 즉 音節의 境界를 명시하여 주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이 설명이 가진 첫번째 難點이다.

두번째로 두 개의 봉우리가 수평적으로 이어진 경우이니, 이 경우도 근본적으로는 첫번째의 경우와 같은 것이므로, 같은 性質의 難點이 따른다. 그것을 두 봉우리로 볼 것인가 혹은 한 봉우리로 볼 것인가를 판단하기 어렵다. 가령 佛語의 pays[pei]는 한 音節에 두 개의 成音節이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즉, [pei]는 그 鳴音度가 [1-6-7]이다), 두 音節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세번째의 어려움은 英語의 here[hiə]와 같은 例가 보여주고 있다. 鳴音度에 있어서는 [ə]가 [i]보다 큰데, 실제의 成節母音은 [ə]가 아니고 [i]이다. 音聲學的으로 결정된 객관적 鳴音度가 言衆이 가지고 있는 音韻論인 音節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鳴音度에 의한 音節 把握은 音聲學的인 觀點에만 치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sonority에 의한 音節 說明의 難點은 그 경계가 명시되지 않는 점에 있었다. 이에 대하여, Saussure와 Grammont 등도 주목할 방법

을 제시하고 있으니, 이들의 방법은 그 경계가 명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본 방법과 대조적이라 하겠다.

(2) Saussure의 aperture 7段階

Saussure의 音節은 內破(inplosif)로 끝나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한 音節은 內破로 끝나는 것이므로 다음 音節의 시작이 外破(explosif)일 때에만 音節의 境界가 분명한 것이 된다. 그러나 한 音節의 시작이 언제나 外破音이 아니라면 이 설명은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Saussure의 內破와 外破는 發音時의 숨의 通路의 廣狹(aperture)에 基準을 두고 그것을 다음과 같은 7단계로 나누고 있다.

0度 : [p], [b], [t], [d], [k], [g]
1度 : [f], [v], [θ], [ð], [s], [z], [ʃ], [z], [ç], [j], [x], [ɣ]
2度 : [m], [n], [ŋ]
3度 : [l], [r]
4度 : [i], [u], [y]
5度 : [e], [o], [œ]
6度 : [a]

여기서 [a]를 제외한 모든 音은 音聲連鎖에 나타날 때는, 前後音에 따라 內破이거나 外破이거나 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한 音이 開放(ourveture)을 향하여 이어져 있으면 外破이고, 閉鎖(fermeture)를 향하여 이어져 있으면 內破인 것이다. 그러나 6度의 aperture를 가진 [a]는 더 큰 開放으로는 이어질 수 없으니, 언제나 內破라는 結論이 나온다. 이때에 內破를 >표, 外破를 <표로 표시하면 音聲連鎖 appa는 $\overset{>><>}{\text{appa}}$와 같이 되고 >< 間에 音節의 境界가 놓이게 된다. 그리고 內破의 連續인 첫째 音節은 第1의 內破가 母音點(point vocalique), 즉 成節音의 位置가 된다. 다시 ardra라는 音聲連鎖는 $\overset{>><<>}{\text{ardra}}$[ar-dra]로, 혹은 $\overset{>>><>}{\text{ardra}}$[ard-ra]와 같이 되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설명할 수 있게 된다.

(3) Grammont의 漸强・漸弱

Saussure의 說을 祖述하여, 그것을 더욱 확실히 하고자 한 것이 Grammont이다. Saussure의 內破音, 外破音의 實現을, 實驗裝置에 의하여, 音聲器官의 緊張과 弛緩으로 바꿔서 소요되는 힘이 점진적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 결과, 內破(>)는 漸弱(decroissant), 外破(<)는 漸强(croissant)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音節과 成節音과 音節의 경계가 설명되니, 그 表示 方法은 Saussure의 것과 大同小異하나, Grammont는 aperture를 0度～7度까지의 8段階를 두어 좀 더 자세하게 되었다.

0度 : [p], [t], [k], [b], [d], [g]
1度 : [f], [v], [θ], [ð], [z], [ʃ], [ʒ], [ç], [j], [x], [r]
2度 : [m], [n], [ɲ], [ŋ]
3度 : [l], [r]
4度 : [j], [w], [w], [ɥ] 등 半母音
5度 : [i], [u], [y], [ĩ], [ũ], [ỹ] 및 이들 앞의 [h]
6度 : [e], [o], [ø], [ɛ], [ɔ], [œ] 등과 이들의 鼻母音
7度 : [a], [ɑ], [ã], [ɑ̃] 및 이들 앞의 [h][27]

Saussure의 音節이 內破音으로 끝났던 것과 같이 Grammont의 音節이 漸弱音으로 끝난다. 音節의 시작은 外破音인 것이 보통이나, 반드시 外破音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Grammont의 音節의 시작도 대체로 漸强音으로 시작되나, 반드시 漸强音으로만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체로 漸强音에서 시작하고 漸弱音으로 끝나는 소리의 결합체가 한 音節이라 할 수 있다. 가령 英語의 bottle과 grow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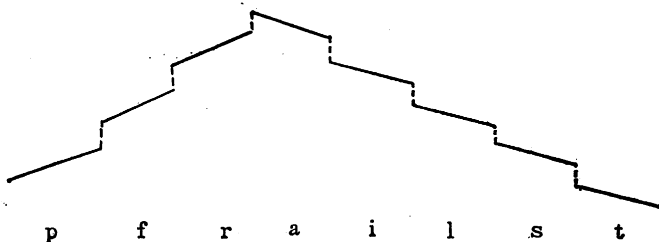
< > < >	< < > >
[b o t l]	[g r o u]
[/ \ / \]	[/ / \ \]

27) Grammont: *Traité de Phonetique*, pp. 97～104.

音節의 境界는 內破音과 外破音間(><)에 있었던 것과 같이 漸弱音과 漸强音間(╲╱)에 있게 된다.

첫번째로 나타나는 內破가 成節音 혹은 母音點이었던 것과 같이, 첫번째로 나타나는 漸弱音이 成節音 혹은 母音點이 된다.

音節, 音節의 境界, 成節音 등은 Saussure와 Grammont이 크게 다를 것이 없으나, Grammont은 音節을 두 개의 類型, 즉 音聲學的 音節(syllabe phonologique)과 音韻論的 音節(syllabe phonétique)로 구별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한 것이다. 前者를 理論的 音節 혹은 典型的 音節이라 할 수 있는데, 後者는 많지는 않으나 言語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특별한 音節 類型들인 것이다. Grammont의 典型的 音節로는 pfrailst와 같은 것이 있는데 이를 aperture까지 고려하여 圖示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母音點 a를 중심으로 前半部는 漸强의 連續이요 後半은 漸弱의 連續이다. 이와 같은 音節型은 그 發音이 쉽고 많은 言語에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의 言語에서는 언제나 이러한 音節型만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漸强部와 漸弱部에서 동일한 間隙의 音이 連續될 수도 있고, 때로는 漸强部에서 間隙이 큰 소리가 間隙이 작은 소리에 앞서는 일도 있고, 漸弱部에서도 간극이 큰 소리가 간극이 작은 소리에 뒤따

르는 일도 있다. 가령 英語의 stop [stɔp], six [siks] 같은 것은 이러한 例일 것이다.

(4) 成節强勢(syllabic stress)28)

隣接한 音보다 鳴音度가 작아서 보통의 경우는 非成節音으로 實現되는 音이 强勢를 받아서 成節音으로 되는 경우 이와 같은 强勢를 成節强勢라 한다. 가령 佛語의 pays[pei]와 英語의 pay[pei]는 다 같이 세 개의 單音으로 되어 있으나, pays는 두 音節이고, pay는 한 音節이 되는데, pays가 두 音節이 되는 것은 마지막 [i]에 成節 强勢가 놓이기 때문이다. pay의 發音時는 器官의 緊張 (tension)이 [e]에서 最高點에 達했다가 곧장 약해지고 마는데, 佛語 pays의 경우는 [e]에서 봉우리가 생기는 것은 pay와 다를 것이 없으나, 마지막의 [i]에서 다시 한 번 緊張이 加해지고 따라서 봉우리가 하나 더 있게 된다. pays에 나타나는 이같은 成節强勢는 言語에 따라서 辨別的 機能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의 成節强勢는 하나의 辨別的 資質이 된다. 中西部 美國 英語의 string과 stirring도 다 같이 [striŋ]으로 발음되는데, 兩者의 구별은 stirring의 [r]가 成節强勢를 가지는데 있다고 한다.

(5) 音聲學的 音節(phonetic syllable)과 音韻論的 音節(phonemic syllable)29)

K.L. Pike는 音聲的 音節과 音素的 音節을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Phonetic syllable: A unit of sound comprising one or more segments during which there is a single chest pulse and a single peak of sonority or prominance (p. 90a)

28) Bloomfield: *Language*, p. 122.

29) K.L. Pike : *Phonemics*, pp. 60~246.

Phonemic syllable: A unit of sound for a particular language such that one syllable represents a single unit of stress placement, or of tone placement, or of timing, or of vowel length, or of morpheme structure(in general, a phonemic syllable will be constituded of a single phonetic syllable with some rearragement of the grouping in accordance with structural pressures) (p. 65b, 90b)

音聲學的 音節과 音韻論的 音節의 차이는 音聲과 音素의 차이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한 번의 숨쉬기(a chest pulse)로 발음되고, 한 봉우리의 鳴音度가 있는, 하나 이상의 分節音을 가진 한 單位의 音이 音聲的인 音節이니, 이는 特定 個別言語에 관계 없는, 生理的·物理的 音節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音韻論的 音節이란, 音聲學的 音節을 特定 個別言語의 構造 壓力(structural pressure)에 의하여 再配定한 것이다. 이때의 構造 壓力이란 대체로 高低·長短·强弱과 같은 韻素體系와 形態素 構造 등을 指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音韻論的 音節은 音聲學的 音節보다 더 커질 수는 없는 것이며, 한 韻素의 運搬體는 한 音韻論的 音節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된다.

音韻論的 音節이 個別言語의 構造 壓力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國語와 外國語의 音節을 비교하여 보면 이해하기 쉽다. 가령 「散步」라는 말은 日本語에서 /sa-n-po/와 같이 세 音節이 되나, 국어에서 /sa:n-po/와 같이 두 音節이 된다. 이같은 차이는 첫째로 국어에서는 形態素의 構造가 CVC와 같은 音節로 끝날 수 있는데, 日本語는 CV로만 끝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국어에서는/n·m·ŋ/ 따위 鼻音이 독립된 音節을 이룰 수 없고, 따라서 하나의 韻素를 가질 수 없는데 日本語에서는 이것들이 /n/으로 통합되고 한 音節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韻素를 가질 수 있다는 構造上의 차이 때문이다. 英語의 stop은 한 音節인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두 音節의 /스

톱/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兩言語 間의 構造上의 차이 때문이다.

(6) 音節의 構造

한 音節은 몇 개의 單音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지금까지의 설명에 의하면, 鳴音度의 봉우리가 되는 成節音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成節音을 중심으로 그 前後에 어울리는 非成節音은 몇 개나 올 수 있는가? [pfrailst]의 경우를 보면 그 앞에 3개의 子音이 왔고, 그 뒤에는 보다 작은 간극의 한 母音과 또 세 개의 子音이 연결되어 있으며, 도합 8개의 單音으로 한 音節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많은 單音으로 이루어진 한 音節은 흔히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한 音節을 이루는 單音의 數는 特定 個別言語에 따라서 그 類型이 다를 수 있다. 즉 音韻論的 音節의 構造는 言語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우리 국어의 音節에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하면 한 母音으로 된 것과, 그 앞에 한 子音을 가진 것과, 그 뒤에 한 子音을 가진 것과 그 앞 뒤에 한 子音을 가진 것 등이 있고 그밖의 類型은 있기 어렵다.

다시 日本語의 音節은 母音만으로 된 것, 子音과 母音으로 된 것과 한 鼻子音 [n·m·ŋ]으로 된 것 등만이 있고 子音으로 끝난 音節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日本語는 우리 국어에 비하면 그 音節 構造가 단순하다 할 수 있다.

한 音節이 母音으로 끝나면 그러한 音節을 開音節(open syllable)이라 하고, 이에 대하여, 子音으로 끝난 音節을 閉音節(close syllalle) 이라 하기도 한다.

한 音節은 대개 成節音과 非成節音으로 되어 있는데, 成節音은 때로는 音節核(syllable nucleus)이라고 불리는 수가 있다. 그러나 音節核은 成節音과 반드시 一對一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音節核은

成節音과 그것에 직접한 半母音이나 響音 등을 포괄하여, 한 봉우리를 형성하면서, 한 音素처럼 대우받는 경우를 말하니, 이는 個別言語의 構造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 音節을 이루는 單音들을 다시 그 出現하는 위치에 따라 頭音(initial), 中間音(medial), 末音(final) 등으로 부르는 수가 있다. 音節의 첫머리에 오는 音을 音節 頭音이라 하고 音節의 마지막에 오는 音을 音節 末音이라 한다. 頭音은 대개 子音이고, 末音도 대개 子音이나, 開音節의 경우는 母音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頭音·中間音·末音 등은 한 音節의 어느 위치에 나타났느냐에 따른 명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30]

모든 音素는 音節 構成에 다 쓰이기는 하지마는 모든 音素가 모든 위치에 자유로이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音節 構成 즉 音素 結合에는 그 위치에 따른 얼마쯤의 制約이 있다. 이는 우리가 頭音 規則, 末音 規則이라는 말로써 지시하고 있던 사실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같은 結合上의 制約은 個別言語를 전제로 하여 쓰여지는 용어들이다.

현대 국어의 /ㄹ/, /ㆁ/은 頭音으로는 쓰이지 못하며, 이 위치에 올 수도 없다. 또 末音에는 /ㄱ/, /ㄷ/, /ㅂ/, /ㅇ/, /ㄴ/, /ㅁ/, /ㄹ/ 등만이 올 수 있고, 이밖의 子音이나 子音群은 올 수 없다. 다시 音節과 音節이 연결될 때에도 이러한 제약이 있으니, 국어의 最大 音節은 CVC 型으로 이것들이 겹친 경우, 즉 CVC+CVC에는 母音間에는 두 개의 子音만이 올 수 있고 그보다 많은 子音은 올 수 없게 됨을 알 수 있다. 또 이 위치에 나타나는 音의 同化 같은 것도 일종의 이같은 제약에서 오는 것이다.

---

30) 이들 名稱이 語詞를 基準으로 쓰여질 때에는 語頭音·語音中·語末音 등으로도 쓰인다.

(7) 連 接(juncture)

한 도막의 發話가 여러 音素나 音節로 이루어져 있을 때, 한 音素나 音節에서 다른 音素나 音節로 發音이 옮아갈 때에는 그 間에 境界(boundary)나 休止가 있게 되는데, 이 경계나 휴지의 위치를 連接이라 한다. 가령 [greidei]라는 一連의 音聲形式은 [greid+ei]로 끊느냐, 혹은 [grei+dei]로 끊느냐에 따라, 前者는 great A에 해당하고 後者 grey day와 같은 구별이 있게 되는데, 이때에 +가 놓인 자리와 같이 잠시 끊어지는 자리를 開放連接(open juncture)이라 하고, 그렇지 못한 연결을 緊密連接(close juncture)이라 한다. 開放連接은 뜻을 갈라내는 기능이 있으므로 혹 連接音素(juncture)라고 부르기도 한다. 音韻論에서는 開放連接이 중요하다. 우리 국어에 나타나는 開放連接의 例로는 "예수가 마귀를 쫓는다"와 "예수 가마귀를 쫓는다" 등이 있다.

(8) 韻律的 資質(prosodic feature)

말소리에 딸린 高低·長短·强弱 등을 韻律的 資質이라 한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꼭같은 高低·長短·强弱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좀 높게, 좀 길게, 좀 세게 발음하는 부분이 있고, 그 반대로 좀 낮게, 좀 짧게, 좀 약하게 발음하는 부분이 있다. 자연스런 말에는 이러한 資質이 分節音素 위에 얹혀서 實現되는 것으로써, 이러한 資質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言語는 아마 없을 것이다. 말이라면 어떠한 말이든지 이러한 高低·長短·强弱 등이 수반되는 것이지마는, 이러한 資質이 가지는 地位는 言語에 따라 각각 다르다. 어떤 말에서는 高低가 매우 중요한 資質이 되어서, 말의 뜻을 갈라내는 데 사용되고, 그것의 가치가 分節音과 거의 같은 혹은 그보다 중요한 지위를 가지는 데 대하여, 다른 말에서는 長短이 그러한 地位를 가지게 되는 수가 있고, 또 다른 말에서는 强弱이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韻律的

資質이 音素와 같은 辨別的 機能을 가질 때 우리는 그것들을 韻素(prosodeme)라고 부른다. 이같은 韻素는 依然히 分節音素 위에 얹혀서 實現되므로 혹 上加音素(suprasegmental phoneme) 혹은 第二次音素(secordary phoneme)라고도 한다.

韻律的 資質은 어떤 言語에나 다 있는 것이지마는 그것이 모두 辨別的인 機能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韻律的 資質이 辨別的인 機能을 가지지 못하면 剩餘的 資質(redundant feature)이 된다. 어떤 韻律的 資質이 辨別的이냐는 言語에 따라 다르다.

韻律的 資質은 語感의 表現에 쓰이는 수가 있다. 이러한 機能은 情緖的이라고도 한다. 「먼 훗날」, 「온 종일」에서 「먼」과 「온」은 특별히 길어지는 수가 있으나, 이때의 長短은 語意에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韻律的 資質은 또 文章의 끝에서 高低의 屈曲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統辭的 機能을 가지는 수가 있다. 이러한 資質을 때로는 句末連接(terminal juncture)이라 부르기도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도 語彙的 韻素와는 구별하는 것이다.

보통 韻素라고 할 적에는 그것이 語意의 分化에 쓰여지는 경우를 指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하 이러한 운율적 자질에 대하여 略述하여 두겠다.

▨ 長 短(length, duration)

현대 국어에는 音長만으로 語意가 分化되는 最小對立語가 있다.

/mal/(馬) 對 /ma:l/(語)
/nun/(目) 對 /nu:n/(雪)
/pal/(足) 對 /pa:l/(簾)

이들 最小對立語는 母音의 音長만으로 뜻을 갈라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母音의 音長은 辨別的 資質이다. 이와 같이 音長을 辨別

的 資質로 가지는 言語를 音長言語(chrone language)[30]라 하고 이러한 音長은 chroneme이라 하기도 한다.

辨別的 資質로서의 音長은 物理的 音長과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의 音長은 다른 音節의 音長과 비교되었을 때의 상대적인 音長인 것이다. 즉 類似한 環境에 있는 短母音과의 比較에서 상대적으로 길게 느껴지는 그러한 音長인 것이다.

이러한 音長은 또 같은 音의 중복인 重音(gemination)과 구별된다. 「雅樂」, 「漁業」, 「保溫」 등은 같은 音이 중복되어 있으나, 두 번에 끊어서 발음하는 것으로 중간에 休止 혹은 緊張의 下落이 있으므로 長音과는 다른 것이다.

音長의 單位를 mora라는 單位를 설정해서 音의 길이를 헤아리는 수가 있다. 보통 短母音의 音長을 한 mora로 하고 長母音을 두 mora로 센다. 그러나 長母音이 短母音의 꼭 2배 길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 高 低(pitch)

말을 할 때에 各 語詞의 音節을 그저 평탄하게 일정한 높이로만 말하기는 오히려 힘든 일이다. 어떤 말이라도 다소의 높낮이로 實現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어떤 말이라도 높낮이가 있는 것이기는 하지마는, 이 높낮이가 가지는 地位나 중요성은 어떤 言語나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어떤 한 言語에 나타나는 높낮이는 어떤 다른 言語에 나타나는 높낮이보다는 훨씬 중요한 價値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中國語의 聲調라는 것은 이러한 높낮이의 價値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라 할 만하다. 北京官話는 네 가지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四聲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北京官話의 모든 語詞는 그 音節마다 일정한 하나의 높이를 가진다. 즉 四聲 중의 一聲을 가지고

30) D. Jones: phoneme, p. 121.

實現된다. 그 四聲의 配列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다. 그것을 바꾸면 語詞의 뜻도 바뀌기 때문이다. 이러한 四聲의 價値는 分節音素의 價値보다 못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높낮이를 聲調(toneme)이라 하고 toneme을 가진 言語를 聲調言語(tone language)라 한다.

聲調言語의 聲調는 그 高低의 性質에 따라 水平體系(register system)과 起伏體系(contour system)으로 兩大別된다. 水平體系의 聲調는 그 實現의 시작과 끝이 昇降이 없어 水平 狀態로 되어 있음에서 水平體系라 하고, 起伏體系는 한 聲調의 처음과 끝이 하나의 昇降 狀態로 되어 있음에서 起伏體系라 한다.

15世紀 國語와 慶尙道 方言 혹은 咸鏡道 方言에는 聲調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령 慶尙道 方言에는 高低만으로 辨別되는 다음과 같은 最小對立語가 存在하니 이 方言의 聲調의 存在를 의심없게 한다.

말(馬) 對 말(斗)
초(醉) 對 초(燭)
기(旗) 對 기(耳)
피(稷) 對 피(血)

등은 모두 高調 對 低調로 그 語意가 구별된다.

聲調言語는 또 진정한 聲調言語와 語詞聲調言語로 가르는 수가 있는데, 진정한 聲調言語에서는 聲調와 音節 間에 一對一의 對應이 있고, 그 聲調의 價値가 如一하게 유지되는 것인데, 語詞聲調(word-pitch)는 한 語詞의 일정 위치에서만 聲調의 價値가 유지되고, 또 다른 일정한 위치에서는 그 價値가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를 지시하는 것이다. 慶尙道 方言이나, 中世國語는 모든 音節의 聲調가 다 유효한 것은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語詞聲調이거나 그것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31]

31) 鄭然粲: "眞正한 聲調言語와 語詞聲調言語", 國語聲調에 관한 硏究(一潮閣, 1976).

▨ 强 弱(stress)

語詞의 뜻을 分化하는데, 强弱이 辨別的 機能으로 가지는 言語가 있다. 이러한 言語를 强弱言語(stress language)라 하고, 이러한 强弱을 stroneme이라 하기도 한다.[32)]

强弱言語의 例로는 英語·獨語 등이 있으며, 이들 外國語를 배울 적에 보통 accent라고 하는 것이 이것인데, 이들 accent는 그 놓이는 자리에 따라 單語의 뜻을 分化하기도 한다. 英語의 例를 한 둘 보이겠다.

increase	[ínkri:s](名詞)	對	[in'kri:s](動詞)
import	[ímpo:t](名詞)	對	[im'po:t](動詞)

32) D. Jones, The phoneme, pp. 151～2.

제 3 장 音素 各論

3-1 子音 音素 體系…128
3-2 母音 音素 體系…129
3-3 國語 音素의 特徵과 發達…130

제 3 장 音素 各論

現代 國語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이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모두 현재에 만들어낸 말은 아니다. 現代 國語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를 알고 나면, 自然 그것의 옛날에 대한 것도 다소 알고 싶어질 것이다. 이같은 慾望은 音韻史로 드러나는 第一步라고 할 수 있다.

現代 國語라고 하면,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標準語가 되겠지마는, 現代 國語에는 여러 가지로 조금씩 다른 방언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標準語이든 방언이든 時間과 空間의 一點을 劃하여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이때에 공간적 차이는 때로 시간적인 차이로 환산될 수도 있고, 그 逆도 가능하다.

우리가 쓰고 있는 音素 하나 하나에 대하여 지금까지 論議한 바의 理論을 적용하여 그들의 現在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本章의 첫째 목적이요, 가능하면 그들의 역사적 발달에 대하여도 國語音韻論 내지 音韻史에서 밝혀졌거나, 밝혀져야 할 몇 몇을 指摘하여, 現在의 모습을 더욱 깊이 理解하는데 多少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그 둘째 목적이다. 그러므로 本書에서는 따로 音韻史를 세우지 않는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音素의 수는 상식적으로는 字母의 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여도 좋을 것이다. 우리가 쓰고 있는 字母로써 못 적을 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정확하게 말하고자 하면 音素의 數와 字母의 數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子音

音素로서 독립된 字母를 가지고 있는 것은 ㄱ부터 ㅎ까지로 모두 19개가 쓰이고 있으나, 여기에 따로 독립된 字母를 보여 주지 않으나, 音素로서는 엄연한 존재로 분석되는 半母音 2개 /w·j/와 하나의 juncture phoneme /#/과 音長音素 /:/를 가산하면 도합 23개가 되는데, 이것이 대체로 現代國語의 音素의 數라고 할 것이다. 이들 23개의 子音 音素를 체계적으로 벌려 놓으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3-1 子音 音素 體系

(1) 閉鎖音 體系(帶擦音도 포함)

ㅂ(p) ㄷ(t) ㄱ(k) ㅈ(c) (平音·軟音)

ㅍ(pᶜ) ㅌ(tᶜ) ㅋ(kᶜ) ㅊ(cᶜ) (有氣音)

ㅃ(pˀ) ㄸ(tˀ) ㄲ(kˀ) ㅉ(cˀ) (硬音)

(2) 摩擦音 體系

ㅅ(s) (軟音)

ㅆ(sˀ) (硬音)

(3) 共鳴音 體系

ㅁ(m) ㄴ(n) ㆁ(ŋ) (鼻音)

ㄹ(r) (口腔音)

(4) 喉頭音 體系

ㅎ (h)

(5) 半母音 體系

w · j :[1]

1) 이 分類 配列은 語文學硏究會編 國語學槪論에 있는 金完鎭 敎授의 것을 참고하였다. 저기서는 모두 羅馬字로 표기되었던 것을 여기서는 國語字母에 있는 것은 그것으로 바꾸었다.

3-2 母音 音素 體系

現代 國語의 母音의 數도 대체로 우리가 쓰고 있는 字母의 數와 거의 같은 것이나, 좀 정확하게는 그것보다 다소 많아질 수 있으며, 이는 또 이른바 世代差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가장 많은 수의 母音을 쓰는 사람을 기준하면 이른바 최대 체계가 되니, 單母音으로 10개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에서 두 개가 적은 8母音體系를 쓰는 사람도 있다. 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單母音 體系

이(i)	(위(y))	으(ɨ)	우(u)	(閉母音)
에(e)	(외(ø))	어(ə)	오(o)	(半閉母音)
애(ɛ)		아(a)		(開母音)
前舌		後舌		

괄호 안에 표시된 두 개를 單母音으로 가진 사람은 10母音體系를 쓰는 것이고 그것을 重母音으로 가진 사람은 8母音體系를 쓰는 것이 된다.

(2) 重母音 體系

重母音은 半母音/j·w/와 앞에 보인 單母音이 결합되어 한 音素처럼 쓰여지는 것들이다. 이때에 音節 主音이 뒤에 있으면 「上昇的 二重母音」(rising diphthong)이라 하고, 그것이 앞에 있으면 「下降的 二重母音」(falling diphthong)이라 한다. 이를 分類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上昇的 二重母音(半母音+單母音)

j+單母音

—	—	—	유(ju)	(閉母音)

예(je) 여(jə) 요(jo) (半閉母音)

얘(jɛ) 야(ja) (開母音)

w+單母音

위(wi) (閉母音)

웨(we) 워(wə) (半閉母音)

왜(wɛ) 와(wa) (開母音)

(4) 下降的 二重母音(單母音+半母音)

의(ij)

이 중에서 「위, 웨, 외」 등으로 표시되는 것은 사람에 따라 二重母音으로도 單母音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정확하게 한 音素로만 고집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이들의 各論에서 좀더 언급될 것이다.

國語의 音素를 대체로 以上과 같은 것으로 잡으면, 子音 音素는 23개쯤이고 母音 音素는 單母音 10개(혹은 8개)이고 二重母音 10개(혹은 12개)쯤 된다고 생각하여도 좋을 듯하다.

3-3 各 音素의 特徵과 發達

위에서 旣述한 이들 音素, 하나 하나에 대하여, 그들의 音素로서의 특징과 다른 音素와의 關係, 혹은 그 發達 등을 上示한 바 순서에 따라 간략히 알아 보기로 한다.

(1) /ㅂ(p)/

音素 /ㅂ/의 辨別的 資質은 無氣·軟音·通口·兩唇·閉鎖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無氣音은 平音이라고도 하는데 ㅂ은 ㅍ과의 대립에서

無氣 對 有氣에 의지하고 있으니, 無氣가 하나의 資質이 된다. 다시 ㅃ과의 대립에서는 軟音 對 硬音에 의지하니, 軟音性이 하나의 資質이다. 通口性은 通鼻性과의 對立을 드러내는 것이니, ㅁ와의 對立이 그것이고, 兩唇性은 기타의 子音들, 이를테면 ㄱ이나 ㄷ 등과의 대립에서 그 發音 部位가 兩唇에 있음을 드러내니, 그것이 하나의 資質이고, 閉鎖性은 調音方式에서 기타의 子音들과의 辨別을 가져온다. 근래의 生成音韻論에서 보여 주는 —vocalic, +consonantal, +anterior, —coronal, —aspirated, —glottalized, —voice, —continuant, —nasal, —strident 등과 같은 방식은 이미 앞서 보인 바 一覽表를 참조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니, 이후 다른 音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訓民正音에서는 唇音全淸으로 표시되어 있다.

音素 /ㅂ/은 그 出現 位置에 따라 이른바 隨意的 變異音(free variation or fluctuation)이나, 條件變異音(allophone)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봄 바람이 불어온다」에서와 같은 語頭 位置에서의 實現은 매우 生産的이며,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니, 音素 /ㅂ/의 정상적인 實現 位置라 할 수 있고, 「나비·제비·곰보」 등의 ㅂ은 [b]와 같이 實現되니, 有聲 環境에서의 /p/의 有聲化로 因한 하나의 變異音이며, 「갈비·울보·매부」 등의 ㅂ은 때로는 그 閉鎖가 不完全하여 [β]와 같은 自由變異音을 가질 수도 있으니, 語意에는 變化를 주지 못하며, 「집·굽·밥」 등의 받침으로 쓰인 ㅂ은 內破音의 [p˺]로 實現되어 역시 ㅂ의 한 條件變異音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같은 위치에서는 音素 /ㅍ/과 中和한다함은 이미 앞서 언급한 바이다.

「밥만(飯), 합명(合名), 잡는(執)」 등에서 「ㅂ+ㅁ·ㄴ(ㆁ)→ ㅁ+ㅁ·ㄴ(ㆁ)」 등과 같이 되니 이른바 子音接變이라는 것으로, 同化作用의 한 가지다. 이는 一種의 子音 結合上의 제한이라고도 할 수 있는

데 이같은 配列의 逆順은 아무런 支障이 없다. 가령 「강변(江邊)・남방(南方)・근방(近方)」 등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2)]

音素 /ㅂ/은 形態論的인 制約에서 오는 일부의 변화도 보여준다. 가령,

「잡고・잡아・잡으면・잡아라」와 「돕고・도와・도우면・도와라」와 같은 例에서, 같은 받침으로 쓰인 ㅂ은 그 音韻論的 條件은 同一하나. 前者의 末音은 제대로 實現된다고 볼 수 있는데 반하여, 後者의 末音은 제대로 實現되지 않고 w化한다. 이른바, ㅂ變則用言이라는 것에 해당하는데, 이때에 나타나는 變化는 멀리 中世國語의 唇輕音 ㅸ의 일부에까지 소급된다. 이같은 變化에 대한 설명은 國語音韻史에 있어서도 難題의 하나이며, 現代 國語의 音韻論에서도 역시 難題의 하나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어 있으나, 아직도 未解決의 狀態에 있다고 보는 것이 穩當한 態度일 것이다.

音素 /ㅂ/이 가진 또 하나의 변화 역시 音韻史的인 것이다. 가령 「붑(鼓)・거붑(龜)・브섭(厨)」 등의 末音 ㅂ이 ㄱ으로 변화한 사실이다. 이같은 사실은 종래에 異化作用의 하나로 잘 알려진 例들이다.[3)] 이러한 문제는 혹 方言 調査 등에서 더욱 보완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ㅍ(pʻ)/

音素 /ㅍ/의 辨別的 資質은 有氣・軟音・通口・兩唇・閉鎖性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ㅍ을 軟音으로 보는데 대하여는 異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資質의 有無(±)를 가지고 辨別資質을 명시하고자 하는 근래의 경향을 따른다면 非硬音, 즉 軟音으로 보는 것도 무방할 듯하다. 뿐만 아니라 ㅂ과 ㅍ과의 대립을 相關으로 보는데, 그 전제

2) 李秉根 : 音韻現象에 있어서의 制約, 國語學硏究選書 8, 塔出版社.
3) 李崇寧 : 朝鮮語 異化作用에 對하여(震檀學報 第11號)

가 되는 兩面·有無·比例對立 등에서, ㅃ이 끼어들어 兩面對立의 어려움을 주고 있었던 것인데, 여기에 ㅍ에도 軟音資質을 주면 그 共通基盤이 더욱 확실해지는 利點이 있으며, 따라서 相關 成立의 條件이 충족됨을 부언한다. 또 生成音韻論의 방식으로 資質을 보이면 위에 이미 보인바, ㅂ의 資質 등에서, ㅂ이 −aspirated이던 것에서, ㅍ은 +aspirated로 되는 것이 다를 뿐이다. 訓民正音에서는 唇音次淸으로 표시되어 있다.

音素 /ㅍ/은 그 出現 環境에 따라 變異音으로 나타날 수 있다.

「팔(腕)·풀(草)·피(血)」등에서처럼 語頭 位置에서는 아무런 制約을 받지 않는다. 「발(足)·불(火)·비(雨)」 등과 같은 最小對立語도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 이 音素의 이 위치에서 辨別 機能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분명한 것이다.

「짚이(藁)·앞을(前)·늪에(沼)」등에서와 같이 語中 位置에서의 出現도 역시 자유스럽고, 「입이 對 잎이, 집을 對 짚을, 소복(素服) 對 소폭(小幅)」 등에서와 같은 最小對立語도 허다하다. 다만 ㅂ은 이 위치의 有聲 環境에서 [b]으로 有聲音化하는데 ㅍ은 그러한 일이 없다.

「잎(葉)·잎도·짚」등에서와 같이 語末이나, 閉鎖音 앞에서는 內破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입·입도·집」 등과의 辨別이 드러나지 아니한다. 즉 이같은 환경에서는 ㅂ이나 ㅍ이나 다같이 [p˺]로 實現되는 것이니 이를 ㅂ과 ㅍ의 中和라 하기도 하고 혹은 重複分布라 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中和現象이 國語音韻史의 어느 시기에 등장하였던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직 확고한 결론에 이르지는 아니한 듯하나 古代 國語의 단계에서는 현재보다는 이같은 內破化가 미약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 할 것이다.[4)]

現代 國語에 있어서의 音素 ㅍ은, 音素 ㅂ 등과 비교하였을 때에, 그

---

4) 李基文 : 國語音韻史研究, p.95.

獨立 音素로서의 자격에 아무런 손색이 없다. 그렇다면, 國語音韻史의 觀點에서 이 두 音素를 비교하였을 때에도 의연히 그러한가? 즉 이들 두 音素의 發達이 대등한 자격으로 동일 시기에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같은 의문에 대한 현재까지 이루어진 國語音韻史 研究의 대답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와 있다. 첫째 現代 國語에서 有氣音으로 시작되는 어휘의 數가 平音으로 시작되는 어휘의 數보다 훨씬 적다. 만약 ㅂ과 ㅍ 등이 동일 시기에 대등한 資格으로 등장한 두 音素였다면, 어찌하여 이같은 일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이같은 사실은 ㅍ의 발달이 ㅂ의 그것에서 늦었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現代 國語에서 ㅍ으로 시작되는 몇 개의 어휘는 中世 後期에서는 ㅂ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볼(臂)」「블(糊)」·「비마ᄌᆞ」등은 지금은「팔·풀·피마주」등으로 된 것이다. 충분한 例라고는 하기 어려우나, 첫째의 이유와 相互 補充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다만 ㅂ·ㅍ 間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ㄱ·ㅋ, ㄷ·ㅌ, ㅈ·ㅊ 등에도 동일한 경향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ㅍ의 발달이 ㅂ에 뒤지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다만 뒤졌다면 얼마쯤 뒤졌으며, 그 확실한 등장 시기가 音韻史의 어느 시기에 있었겠는가만 남아 있는 문제인 것이다. 이 시기의 문제는 현재로서는 엇갈린 두 견해가 있으나, 대체로 古代 國語, 新羅語에까지 소급하는 것으로 보는 見解가 유력한 것이 아닌가 한다.

音素 /ㅍ/은 鼻子音 ㄴ·ㅁ·(ㆁ) 앞에서 鼻音化한다. 「잎만·갚는(報)」등은「짐만·감는」등과 같이 實現되니, 이른바 子音接變이다. 그러나 鼻子音이 先行하였을 때에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한다. 「강풍(强風)·은파(銀波)·음파(音波)」등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것이다.

音素 /ㅍ/은 때로는「ㅂ+ㅎ」혹은「ㅎ+ㅂ」과 同價로 인정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再音素化(rephonemicization)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대개 形態論的 記述의 簡便을 위하여 취하여지는 것이다. 「입헌(立憲)·입하(入荷)」등은 「이편·이파」와 같이 實現되는데, 이때의 ㅍ은 ㅂ+ㅎ과 같은 再音素化로 해석하면 설명이 쉬우나, 「ㅍ」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이라면 說明이 어렵게 될 것이다.[5]

用言의 語幹 末音으로 나타나는 ㅍ 등도, 현재로서는 아무런 의심이 없어 보이나, 音素 /ㅍ/이 보여 주는 여러 가지 사실에 근거하면 필경 音韻史의 어느 시기에 「ㅂ+ㅎ」과 같은 과정을 겪고서 발달한 것일 수도 있어 보이니 그러한 可能性은 이미 어느 정도 밝혀진 사실이다.[6]

(3) /ㅃ(p?)/

音素 /ㅃ/의 辨別的 資質은 無氣·硬音·通口·兩唇·閉鎖性 등을 들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硬音性은 이 音素가 ㅂ·ㅍ 등에서 辨別되는 하나의 徵表가 된다. 生成音韻論의 資質 表示에서도, +glottalized(or, +tenseness)를 따로 가지니, 이는 결국 硬性이라 한 것과 유사한 性質의 것이다. 訓民正音에서는 唇音全濁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것이 지금의 ㅃ과 全等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音素 /ㅃ/은 語頭에서 자유스럽다. 「뿔(角)·뽕(桑)·뼈(骨)」등은 「불(火)·벼(稻)」등 最小對立語를 가지며, 語意를 分化하는 辨別的 機能을 드러낸다. 「고삐(紂)·기쁨(喜)」등은 「고비(蕨)·깊음」등 最小對立語를 가지고 있으니 語中에서도 辨別的으로 대립한다. 다만 音素 /ㅃ/은 語末에는 쓰이지 않는다.

音素 /ㅃ/은 지금까지 보아온 ㅂ·ㅍ에 비하면 非生産的이라 할 수

5) 金完鎭 : *op. cit*, p.100.
6) 安秉禧 : 十五世紀 國語의 活用語幹에 對한 形態論的研究.

있다. 이는 이 音素가 現代 國語에서는 ㅂ·ㅍ 등과 대등한 자격으로 쓰이고 있지마는 그 역사적인 발달이 ㅂ·ㅍ 등과 동일한 시기의 출발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證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미 ㅍ의 발달이 ㅂ에 비하여 뒤진다고 보는 근거로서 이같은 사실을 依支한 바 있었다. ㅃ의 쓰임은 ㅍ보다도 더욱 그 범위와 頻度가 처지는 것이니, ㅃ의 發達은 ㅍ보다도 오히려 뒤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末音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重視되어야 할 것이다.

ㅃ뿐만 아니라 된소리의 발달은 國語音韻史에서 흥미있는 課題의 하나로 廣範하고도 자세한 硏究가 이미 발표되어 있다.[7] 現代 國語의 된소리의 일부는 後期 中世國語의 소위 ㅅ系 合用並書로 소급되고, 그 다른 일부는 소위 ㅂ系 合用並書로 表記된 語頭 子音群에서 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音素 /ㅃ/의 발달도 다른 된소리의 발달과 같이 이러한 背後를 가진다. 그러나 된소리의 발달에 대한 현재까지의 硏究는 아직도 엇갈린 주장이 있는 것 같다.

音素 /ㅃ/이 만약 語末이나 音節末에 나타난다고 하면 역시 內破音으로 實現되어, ㅂ·ㅍ 등과 같은 中和를 보일 것이며, 子音 接變과 같은 경우도 역시 ㅂ·ㅍ 등과 같은 步調를 취할 것이 豫見된다. 이는 音素 /ㅃ/도, 構造的 壓力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語中에 나타나는 일부의 音素 /ㅃ/은 重複 子音으로 再音素化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가령 「십분(十分)·합법(合法)」 등은 「시뿐·하뻡·십뿐·합뻡」 등과 구별이 없으니, ㅂ+ㅂ이 때로는 ㅃ과 같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4)/ㅁ(m)

音素 /ㅁ/의 辨別的 資質은 兩唇·通鼻性·有聲性 등을 들 수 있을

7) 李基文 : *op. cit*, pp. 47등.

것이다. 이들 중에서 通鼻性에 의하여, ㅂ·ㅍ·ㅃ 등과 辨別된다. 生成音韻論의 資質 表示를 보면 다른 것은 ㅂ 등에서 다 같고 다만 +nasal, +voice 등을 달리 하고 있다. 有聲性은 國語音素로서 따로 지적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訓民正音에서는 唇音不淸不濁으로 표시되어 있다.

音素 /ㅁ/의 出現 位置는 매우 자연스럽고 다른 音素와의 對立도 분명하여 특별히 지적할 것이 없어 보인다.

「물 對 불, 하마 對 하나, 숨 對 술」 등 最小對立語가 어느 위치에서나 충분히 찾아진다.

이 音素의 역사적인 발달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다.

以上은 兩唇性을 공통된 部位資質로 가지는 네 개의 音素에 대하여 그들의 特徵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계속하여 齒莖 部位資質을 공통으로 가지는 音素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5) /ㄷ(t)/

音素 /ㄷ/의 辨別的 資質은 無氣·軟音·通口·齒莖(혹은 舌端)·閉鎖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齒莖 部位를 資質로 가지는 一然의 子音系列에는 ㄷ·ㅌ·ㄸ·ㄴ 등이 있는데 이는 旣述한 바 兩唇音系列과 並行된 關係를 보인다. ㄷ과 ㅌ의 對立은 氣의 有無에 의지하고, ㄷ과 ㄸ의 對立은 軟性과 硬性, 즉 緊張性의 有無에 의지하고 있다. 通口性은 같은 系列에 있는 ㄴ의 通鼻性과의 對立을 보여 주는 것이고 齒莖性은 이 系列이 다른 系列에서 구별되는 資質이다. 閉鎖性은 障碍 克服 資質의 하나다.

生成音韻論이 보여 주는 資質 表示에 의하면 −vocalic, +consonantal, +anterior, +coronal, −aspirate, −glottalized, −voice, −continuant, −nasal, −strident 등과 같이 되어 있다. 訓民正音에

서는 舌音全淸으로 표시되어 있다.

音素 /ㄷ/은 그 出現 位置에 따라 [t·d·t'] 등과 같은 變異音을 가지는데, 이 중에서 [t]를 대표로 삼아, /t/와 같이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t]는 語頭에서 가장 분명히 그리고 생산적으로 나타난다. 「달(月)·덜(減)·돌(石)·둘(二)·들(野)」 등의 ㄷ은 [t]로 實現되고 「가득(滿)·버들(柳)·언덕(堤)」 등의 ㄷ은 [d]로 實現되고, 「곧(即)·받고(受)·받지」 등의 ㄷ은 [t']로 實現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 變異音들의 出現 位置, 즉 分布는 相補的이며 語意 分化에 關係가 없으므로 한 音素 /ㄷ/으로 묶어진다 함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音素 /ㄷ/과 다른 音素와의 對立은 最小對立語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쉽게 확인된다. 가령 「달(月) 對 탈(假面), 도끼(斧) 對 토끼(兎), 담(墻) 對 탐(貪), 달(月) 對 딸(女), 담(墻) 對 땀(汗), 담 對 잠(睡)」 등.

語中 位置에서의 音素 /ㄷ/도 대체로 그 辨別的 機能을 잘 보여 준다. 가령 「자두(紫桃) 對 자루(柄), 공동(共同) 對 공통(共通), 전동(電動) 對 전통(傳統)」 등. 그러나 無聲子音에 잇달아 나올 적에는 ㄸ과의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령 「합동(合同)·선달·극동(極東)」 등은 「합똥·선딸·극똥」 등으로도 實現되는 듯하니, 이 경우 先行 音節 末音의 內破가 그에 잇따른 ㄷ에 緊張을 加重하는 效果가 있는 듯하고, 그리하여 硬音으로 實現된 경우의 語形에, 따로 衝突할 語形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경향은 다만 ㄷ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앞서 설명한 바, 音素 /ㅂ/의 경우나, 아직 설명을 아니한 音素 /ㄱ/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音素 /ㄷ/은 音節末에서는 [t']로 實現되는데, 이 위치에서는 ㅌ·ㄸ 등도 또한 [t']로 實現되어 서로 中和되어, 辨別되지 않는다. 이같은

사실은 兩唇音 系列에서도 있었던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위치에서의 中和는 그 범위가 매우 넓은 것이 兩唇音 系列의 경우와 좀 다르다. 가령 잘 알려진 例로 「낟・낱」등이 [nat˺]으로 되어 中和할 뿐 아니라 「낫・낮・낯」 등도 이들과 中和하여, 구별이 없다. 이같은 現象은 이들 音素의 이 위치에서 內破化로 因한 것인데 이같은 內破化는 역사적인 발달을 背後에 감추고 있다함은 이미 언급한 바이다.

音素 /ㄷ/은 ㄴ・ㅁ・(ㆁ)등 鼻音 앞에서 ㄴ으로 實現된다. 이는 兩唇閉鎖音들의 경우에도 類似한 現象이 있었으니, 子音接變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가령 「듣는・묻는」 등은 「든는・문는」과 같아진다. ㅁ・ㆁ앞에서의 例는 찾아지지 않으나, 같은 결과에 이를 것은 의심 없어 보인다. 그러나 連結의 順序가 反對일 경우에는 제대로 발음되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가령 「근대(近代)・검도(劍道)・궁도(弓道)」 등은 변동이 없다.

ㄷ變則用言의 語幹末音 ㄷ이 ㄹ로 교체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ㄷ正則用言이 아무런 교체를 보여 주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므로 ㄷ 變則 語幹 末音의 交替는 音韻論的 制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를 形態論的으로 제약된 교체라고 불러왔다. 그러나 末音 ㄷ∼ㄹ의 교체는 後續語尾가 子音으로 시작되느냐 혹은 母音으로 시작되느냐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므로 그것이 하나의 條件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교체는 音韻論的 制約과 形態論的 制約이 二重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音韻論的인 制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變則 語幹 末音의 ㄷ∼ㄹ과 같은 交替가 形態論的 制約 아래 있다는 말만으로는 ㄷ∼ㄹ 交替 現象을 설명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 같은 末音을 가지면서 하나는 교체를 보여 주고 하나는 교체를 보여 주지 않는 것은 語幹 自體의 역사적 발달에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觀點을 역사적인 면으로 옮기면, 이들 語幹은 그 聲調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것이 이들 交替의 秘密을 暗示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듯하다함은 이미 拙見을 보인 바 있다.8)

이같은 사실은 다만 ㄷ變則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ㅂ變則, ㅅ變則 등에도 적용되어야 할 並行된 사실임을 밝혀둔다.

(6) /ㅌ(tʻ)/

音素 /ㅌ/의 辨別的 資質은 有氣·軟音·通口·齒莖·閉鎖性 등을 들수 있을 것이다. /ㅌ/과 /ㄷ/은 氣의 有無로 대립하고 齒莖 部位에서 이같은 氣의 有無로 대립하는 音素는 이 두 音素 이외에는 없으니 兩面對立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氣의 有無만을 基準한다면 이같은 有無 對立은 이미 설명한 바, /ㅂ/과 /ㅍ/ 間에도 並行된 關係가 존재하며, 硬口蓋音系列과 口蓋帆音系列에도 역시 같은 대립이 존재하므로 이들의 대립은 有無的이요, 兩面的이요, 比例的이며, 따라서 相關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生成音韻論의 資質 表示도 역시 /ㄷ/의 그것에서 다만 +aspirate로 되는 것이 다를 뿐이다. 訓民正音에서는 舌音次淸으로 표시되어 있다.

音素 /ㅌ/의 出現 環境은 비교적 자유스럽다. 그 出現 位置에 따른 變異音이나, 配列에 있어서 制限 등은 대개 音素 /ㄷ/의 경우와 並行的이며, 類似하다. 그러나 다소의 다른 점도 물론 가지고 있다.

音素 /ㅌ/의 語頭 位置에서의 出現은 자못 자유스럽다 하겠으나, 이미 검토한 바 兩唇音系列의 子音들에 비하면, 그 범위가 얼마쯤 좁은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탐(貪)·털(毛)·통(筒, 桶)」 등은 「담(墻)·덜(減)·동(東)」 등과 같은 最小對立語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그 辨

8) 拙稿 : 15世紀 國語의 活用語幹의 聲調에 대하여, 1963, 忠南大學校論文集 3.

別的 機能이 잘 드러나지만, 半母音 /j/와의 결합된 例는 위 위치에서 잘 보여 주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國語의 子音들은 半母音 /j/와의 결합이 非生產的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이 齒莖音系列과의 결합은 例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半母音 /j/와의 결합은 口蓋音化를 유발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口蓋音系列과의 衝突을 가져 올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結合上의 非生產性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니, 이같은 制限은 中世國語 등에서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9] 口蓋音化는 물론 語頭 位置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音素 /ㅌ/의 語中 位置에서의 출현도 비교적 자유스럽다. 「국토(國土)와 국도(國道), 대탑(大塔)과 대답(對答), 대통(大統)과 대동(大同)」 등 충분한 最小對立語가 있고, 「솥에 · 솥을 · 솥은」 등은 제 音價대로 實現된다. 한편 「끝이, 밭이, 같이」 등 語尾나 助詞의 「이」와 연결되면 口蓋音化하여 「ㅊ」으로 實現된다. 그러나, 「티(塵埃 · 色態)」의 경우는 口蓋音化하지 않는다. 「티」의 「이」는 역사적으로 소급하면 純正 「이」가 아니고 「의」 등에서의 발달이기 때문이니 「틔 (朴通事, 초)」와 같은 例가 있다.

語末 혹은 音節末 位置에서나, 無聲閉鎖音 등의 앞에서는 ㅌ도 ㄷ과 같이 [t˺]로 實現된다. 이를 ㄷ · ㅌ의 中和라 한다 함은 이미 여러번 언급한 바이다. 가령 「밭 · 끝(末) · 같고 · 같지」 등과 같은 경우의 ㅌ은 이같이 實現된다. 이같은 內破化는 대등한 獨立語가 연결되면 그것이 母音으로 시작되는 語詞일 경우일지라도 일단 內破化하여 [t˺]로 되고, 休止를 건너서 다음에 이어지는 音節 頭音으로 옮겨지는 듯하다. 「밭 아래 · 밭 위」 등.

音素 /ㄷ/과 /ㅌ/은 現代 國語에서의 資格은 대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有氣音 部類의 發達이 平音 部類에서 뒤진다 함은 이미

9) 安秉禧 : 杜詩諺解의 t口蓋音化에 대하여, 李熙昇先生 頌壽紀念論叢, 1957.

ㅂ·ㅍ의 경우에 언급한 바이다.

音素 /ㅌ/은 鼻子音 ㄴ·ㅁ·(ㆁ) 앞에서 같은 系列의 ㄴ으로 鼻音化한다. 「낱낱이」는 「난나치」로, 「밭만」은 「반만」으로 實現된다. 이는 子音接變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러나 連結 順序가 逆이면 이같은 變動은 일어나지 아니한다. 「난타(亂打)·남탕(男湯)·방탕(放湯)」 등에서는 ㅌ이 제대로 實現된다. 子音同化 등은 대체로 이같은 逆行同化가 優勢하다.

音素 /ㅌ/은 때로는 「ㄷ+ㅎ」 혹은 「ㅎ+ㄷ」과 같이 두 音素의 複合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音素 /ㅍ/의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이미 언급한 바이다. 보통의 경우는 單一 音素일 뿐인데 이러한 경우는 複合 音素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再音素化라 한다 함도 이미 言及한 바이다. 가령 「묻-(埋)」에 被動의 接尾辭「-히-」가 연결되면 「무치-」와 같이 발음되는데 이는 「무티-」에서 口蓋音化를 거치고 나타나는 現象으로 해석하는 것이 설명하기 쉬운 것이다. 「좋+다」가 「조타」와 같이 발음되는 것도 또한 같은 경우다.

語幹 末音으로 나타나는 ㅌ도, 현재로서는 ㄷ末音 등과 다른 것이 없는 일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나, ㄷ에 비하면 非生産的이고, 그 역사적인 발달은 필경 ㄷ+ㅎ과 같은 과정을 겪고서 발달한 것일 可能性이 크다. 有氣音의 發達은 平音의 그것에서 상당한 時差를 두고 생각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7) /ㄸ(t?)/

音素 /ㄸ/의 辨別的 資質은 無氣·硬音·通口·齒莖·閉鎖性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硬音性은 이 音素가 같은 系列에 있는 ㄷ·ㅌ 등에서 辨別되는 하나의 徵表가 된다. 生成音韻論의 辨別的 資質

表示를 따르면, ㄷ·ㅌ에서 다른 점은 역시 +glottalized가 된다. 訓民正音에서는 舌音全濁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지금의 ㄸ과 같은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音素 /ㄸ/의 語頭에서의 出現은 비교적 자유스럽다. 「땅(地)·떡(餅)·또(又)·뚝(堤)·뜰(庭)·띠(帶)·때(時)·떼(群)」 등이 있고 이들의 最小對立語도 쉽게 찾아질 듯하다.

音素 /ㄸ/의 語中 位置에서의 出現은 語頭에 비하면 非生産的이나 가능한 것이다. 「으뜸(元)·이따금(間)·말띠(午生)」 이러한 ㄸ은 때로 先行 音節에 閉音節과 같은 印象을 줄 수 있다. 즉 「읃뜸, 읻따금」과 같이 들리는 수가 있는 것이다.

音素 /ㄸ/은 音節 末音으로 出現하지 않는다. ㄸ을 받침으로 가진 單語는 없고,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t'']로 中和될 것이 예견된다. 이러한 豫見은 國語 子音의 配列上의 일반적 경향이 이른바 七終聲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가 다시 國語 音韻史上에서는 內破化의 問題로 이어진다 함은 이미 언급하였다.

音素 /ㄸ/의 역사적인 발달은 된소리 一般의 역사적인 발달과 같은 步調를 취한다. 이 音素의 일부는 中世國語의 ㅅ系 合用並書에 소급되고, 다른 일부는 ㅂ系 ㅄ系 合用並書, 즉 語頭 子音群에 소급된다고 보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인 것이나, 語頭 子音群의 問題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見解의 一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語中에 나타나는 一部의 音素 ㄸ은 重複 子音으로 再音素化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는 音素 ㅃ의 경우와 並行된 傾向으로 생각된다. 가령 「듣다·듣더니」 등은 「드따·드떠니」 등으로 實現된다고 볼 수도 있으니 이때의 「ㄸ」은 ㄷ+ㄷ과 같은 重複으로 보는 것이 설명하기 쉬운 것이다.

(8) /ㄴ(n)/

音素 /ㄴ/은 齒莖 子音 系列의 通鼻音이다. 이 音素의 辨別的 資質은 이 系列의 共通資質에 通鼻性을 더하여 표시될 수 있다. 즉 通鼻·有聲·齒莖性 등으로 표시될 것이나, 보통의 경우는 通鼻·齒莖만으로 표시하여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生成音韻論의 資質 表示에 의하면, 音素 /ㄷ/의 資質 表示에서 [−voice], [−nasal]이 든 것이 [+voice], [+nasal]로 바뀌는 것이다. 訓民正音에서는 舌音, 不淸不濁으로 표시되어 있다.

音素 /ㄴ/의 出現은 語頭·語中·語末 어느 위치에서나 자유스럽고 다른 音素와의 대립도 분명하다. 가령「남(他)·하나(一)·손(手)」등의 ㄴ은,「담(墻)·하마(旣)·솔(松)」등의 ㄷ·ㅁ·ㄹ 등과의 對立이 분명하고, 이들의 대립은 이들만의 對立이니 最小對立이라고 한다.

音素 /ㄴ/의 語頭에서의 出現에는 하나의 제한이 있다. 이 위치에서는 母音 /i/나 혹은 半母音 /j/와의 결합이 제한되는 것이다. ㄴ과 이들과의 결합은 결국 ㄴ의 口蓋音이라고 할 수 있는 變異音 [ɲ]으로의 實現이겠는데, 이 音의 出現이 없는 것으로 된다. 쉽게 말하면「냐·녀·뇨·뉴·니」등과 같은 音節은 語頭 位置에 올 수 없고, 起源的으로 그러한 音일지라도 이 위치에서는「야·여·요·유·이」와 같이 實現되는 것으로 보고 그와 같이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 위치에서의 ㄴ과 j의 中和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같은 제한은 中世 및 近代國語의 表記에서는 지금과는 달리 이같은 결합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ㄴ 口蓋音化 등의 歷史的인 經過가 어떻게 되었으며, 現代 國語(方言)에서 어떠한 狀況下에 놓여 있는가 등은 하나의 과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9) /ㅅ(s)/

音素 /ㅅ/의 辨別的 資質은 軟音·齒莖·摩擦性 등을 들 수 있을 것

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의 音素들은 閉鎖音(혹은 停止)들인데 反하여 이들에서 크게 다른 점은 마찰성을 들 수 있다. 즉, 音素 /ㅅ/은 齒莖 部位에서 摩擦 方式으로 調音되는 것이다. 軟音性을 따로 표시한 것은, 같은 部類에 있는 ㅆ을 고려한 때문이다.

生成音韻論이 보여 주는 資質 表示에 의하면 −vocalic, +consonantal, +anterior, +coronal, −aspirate, −glottalized, −voice, +continuant, −nasal, +strident 등으로 되어 있다.

訓民正音에서는 齒音全淸에 들어 있다.

音素 /ㅅ/은 그 出現 位置에 따라 대체로 [s·ʃ] 등의 두 가지로 實現된다고 볼 수 있다. [s]를 대표로 삼아 /s/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語頭 位置와 語中의 單母音이나 半母音 /w/ 등에 先行할 적에는 [s]로 實現되고, 半母音 /j/나 /위/ 등에 先行할 적에는 [ʃ]로 實現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더욱 세분하여 [ʃ], [ɕ]를 구별하는 수도 있다). 語末이나 音節末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나타난다고 여겨지는 위치에 [t']가 나타난다. 즉 보통 받침으로 쓰인 ㅅ은 休止나, 子音 앞에서는 [t']로 되고 만다. 이러한 現象도 보통 中和라고 부르고 있다. 즉, 「낫」과 「낟」 등의 구별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現代 國語에 나타나는 이같은 音節末 位置의 廣範한 中和 現象은 音韻史의 관점에서 돌아보게 될 때, 중요하고도 어려운 몇 가지 문제를 던져 주고 있다. 現代 國語의 音節末 位置에서는 이른바 七終聲이 쓰이고 있으며, ㅅ과 ㄷ의 대립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15世紀의 表記나 記錄에 이르러서는 이미 그 사정이 지금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終聲八字可足用과 같은 잘 알려진 記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表記의 實狀에서도 音節末 位置의 ㅅ·ㄷ의 混同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그 구별은 오히려 一絲不亂의 傾向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ㅅ·ㅈ·ㅊ 등이 同一 步調를 취하여 中和 位置에서 ㅅ으로

표기되고 ㄷ·ㅌ 등이 同一 步調를 취하여 中和 位置에서 ㄷ으로 표기되고 있으며, 이들에 鼻音이 後續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鼻音의 逆行同化 같은 것도 「잇ᄂᆞ니(有)·낫나치(箇箇)」 등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걷너～건너(渡), 돋니～돈니(行)」 등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問題는 근래의 연구에서 점차 정밀화되고 있다.10)

現代 國語의 音素 /ㅅ/은 ㄴ·ㅁ·(ㆁ) 등 鼻音 앞에서 逆行同化되어 ㄴ으로 實現된다. 가령 「옷만(衣)·짓는(作)」 등은 「온만·진는」 등과 같이 實現된다. 이는 音節末의 ㅅ이 一段 [t']로 되고, 다시 ㄴ으로 鼻音化하는 것이다. 그러나 連結의 順序가 바뀌면 각각 제대로 발음되고 同化는 일어나지 않는다. 가령 「온상(溫床)·몸소(親)·병신(病身)」 등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다.

ㅅ變則 用言의 語幹 末音 ㅅ은 母音으로 시작되는 語尾들 앞에서 脫落한다. 이 末音 ㅅ은 中世國語의 半齒音 ㅿ에 소급되는 것으로, 變則 用言 一般의 末音과 같이 그 역사적인 발달에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 등을 안고 있는 것이다. ㅂ變則이나, ㄷ變則도 그 발달에 難題를 안고 있음은 마찬가지지마는, ㅅ變則은 더욱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듯하다. ㅅ은 有聲 環境에서도 有聲化하지 않으며, 有聲化에 障碍가 되는 것은 音素 ㅈ의 存在를 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종래의 설명은 ㅅ의 有聲化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通說처럼 되어 있었으나, 이 有聲化에 대한 일반화는 ㅅ正則 語幹이 그러한 변동을 보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설득력이 없어진 것이다. 이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명코자 하는 노력은 최근에 와서 분명하여진 듯하나 아직도 미해결의 상태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11)

音素 /ㅅ/은 音素 /ㅎ/의 口蓋音으로 나타난다. 즉, 方言에서의 이

10) 李基文 : *op. cit*, 10 音節 子音 體系 pp. 77～87.
11) 拙稿 : *op. cit*,.
李基文 : *op. cit*, pp. 30～39.

같은 현상도 잘 알려진 사실이나, 그 자세한 경우가 어느 정도이며 그 역사적인 발생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등에 대하여 아직도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하다.

(10) /ㅆ(s')/

音素 /ㅆ/의 辨別的 資質은 硬音·齒莖·摩擦性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音素 ㅅ의 辨別的 資質에서 軟音性이 硬音性으로 바뀐 것이다. ㅆ과 ㅅ의 對立은 硬音性의 有無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며, 이들 間의 辨別性은 다른 音素와의 對立에 비하여 最小對立이라 할 것이다. 즉, ㅆ과 ㅅ은 매우 가까운 音素라고 할 것이다.

生成音韻論이 보여 주는 資質 表示에서도 ㅅ의 —glottalized를 +glottalized로 바꾸면 ㅆ의 資質이 된다.

訓民正音에서는 齒音 全濁에 들어 있으나 지금의 ㅆ과 全等한 것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音素 /ㅆ/의 語頭에서의 出現은 비교적 자유스럽다. 「싹(芽)·쌀(米)·썩다(腐)·쏘다(射)·쑥(艾)·씨(種)」등이 있고 이들의 最小對立語 등도 쉽게 찾아질 듯하다. 그러나 j系 二重母音 앞에서의 出現은 가능하기는 하나 非生産的이다. 이는 音素 /ㅅ/의 경우에도 동일한 경향이었다. 이때에 後續하는 j系 二重母音들은 相應하는 單母音과 中和한다. 즉, 「쌰·쎠·쑈·쓔, 샤·셔·쇼·슈」등은 「싸·써·쏘·쑤, 사·서·소·수」등과의 辨別이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中世國語의 경우에는 이러한 制限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ㅆ·ㅅ 등의 音價는 中世國語의 그것과 現代國語의 그것 間에 다소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12]

音素 /ㅆ/의 語中 位置에서의 出現은 가능하나 非生産的이다. 「입쌀

12) 許雄 : 齒音攷, 國語國文學 27, 1964.

(硬米)·솜씨(手數)·약쑥(藥艾)」등. 이러한 ㅆ은 때로 ㅅ과의 辨別性이 다소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ㅆ의 이 위치에서의 出現이 非生産的이며, 이 위치의 이 音素만에 의한 最小對立語가 얼른 생각나지 않는 점에서 語形의 충돌같은 것이 없어서 그 實現에 특별한 주의가 가지 않는 때문인 듯하다. 「있으니·있으면·있어」등의 경우도 「잇스니·잇스면·잇서」와 같이 발음되더라도 聽取에 混亂이 올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잇다(連)」와 「있다(有)」의 경우는 「잇-」쪽이 길게 되는데 이는 中世國語 「닛-」에 이어지는, 그 聲調의 영향으로 보이니 末音의 區別에서 오는 차이는 아닐 것이다.

音素 /ㅆ/은 音節末 혹은 語末에는 출현하지 않는다. ㅆ뿐 아니라 硬音 部類는 모두 音節 末音에 나타나지 않는다.

音素 /ㅆ/의 역사적인 발달은 된소리 一般의 역사적인 발달과 같은 步調를 取하니 그 일부는 中世國語 當時에 이미 硬音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ㅅ系 合用並書에 소급되고, 그 다른 일부는 中世國語에서는 語頭 子音群으로 알려져 있는 ㅂ系 및 ㅄ系 合用並書에 소급된다.[13]

(11) /ㄹ(l)/

音素 /ㄹ/은 齒莖 子音 系列의 流音이다. 이 音素의 辨別的 資質은 이 系列의 共通資質 齒莖性에 流音性을 더하여 표시될 수 있다. 그러나 子音 音素에 流音은 이 音素뿐이라고 하면 流音性만으로 資質 表示하여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生成音韻論의 資質 表示에 따르면, +vocalic, +consonantal, +anterior, +coronal, −aspirate, −glottalized, +voice, +continuant, −nasal, −strident 등으로 되어 있다.

訓民正音에서는 半舌音 不淸不濁으로 되어 있다.

---

13) 李基文: *op. cit*, 6. 된소리 pp.47~55.

音素 /ㄹ/의 출현 위치에 따른 變異音은 크게 [l]와 [r]의 두 가지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이 두 變異音 중에서 어느 것을 音素 表示의 代表音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見解의 差異가 있을 수 있으니, 종래의 音韻論에서는 대체로 /r/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近來의 生成音韻論 등에서는 /l/로 표시하는 쪽을 보여 주고 있다.[14)]

/l/쪽이 分布에 있어서 優勢하고, 誘導過程에서도 無理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音素의 分布는 견해에 따라 상당히 복잡할 수 있으며, 어느 쪽을 따를 것인가는 쉽게 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기서 잠정적으로 근래의 경향을 쫓아둔다.

音素 /ㄹ/은 語頭 位置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起源的인, 혹은 本來的인 ㄹ은 이 위치에서는 ㄴ이나, 半母音 j 등과 中和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筆者의 獨斷일 수도 있다. 起源的인 혹은 本來的인 ㄹ이란 語中 位置에서 音節 頭音으로 나타나는 일부의 ㄹ을 指稱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語中에서「라·랴·러·려·로·료·루·류·르·리·래·례」등과 같은 音節의 頭音으로 나타나는 ㄹ은, 語頭 位置에 오게 되면「나·야·너·여·노·요·누·유·느·이·내·예…」등과 같이 되고 만다. 이같은 中和는 ㄴ·ㄹ·j 등이 그 部位資質과 有聲性 등을 공통으로 가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나한(羅漢)·사라(紗羅)·낙하(落下)·하락(下落)·노고(勞苦)·피로(疲勞)·누전(漏電)·소루(疎漏)」등은 이같은 환경에서의 ㄹ·ㄴ의 中和일 것이고,「양심(良心)·개량(改良)·영식(令息)·가령(假令)· 용마(龍馬)·소룡(小龍)」등은 ㄹ·j의 中和일 것이다. 이때에 ㄴ과 中和를 보여 주는 ㄹ은 [r]일 것이고 j과의 中和를 보여 주는 ㄹ은 [l]일 것이다.

音素 /ㄹ/의 語中 語末 位置에서의 辨別性은 音節末音이거나, 音節頭音이거나,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살(肉)~산(山), 실(絲)~

14) 이병건 : 현대한국어의 생성음운론, pp.175~178, 일지사, 1976.

신(靴), 사람(人)~사남(四男), 사랑(愛)~사양(讓)」 등의 最小對立語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音素 /ㄹ/의 다른 子音과의 連結은 비교적 자유스런 것으로 보인다. 가령 ㄹ이 先行 音節의 末音이고, 다음에 子音으로 시작되는 音節이 연결될 경우를 보면 「발견(發見)·발노(發怒)·발달(發達)·발명(發明)·발분(發憤)·발사(發射)·발작(發作)·발차(發車)·발칵·발탁(拔擢)·발행(發行)」등 충분한 例가 보인다. 다만 「발노(發怒)」와 같은 경우는 그것이 「발로(以足)」와의 辨別이 분명치 않고, ㄴ+ㄹ이 ㄹ+ㄹ로도 되는 것과 같은 順行同化가 있지않나 생각된다.

音素 /ㄹ/이 다른 子音에 後續될 경우는 ㄹ이 그 音節의 頭音이 되고 先行 音節이 末音을 가진 경우이니, 音節末에서의 子音은 7개의 「ㄱ·ㄷ·ㅂ·ㆁ·ㄴ·ㅁ·ㄹ」일 것이니, 가령 「식량(食糧)·법령(法令)·강론(講論)·신령(神靈)·심령(心靈)·발랄(潑剌)」등의 例가 보이나, 이들의 實際 發音에는 同化 등이 작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얼마쯤의 불분명함이 있는 듯하다. 즉 이들의 實際發音은 「싱량(혹은 싱냥)·범령(혹은 범녕)·실령·심령(혹은 심녕)」등 ㄱ·ㄷ·ㅂ이 ㄹ 앞에서 鼻音化하는 것은 後續하는 ㄹ이 半母音과 더불어 一段 ㄴ과 같이 鼻音化하고 다시 先行하는 ㄱ·ㄷ·ㅂ 등을 鼻音化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신령」이 「실령」으로 되는 것은 ㄹ의 逆行同化로 보인다. 이것은 결국 ㄹ이 ㄱ·ㄷ·ㅂ·ㄴ등에 직결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뜻이 된다.

音節末의 ㄹ은 때로는 ㅅ·ㄴ·ㄷ·ㅈ등 앞에서 脫落하는 수가 있다. 가령 「알-(知)」 등의 ㄹ末音 語幹은 그 活用形, 「아는, 아시니 등에서와 같이 「아-」로 교체되는 것이다. 또 「소나무(松)·부삽(火揷)·부저가락·부실(不實)·부정(不正)·부당(不當)」등에서 ㄹ의 脫落을 볼 수 있다. 이러한 ㄹ의 脫落은 아직 그 機制가 잘 해명된 것은 아닌 듯

하다. 이러한 現象은 中世國語에까지 소급되는 것이다.

이른바 「르變則」의 用語 語幹은 「-어/아, -이-」 등의 語尾 앞에서 語幹 末音 「으」가 떨어지면, 「ㄹㄹ」로 되는데 이러한 「ㄹㄹ」 등은 ㄹ의 重複으로 보기도 한다.

中世國語에서는 末音 ㄹ에 後續하는 接尾辭의 頭音 ㄱ이 默音化하는 경우 등도 있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事實에서 音素 /ㄹ/은 결국 많은 難題를 안고 있는 것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11個 子音에 대한 個別的인 論議를 간략하게 進行하여 왔다. 兩唇音系列 ㅂ·ㅍ·ㅃ·ㅁ과 齒莖音系列 ㄷ·ㅌ·ㄸ·ㄴ·ㅅ·ㅆ·ㄹ 등이 그것이다. 口蓋音系列·口蓋帆音系列·喉音系列 母音 등이 남아 있으나, 後日의 機會로 밀어 둔다. 남아 있는 音素들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의 論議를 참고하여, 각자가 정리하여 보는 課題로 삼아도 좋을 듯하다.

제 4 장 音韻論的 研究의 實際

4-1 15世紀 母音體系의 本質(金完鎭)…157
4-2 15世紀의 母音體系(李基文)…170
4-3 近代國語의 母音(鄭然粲)…185

제 4 장 音韻論的 硏究의 實際

前章까지는 音韻論의 一般 原理와 그 應用으로서 音素의 各論 一部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다루었으니, 그 범위는 비교적 넓었다고 하겠으나, 그 미세한 부분에 이르러서는 얼마쯤의 疎漏함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정도에서 國語音韻論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막 國語音韻論에 첫발을 들여 놓았다고 생각하여도 좋을 것이다. 國語音韻論의 實際的 硏究는 이제까지와 같은 일반 원리가 끝난 다음에서부터 오히려 그 本領이 시작되는 것이다.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연구는 그 분야가 넓을 뿐만 아니라, 仔細함을 極한 方法과 主題의 多樣함 등에서 實로 華麗하기까지 할 만한 것이다.

國語音韻論의 學問的 歷史는 다른 言語의 그것에 비하여, 결코 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世宗의 正音創制에 始源을 둔다면 六世紀 가까운 時日이 흘렀고 1940年頃에서 現代的 硏究가 시작되었다고 하여도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할 것이며, 최근의 生成音韻論과 같은 새로운 硏究는 날로 새로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많은 학자의 學問的 熱意에 의하여 이 분야의 成就는 착실히 이루어져 온 것이다. 그 동안에 이룩한 많은 업적들은 이제 하루이틀에 읽어낼 수 있는 분량을 넘어선 것이다. 이제는 좋은 論文을 골라서 읽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읽고서 생각하고 다시 구체적인 자기 분야의 硏究 開拓에는 각자의 趣向이 있을 것이나, 어

느 분야로 나아가든 한두 편의 模範的 論文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뜻으로 筆者의 趣向에 따라 여기 두 편의 論文(抄)을 뽑아 싣고, 그 끝에 拙文(抄) 一篇을 붙여 두었다.

이들 三篇의 論文은 發表時期가 다르고 觀點과 見解가 서로 다르나, 그 主題는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主題를 다루면서도 그 觀點과 見解가 다를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精密하게 되어가는 것이다. 音韻論的 研究의 實際가 어떠한 것일 수 있는가가 이로써 어느 정도 짐작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金完鎭의 「母音體系의 新考察」은 1963年 震檀學報 24에 발표된 것이다. 금년이 1980年이니 좀 오래된 論文이다. 그런데도 이 論文을 뽑은 것은 그만큼 훌륭한 論文이기 때문이며, 音韻論的 理解에 뜻을 두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야 할 論文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묵은 主題의 새로운 選擇, 論證 展開의 整然함, 그같은 論證에서 必然的으로 導出되는 새로운 結論 등 論文作成의 實際를 배우기에 可히 模範이 될 만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論文은 길어서 다 싣지 못하고 그 일부만을 보였으니 그것으로 혹 累가 될까 두렵다.

李基文의 「母音體系」는 1972年에 발표된 그의 「國語音韻史研究」중의 一篇 일부에 해당한다. 前者에서 10年의 時差를 가지는 것이다. 같은 主題를 두고, 새로운 견해를 보인 것이다. 學問 理解의 里程表를 보는 듯하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였던 結論에서 전혀 새로운 結論이 導出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學問 理解의 嚴然함을 볼 수 있고 동일한 對象이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더구나 그 관점이 하나만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拙文 一篇은 요즈음 쓴 것이다. 역시 10年에 가까운 時差를 가지며 같은 主題를 聲調의 觀點에서 다룬 것이다. 두 분의 先功에 敬意를 표한다.

4-1 15世紀 母音體系의 本質(抄)

金 完 鎭

筆者는 國語의 子音體系가 餘他 同族語들의 子音體系들보다도 더욱 격심한 변화를 입었고, 또한 그 변화의 속도도 매우 빨랐다 함을 지적한 일이 있다.1) 母音體系에 대하여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筆者에게는 생각되니, 共通基語 및 餘他 同族語들의 母音體系와 비교하면 이 사실은 쉽사리 이해될 줄로 믿는다. 알타이 原語의 母音體系는 2)

	Hintere	Vokale	Vordere	Vokale
	Labial	Illabial	Labial	Illabial
Eng	u	y(=ɨ)	ü	i
weit	o	a	ö	e(ä) (ẹ)

으로 추정되며, 同族語들이 대개 그에 가까운 體系를 유지하고 있는 反面, 국어는 그와 거리가 먼 體系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土耳其語는 오늘날까지 八母音制를 충실히 유지하고 있고(오스만 土耳其語의 경우, 특히)3) 오늘날에는 七母音組織을 가진 蒙古語도 中世語時代까지는 대체로 祖語時代의 面貌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 한다.4)

1) 金完鎭 : 國語音韻史 硏究, p.70.

2) G.J. Ramstedt, Einführung in die altaische Sprachwissenschaft. I. Lautlehre. Helsinki, 1957, p.136.
N. Poppe, Vergleichende Grammatik der altaischen Sprachen. Teil I. Vergleichende Lautlehre, Wiesbaden, 1960, p.91 이하.

3) 土耳其語의 대부분의 方言은 다음과 같은 母音體系를 가지고 있다.

u	ɨ	ü	ä
	a	ö	i

(正書法上으로는 ä=e ɨ=ı 이다.)

4) N. Poppe, *ibid.*, p.92.
Der urmongolische Vokalismus hatte sich ziemlich gut biz in die mittelmongolische Priode.

N. Poppe에 의하면, e와 ė가 구별되어 존재했다는 것만이 特異할 뿐이다. 또한 通古斯語派의 諸言語에 있어서도 대체로 蒙古語의 그것에 匹敵하는 母音體系를 유지하고 있는 현상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5]

現代國語(方言的인 差異도 격심하지만, 여기서는 우선 서울 方言에 대하여 말해 둔다.)는 10개의 母音을 가지고 있으니, 알타이語族에 속하는 言語치고는 類似드문 體系를 가졌다 할 것이다. 이 사실이 지난날 國語를 알타이語族에 연관시키려던 사람들을 懷疑 躊躇케 한 큰 要因 중의 하나였다. 그러므로 中世國語에 대하여 그 母音體系가 七母音으로 되었음을 발견했다는 것은 획기적인 업적이었다.[6] 그러나 그렇게 해서 발견된 母音體系는 母音의 數字에 있어서는 상당히 만족할 만한 알타이語에의 접근을 가져왔지만, 體系의 性格은 아직도 큰 거리가 있음을 극복할 수 없었다.

이제 一次的으로 筆者가 企圖하는 바는 이러한 中世國語의 母音體

	Hintere		Vordere	
	Nicht-gerundete	Gerundete	Nicht-gerundete	Gerundete
Geschlossene (enge)	*ï	*u	*i	*ü
Mittel-geschlossene (mittelenge)		*o	*ė	*ö
Offene(breite)	*a		*ä	

5) J. Benzing, Die tungusischen Sprachen Versuch einer vergleichenden Grammatik. (Akademie der Wissenschaften und der Literatur. Abhandlungen der Geistes- und sozialwissenschaftlichen Klasse. Jahrgang 1955. NR. 11). Wiesbaden. pp. 967～973.

여기서 그는 i외에 ɩ가 音韻論的으로 존재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滿洲語에 있어서는 [적어도 正書法上으로는] 六母音制의 모습이 보인다.

李基文, "中世女眞語 音韻論硏究"〈서울大學校 論文集〉──人文·社會科學──第7輯, 1958, p.389.에 의하면 中世女眞語는 a,e,i,o,u 五母音으로 변했었다.

6) 李崇寧: "十五世紀의 母音體系와 二重母音의 Kontraktion的 發達에 對하여"[「音韻論硏究」所收] 참조. 특히 p.459.

系에 대하여, 특히 그것이 共通基語와 現代語의 母音體系를 연결시키는 中間段階에 선다는 사실을 重視하여, 分析과 解釋을 賦與코자 하는 것이다.

中世國語의 七母音體系는 주지되어 있다시피 「訓民正音」 制字解의 記述에 의해서 가장 잘 證言되고 있다.

制字解에서는 우선

· 舌縮而聲深…
ㅡ 舌小縮而聲不深不淺…
ㅣ 舌不縮而聲淺…

이라 규정하고,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ㅗ 與 · 同而口蹙…
ㅏ 與 · 同而口張…
ㅜ 與ㅡ同而口蹙…
ㅓ 與ㅡ同而口張…

여기에 사용된 術語는 '舌', '聲', '口', 및 '縮'(小縮, 不縮), '深' : '淺'(: 不深不淺)과 '蹙' : '張'이다.[7]

「訓民正音」 制字解의 이러한 설명은 現代 音聲學 내지 音韻論의 見地로 보아서도 一點 非를 적을 곳이 없이 타당한 태도로 되어 있다. 大抵 Particularités phoniques distinctives를 분류함에 있어서,[8] 母音에 관한 限 localisation, degré d'aperture 및 résonance 밖에 다른 規準을 세울 수 없는 것인데, 다만 國語에 있어서는 résonance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制字解의 규정에서 빠졌을 뿐이다.

localisation에는 1) localisation de la langue와 2) forme des

7) 李崇寧 : 上揭書, 所收의 "母音調和硏究", 특히 p.12 以下를 참조.
8) N.S. Troubetzkoy, *Principes de phonologie*, Paris, 1957, pp.100~134. 특히 p.100을 참조.

lèvres 의 두 가지가 있는데, 制字解에는 前者에 대한 규정이 있을 뿐이요, 後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는 것으로 보면, 後者는 당시의 母音體系에 있어서 音韻論的 意味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간주된다.

localisation de la langue 는 세 classe 로 구분되었고, 거기에 각각 impression acoustique 가 붙었다.[9] (舌縮而聲深 : 後舌, 舌小縮而聲不深不淺 : 中舌, 舌不縮而聲淺 : 前舌). 대개 母音에 있어서는 聽覺的인 分類가 生理的인 分類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子音의 경우와는 달리 有用한 것이니, vélaire 는 sombre 하고 palatale 은 clair 하다는[10] 類의 표현을 상기케 하는 우수한 학문적 태도임을 발견케 된다.

'口'에는 '蹙'과 '張'이라는 대립된 개념이 附隨된다. 혹 '蹙'의 字義에 사로잡혀 arrondissement 으로 보기 쉬우나,[11] 이는 너무 皮相的인 觀察의 所致다. 「訓民正音」 編纂者들의 論理는 精密하고도 調和的이다. '舌'을 하나의 規準으로 하여 三系列을 수립하였듯이, '口'를 規準으로 하여 aperture 의 三段階를 표시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이다. 동일한 規準 '口'가 '張'에 있어서는 aperture 의 基底가 되고, '蹙'에 있어서는 forme des lèvres 의 基底가 된다는 애매한 論理를 訓民正音 創制者들에게 歸結시키려 함은 부당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다만, 現代音聲學의 態度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側面으로부터의 解剖學的 見地에 선 顎角中心의 觀察이 아니고 正面으로부터의 外形的 觀察이었다는 사실뿐이니,** 그것이 '張'에 대립된 개념을 표시함에 '蹙'字를 선택케 한 요인이 된 것이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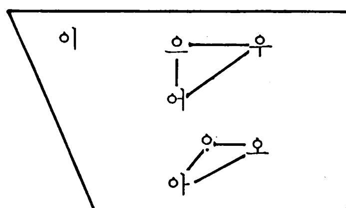
이러한 기초 위에서 15세기의 七母音이 i 를 無關母音으로 하고는,

9) 李崇寧 : 前揭書, pp. 10~11을 참조.
10) 李崇寧 : 同書. 同處.
11) 許雄 : 「國語音韻論」, pp. 178~180.

두 系列의 相關的 對立을 형성한다 함은 이제 꽤 널리 알려진 사실에 속한다.[12]

A系列 : ᄋᆞ 오 아
B系列 : 으 우 어

이제 문제되는 것은 이 相關的 對立의 性格이다. 15世紀 國語의 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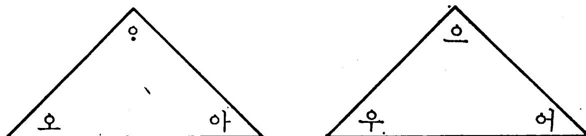


[圖表 4-1]

12) 李崇寧 : 前揭書 所收 "十五世紀의 母音體系와 二重母音의 Kontraktion的 發達에 對하여", p.338 및 p.427.

또한 李崇寧, "'ㆍ'音攷再論"〈學術院 論文集〉 第1輯, 1959, p.80 참조.

혹 이것을 三肢的 相關束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은 相關的 對立이라는 概念 그 自體에 違背되는 생각이다.(*cf.* 許雄, 前揭書, p.180). 왜냐하면 다음 表와 같이 묶는다면, 이는 opposition corrélative란 opposition bilatérale, proportionnelle, logiquement privative라는 개념과 모순되는 것이다,(*cf.* Troubetzkoy, *op. cit.*, p.89).



더우기 위와 같은 三肢的 相關束을 이룬다면 ᄋᆞ—으, 오—우, 아—어가 각각 분리적 대립이어야 하는데, 소위 母音調和의 存在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도 남음이 있다.

母音들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그 위치를 대략 앞의 「圖表 3-1」과 같은 정도로 추정하고 있었다.[13)]

이에 입각하여 A系列은 低母音系列이요, B系列은 高母音系列이라고 신뢰되어 왔다.

그러나 위에 제시한 推定圖는 이른바 상실된 單位文字의 音價 硏究에 온 學界가 汨沒하였던 시대에 있어서의 寵兒였던 'ᄋᆞ'에의 關心의 偏重을 여실히 드러낸 推定圖였다. 「訓民正音」 制字解에 충실하게 後舌面에 'ᄋᆞ'를 위치시켰고, 또한 開口度에 입각하여 '아'와 '오'의 중간에 고정시켰다. 타당한 태도요 또한 異論이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그 音價가 상실되어 버린 文字라고 해서 'ᄋᆞ'나 'ᄋᆞ'가 소속된 系列에만 관심을 표명하고, 나머지 音韻 또는 音韻系列에 대해서는 전혀 度外視하고 만 것은 자못 균형을 缺한 태도였다. 비록 '으, 우, 어'가 15世紀에 있어서와 한가지로 오늘날에 와서도 각각 고유한 音韻으로서의 價値를 유지하고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그 사이 五百年間에 그것들이 價値의 變動을 전혀 입지 않았으리라는 충분하고도 만족할 만한 증명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音韻論의 첫 戒銘인 "graphie의 illusion에 속지 말라"는 말이 지극히 평범한 것이면서도 지키기 어려운 것임을 痛感케 한다.

制字解는 '으'를 「舌小縮」이라 규정했고, '우'나 '어'에 대하여는 「…與一同而…」라는 전제가 붙어 있다. 'ᄋᆞ'에 대하여 「舌縮」이라 규정한 것은 「後舌」로 이해하여야 하고, 「與·同而…」라는 記述을 'ᄋᆞ'와 같은 後舌音임을 뜻한다고 확신했다면, 「舌小縮」은 「中舌」이요, 「與一同而…」의 「同」도 "'으'와 같은 中舌音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合理的이요 타당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B系列의 母音 즉 '으, 우, 어'가 가지는 音價를 無批判的으로 中世에까지 끌고

13) 李崇寧 : 「音韻論硏究」 p.16 및 p.338.

올라간 誤謬는 이 한 사실로 충분히 지적된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우선 앞에 引用한 母音圖에서의 '우'의 位置가 부당한 것이 된다. 制字解에 설명된 '우'는 'u'가 아닌 'ʉ'일 수밖에 없다. 또한 '으'에 대하여서도 前記 母音圖에서와 같은 [ɨ]의 音價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오로지 現代語의 音價에 의존했을 뿐이요, '으'音의 開口度에 대한 능동적인 해석이 취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A系列에서 '오'와 'ᄋᆞ' 사이에 開口度上의 差異를 인정하였다면, 制字解에서 그들에 대한 規定과 완전히 같은 規定으로 표현된 B系列의 '우'와 '으' 사이에도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야 논리적이다. 그렇다면 '으'는 적어도 '우'와 같은 정도의 高母音일 수 없고, 아마도 [ə]가 아니었던가 여겨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이상의 설명을 필요로 함이 없이 自動的으로 '어'는 [ə]가 아닌, 좀더 開口度가 넓은 中舌母音 즉 [ɜ] 정도의 音이었을 것을 요구한다.

만약 15世紀 國語의 母音體系가 앞에서 든 일이 있는 母音圖와 같은 構造를 가졌었다면, 이것은 균형과 질서가 심하게 이즈러진 존재였겠고,

ᄋᆞ	오	아
|	|	|
으	우	어

라는 相關的 對立의 成立도 심히 의심스러운 것이 되고 만다. 이는 '相關的 對立' 그 自體의 定義에 背馳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러한 상태에서는 'ᄋᆞ—으' 및 '아—어'의 對立이 opposition bilatérale을 이룰 수 없는 것이며, 또한 proportionnelle한 존재도 되지 못한다. 더우기 低母音 對 高母音의 相關的 對立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논리적으로 privative하고도 中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야 하겠는데, 前述한 바 母音圖의 狀況으로 보아서는 한 徵表의 有無에 의한 對立

을 논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14]

이에 筆者는 15世紀 國語의 母音體系에 있어서의 相關的 對立의 性格을 「訓民正音」 制字解에 충실한 해석에 입각하여 localisation de la langue 에 의한 것으로 추정코자 한다. 즉, 소위 陽母音系列을 vélarisé 로, 陰母音系列을 non-vélarisé 로 생각하려는 것이다. 前者를 有徵表系列로 보고, 後者를 無徵表系列로 보는 이유는 palatalisé 의 系列로 이미 '이'가 따로 고립되어 있으므로 palatalisé 의 系列이라고 中舌母音들을 指稱할 수 없겠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localisation de la langue 의 差異에 입각한 相關的 對立의 徵表를 palatalisation 이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15世紀 國語의 母音體系에 대해서 vélarisation 을 相關徵表로 내세우려는 筆者의 意圖는 여기 연유하는 것이다.

G.J. Ramstedt 가 이런 기반 위에 서 있지 않으면서도, 알타이語一般의 母音體系에 입각하여 a priori 하게[15]

The vowels were therefore originally:

1) back	long a,o,u	2) front	long ä,ö?,w
	short ă,ŏ,ŭ		short ä, -w,i

라고 한 것은 비록 그것이 15世紀의 母音體系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적 태도에 있어서는 정당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이상의 所論을 종합하면, 筆者가 생각하는 15世紀 國語의 母音體系는,

이	우	오
	으	ᄋᆞ
	어	아

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音聲學的으로도 「圖表 4

14) N.S. Troubetzkoy, *op. cit.*, p.116 참조.
15) G.J. Ramstedt, *Remarks on the Korean Language*, MSFOu. 58, 1928, p.443.

이 우 오
으 ᄋ
어 아

［圖表 4-2］

이 우 오
으 ᄋ
어 아

［圖表 4-3］

-2」에서와 같이 實現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는 音韻論과 音聲學을 혼동하는 誤謬를 범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音聲學的 見地에서의 筆者의 추정은「圖表 4-3」과 같다.[16]

이러한 추정을 내리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또한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母音史의 說明에 상당한 편의와 暗示를 얻게 되는 것으로 筆者는 생각한다.

첫째, '오'와 '우'의 위치에 대하여 :

만약 '오'가 名實相符한 後舌閉母音 [u]였다면 外國語轉寫에 이 사실이 나타났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中國語의 [u]를 부담하고 나서는 것은 '우'이지 '오'가 아니다.[17]

16) 音韻論的 對立과 音聲事實은 正確히 一致되는 것이 아니다. 아메리카 인디안의 言語의 一種인 Tonkawa 語는 Système quadrangulaire à deux degrés 를 가지고 있는데, 後舌母音은 相對되는 前舌母音보다 훨씬 넓은 開口度를 가지고 實現된다고 한다.

즉 a e
o i

Cf. N.S. Troubetzkoy, *op. cit.*, pp. 115～116.

17) 申叔舟의「四聲通攷」에서 정해진 바 소위 中國語 '正音', '俗音'의 表示에 있어서, [u]는 例外 없이 '우'로 表記되어 있다. 一例로 우리 나라 漢字音으로는 母音 '오'를 가진 '通'字에 대해서는 '퉁'으로 되어 있는 따위는 물론「通攷」그 自體는 逸傳되었으나, 後世 文獻에 의하여 그 당사, 즉 15世紀의 發音에 대한 啓蒙을 얻을 수 였음은 크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朴通事諺解나 老乞大諺解가 그 좋은 예들이다].

그러므로 後舌母音 가운데에서 開口度가 가장 큰 것이 '오'이면서도 [u]가 '오'에 의하여 처리될 수 없었다는 矛盾은 筆者의 推定圖에서와 같은 해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실제 發音에 있어서 '오'보다는 '우'가 오히려 [u]에 가까왔던 것을 의미한다.

둘째, 'ᄋᆞ'와 '으'의 위치에 대하여:

弘治十四年 紀年의「海東諸國記」附錄「語音飜譯」에는 琉球語의 轉寫가 상당수 실려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된다. 여기서는 위에서 말한 바 '오', '우'에 관계되는 예들도 물론 발견되거니와[18)]

牛 우시, 馬 우마, 猪 우와, 蛇 파무
虎 도라, 老舅 오야비쥬, 鹽 마시오

'ᄋᆞ'나 '으'의 音價에 대하여도 示唆해 주는 바 크다. 「語音飜譯」에는 일반적인 예상을 깨뜨리고 琉球語의 [u]가 'ᄋᆞ'로 轉寫된 예가 상당히 많다. 이것은 주로 'ㅅ' 아니면 'ㅈ' 아래의 경우(즉, 日本語의 s와 ts 아래)가 主導的인데, 여기서 'ᄋᆞ'에 대응되는 母音이 'ウ'인 것이다. 이 母音은 다른 音聲環境下에서는 원칙적으로 '우'로 轉寫되어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日本語 母音을 轉寫함에 있어서 'ウ'에 대하여 보통 '우'를 사용하면서도 'ス', 'ツ'의 母音은 '으'로 轉寫하고 있는 것을 방불케 하는 존재다. 日本語의 'ウ'가 본래 圓唇性이 弱하여 [ɯ]로 表記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s]나 [ts]를 先行시킬 때 이것이 가장 極端化하여 우리에게는 '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니, 「語音飜譯」에서의 'ᄉᆞ', 'ᄌᆞ'도 그렇게 인식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19)]

ᄌᆞ마(那裏的), 인ᄌᆞ(幾時), 숑웅과ᄌᆞ(正月), 사긔부뎨ᄌᆞ아긔라(請一鍾酒), 아라로마ᄉᆞ라(不要饋他喫), 우지바라왜쳐아숩비(請裏頭要子), 마ᄉᆞᆼ고유왜리

18) '狗, 이노'와 같은 예는 주목할 만한 존재지만, 이런 예가 主導的이 되어 있지는 않다. 여기서는 오히려 ino를 나타낼 可能性이 질다.

(平坐), ᄌᆞ라(面), 아ᄉᆞ며잇계(落子), ᄉᆞᆫ다사(凉快), 난ᄌᆞ(夏), ᄌᆞ기(月), 지마ᄉᆞᆼ고(北平正), 사노ᄌᆞᆫ지(山頂), 오바리ᄉᆞ례(做飯), ᄉᆞ우(醋), ᄉᆞᄌᆞ리(硯), ᄉᆞ미(墨), ᄉᆞ미(炭), ᄎᆞ라(面), 타ᄌᆞ(龍)

만약에 '으'가 現代語에 있어서와 같이 그 音價가 [ɨ]였다면, 당연히 '우'와 함께 'ウ'를 轉寫함에 사용되었을 것이요, 'ᄋᆞ'의 차례가지 가지 않았을 것이니, 이는 당시의 '으'가 [ɨ]가 아니고 그로부터 꽤 거리가 먼 존재였음을 알려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또한 'ᄋᆞ'가 약간 中舌面 쪽으로 끌려 발음됨으로써 비교적 中舌的인 日本語의 'ウ'(여기서는 琉球語)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케 한다.

또한 琉球語의 'エ'의 一部가 '의'로 적히고 있는 예는[20]

사긔(酒), 아믜(雨), 요삼븨(晚夕), 쏘믜디(淸早), 고믜(米)…etc.

琉球語 自體의 e>i의 과정과도 관련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흥미있는 동시에, 國語의 '으'가 상당히 偏向되어 實現되던 中舌母音임을 말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ᄋᆞ'와 '으'의 관계에 대한 또 하나의 흥미있는 證言은 中國語의 母音 [ɨ]에 대한 다음의 記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通考凡例云 一則一·之間 今見漢俗於齒音着一諸字例 皆長於用·爲聲 故今之反譯示皆用·作字 然亦要參用一·之間讀之 庶合時用矣[21]

이 설명은 中國語의 [ɨ]音이 'ᄋᆞ'보다는 前舌에서 '으'보다는 後舌에서 實現되는 音임을 표현하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보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本稿에서 다시 한번 논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19) 例外的인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링ᄆᆞ나사긔 (白酒) 크지(口)

20) 'ᄋᆡ'로 적힌 예외가 있다. e.g. 아ᄅᆡ(姐).

21) 「飜譯老乞大·朴通事」凡例 第7張. 또한 「四聲通解」에 붙어 있는 「四聲通攷」凡例 참조.

(셋째, '아'와 '어'의 위치에 대하여:

15世紀의 '어'에 대하여는 그다지 適確한 文證을 찾을 수 없음이 유감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中國語 轉寫例에 비추어 보아 그 音이 中舌 내지 前舌 低母音을 cover하는 音韻이었을 것으로 믿어지니, 後舌低母音 '아'와 좋은 대조를 보인다 하겠다. e.g.

夜 여여 pk. (北京音) iä

天 텬텬 pk. t'iän

見 견견 pk. tsiän

또한

可거 kə, 哥거 kə, 得더 tə…etc.

위의 發音表記에서 ə는(B. Karlgren의 用法에 의함 22)) 前舌開母音 또는 中舌半開母音으로 규정되는 音이며, iä의 音價는 ioe니, 이로써 國語의 音韻 '어'의 allophone들의 分布狀況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상 筆者가 15世紀 國語의 母音體系에 대하여 披瀝한 見解를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아진다.

1) 七母音組織은 相關的 對立을 형성하는 두 系列의 母音들로 이루어졌고, '이'만은 이 對立에 무관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全的으로 前說을 踏襲했다. 물론 여기서 七母音이라고 할 때에는 prosodic features를 고려에 두지 않고 한 이야기다.23) 이것을 計算에 넣는다면 母音의 수효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이것을 다루는 태도에

22) B. Karlgren, Études sur la phonologie chinoise. Göteborg, 1926, p.316의 母音圖 및 pp.305~308 및 p.317 참조.

23) 이른바 '聲調' 問題에 대하여는 河野六郎·許雄·李基文·鄭然粲 등 諸氏의 言及이 있다.

따라서도 變動이 있을 것이나,[24] 本稿에 있어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앞으로도 이것을 제외하고 순수한 소위 segmental phoneme 으로서의 母音問題만을 다루겠다.

2) 그러나 그 **相關的 對立의 性格에 대하여는 degré d'aperture 에 立脚한 것으로 보지 않고, localisation de la langue 를 基盤으로 한 對立으로 認識하려 했다.** 이것은 皮相的으로는 前項에서 言及한 說에 對照的인 것같이 보일 것이나, **實質的으로는 그 說 自體의 당연한 發展 結果인** 것으로 筆者는 생각한다. 따라서 3 classes, 3 degrés 의 système quadrangulaire [25]였다고 보는 것이다.

3) 이러한 개념에 기초하여 각 音韻의 당시의 音價를 규정하고자 **試圖했다. 史的 音韻論 硏究에** 있어서 轉寫資料의 價値는 높이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筆者가 얻은 이 面에서의 결과가 音韻史上 어떠한 意義를 가지는 것이냐에 대하여는 다음 章들에서 좀더 視野를 넓혀 검토하겠다.

24) 결국은 phoneme 에 대한 定義의 差異에 歸着된다. Supra-segmental phoneme 을 認定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와는 結果가 달라진다. 前者의 경우라면 a, á 는 세 phoneme (a,\,/)이겠으나, 後者에 있어서는 두 phoneme 일 것이다.

25) *Cf.* Troubetzkoy, *op. cit.*, p. 117.

4-2 15世紀의 母音體系(抄)

李 基 文

4-2-1 訓民正音 解例

그 중에서도 制字解의 中聲 體系에 대한 설명은 큰 권위를 가지는 것임에 틀림 없다. 종래 15世紀 國語의 母音論에서 이 설명이 존중되어 온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解釋이 不一하였다. 中聲이 訓民正音의 音韻理論의 새로운 개념임으로 해서 이에 대한 설명에 사용된 術語들도 中國 音韻學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이었다. 여기서 "舌縮, 舌小縮, 舌不縮", "聲深, 聲不深不淺, 聲淺" 또는 "口蹙, 口張"과 같은 術語의 概念 規定이 문제되어 온 것이다. 종래 이 術語들을 現代 音聲學의 術語로 飜譯하려는 試圖들이 행해졌으나, 근본적으로 이런 一對一의 飜譯이 가능한가, 이것만이 옳은가 하는 것부터 문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解例에 나타난 音韻 理論의 科學性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歐美 理論과의 一致를 발견함으로써만 이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背景과 基盤이 다른 理論 體系 내지 術語 體系를 완전히 일치시키려면 無理가 따르게 마련이다.

가령 解例는 舌에 대하여 "縮"의 程度(縮, 小縮, 不縮)를 말함에 대하여 現代 音聲學은 그 올라가는 部分(後舌, 中舌, 前舌)을 말한다.[1] 그런데 "縮"이 과연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이것을 관념적으로 해석하고 그 解釋에 입각하여 母音들의 音價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도리어 逆으로 이들의 音價를 먼저 밝힘으로

1) 이 現代의 것에 대한 簡明한 說明으로는 가령 Hockett 1955 : 31 참고.

써 "縮"의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口張, 口蹙"의 解釋도 그렇다. 解例 制字解에서 中聲에 대하여 "此下一闔一闢"이라 하고, 그 아래에 "口張"과 "口蹙"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口張, 口蹙"은 정히 "闔, 闢"의 설명임이 확실하다. 그리고 이 "闔闢"은 필시 中國 音韻學의 "開合"(開口, 合口)과 같은 말일 것이다(姜信沆, 1964 : 93-94). 이렇게 보면 "口張, 口蹙"은 주로 입술의 모양(張脣과 圓脣)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開口度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解釋(李崇寧, 1949 : 23 其他)을 배척할 아무런 적극적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다. 위의 두 해석을 합하여 "口張, 口蹙"이 입술의 모양과 開口度를 包括하는 槪念이었다고 볼 수도 있으며 이것이 오히려 사실에 가까울는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거니와, 解例의 說明은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現代的 觀點에서의 解釋은 자칫 我田引水가 되기 쉽다. 우리는 도리어 解例의 올바른 解釋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 15世紀에 있어서의 中聲字들의 音價를 밝혀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낀다.

4-2-2 15世紀 國語의 各 中聲字들의 정확한 音價를 밝히는 作業에 가장 적합한 資料로서 外國語를 正音 文字로 表寫한 資料, 國語를 外國 文字로 表寫한 資料를 들 수 있다.

4-2-3 여기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이 中國音을 正音字로 表寫한 資料들 즉 表記 (3)의 資料들이다. 洪武正韻譯訓, 四聲通攷(失傳), 그리고 이 後者의 增修本이라고 할 수 있는 四聲通解가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이 四聲通解 凡例에 의하면 元朝에 이루어진 蒙古韻略이란 책이 있는데 四聲通攷에 "俗音"이라고 하여 표기한 것은 이 책의 音과 같은 것이 많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四聲通解를 편찬함에 있어서도 이 책을 참고했다고 하였다.[2] 실제로 四聲通

2) "蒙古韻略 元朝所撰也 胡元入主中國 乃以國字飜漢字之音 作韻書以敎國人者也 其取音作字 至精且切 四聲通攷所著俗音 或同蒙韻之音者多矣 故今撰通解 必參以蒙音以

解에는 蒙古韻略으로부터의 많은 引用이 보이는데, 八思巴字가 正音字로 轉寫되어 있는 것이다. 불행히 蒙古韻略은 지금에 전하지 않으나 그것과 大同小異한 蒙古字韻이 전한다.3) 이리하여 이들 자료를 통하여 우리는 正音文字와 八思巴文字의 對應 關係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正音字와 八思巴字의 對應은 매우 흥미 깊은 것이다(李基文, 1969). 이제 四聲通解의 調査에서 얻은 結果를 圖表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八思巴字는 로마字로 轉寫한다.4)

	1	2	3	4	5	6	7	8
八思巴	a	o	u	e,é	ö	ü	i	hi
正　音	ㅏ	ㅗ	ㅜ	ㅕ	ㆇ	ㅠ	ㅣ	ㅡ

이 表에서 2, 3, 6의 對應은 'ㅗ'는 後舌中母音 [o]였고 'ㅜ'는 정히 後舌高母音 [u]였음을 端的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ㅜ'가 中舌高母音 [ʉ]였을 가능성을 배제해 준다. 한편 4의 對應은 'ㅓ'가 前舌的인 [e]가 아니었고 中舌的인 [ə]였기 때문에 'ㅕ'[jə]로써 [e]에 접근시키려 했음을 암시해 준다. 8의 對應은 매우 흥미 있는 것이다. h의 의미는 확실치 않지만 그것이 i에 어떤 수정을 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h는 次淸喉音의 曉母音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hi와 'ㅡ'의 對應은 'ㅡ'가 이른바 後舌의 i, 즉 [ɨ]에 가까울 가능성이 큼을 示唆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漢音의 觀點에서 蒙古韻略과 四聲通解의 表寫를 보는 것도 흥미 깊

證其正俗之同異."

3) 蒙古韻略과 蒙古字韻의 差異에 관한 硏究로는 鄭再發 1965 참고.

4) 우리가 ö,ü로 轉寫한 것을 服部四郞(1946 : 42 以下)는 각각 eo, eu로 轉寫하였다. 이들은 文字 構造上 eo, eu와 같은 두 文字의 合成인 같은 사실이나 蒙古語의 ö,ü를 表記한 文字였던 것이다. (Poppe 1957) 中國語 音韻史의 觀點에서도 ö,ü로 읽는 것이 더욱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 이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細部的 差異가 존재하나(이 差異들이 四聲通解에 지적되어 있다) 이들을 詳論하는 것은 피하고 위의 對應表의 것과 현저하게 다른 것과 그것을 보충하는 것에 대해서 摘記해 둔다.

첫째, 歌韻字들은 中原音韻에서 o로 추정된다.[5] 그런데 이것이 蒙古字韻에는(蒙古韻略에도) o로 되어 있음에 대하여 四聲通解에는(洪武正韻譯訓에도) 'ㅓ'로 되어 있다. 이 결과 四聲通解에서(洪武正韻譯訓에도) 'ㅗ'는 원칙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것은 매우 奇異한 느낌을 주는데, 이에 관해서 四聲通解는 歌韻의 첫머리에 "諸字中聲 蒙韻皆讀如ㅗ 今俗呼ㅗ 或ㅓ 故今乃逐字各著時音"(下 24)이라 註記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四聲通解는 歌韻의 많은 文字에 대하여 'ㅗ'로도 발음된다고 註하고 있다. 한편 飜譯朴通事의 在右音을 보면 이들이 모두 'ㅗ'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15世紀의 'ㅓ'가 [o](ㅗ)와 매우 가깝게, 주로 中舌의 [ə]로, 때로는 後舌의 [ɔ]의 音域에까지 걸쳐 實現되었다고 보지 않고는 合理的으로 설명될 수 없다. 위에서 八思巴文字의 e에 'ㅓ'로 對應하지 않고 'ㅕ'로 對應한 사실과 相符되는 것이다. 둘째, 支韻字들은 中原音韻에서 i로 추정되는데 蒙古字韻에서는 hi로 되어 있고 四聲通解에서는(洪武正韻譯訓에서도) 'ㅡ'로 되어 있다.[6] 이것은 15世紀 國語의 'ㅡ'가 中舌 高母音 [ɨ]였거나 이것에 매우 가까운 것이었음을 추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證據가 된다.

4-2-4 伊路波에서 日本文字로 正音文字로 轉寫한 것도 위의 八思巴字의 경우와 대체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日本語의 o와 u가 각각 'ㅗ'와 'ㅜ'로 轉寫되어 있는 사실도 그렇거니와, ye가 'ㅖ'로 轉寫 되었을 뿐 아니라 ke, te, me, ne, re 등의 e가 'ㅔ' 또

5) 中原音韻에 대해서는 董同龢 1968 참고.

6) 四聲通解 凡例에 支韻에 대하여 "支韻中聲ㅡㅣ 齊韻中聲ㅖ 似合區分矣 然而ㅣ聲諸字與齊 韻俗呼混同無別 則共可區分乎 韻學集成亦相混也 中州音韻亦分ㅡ聲爲一韻 ㅣ聲爲一韻今亦 宜分支韻ㅡ聲爲一韻 ㅣ聲與齊爲一韻則庶乎聲韻分明矣"라 하였다. 中州音韻은 中原音韻의 異稱이다.

는 'ㅕ'로 轉寫된 사실은 八思巴字의 e의 轉寫와 일치하는 것이다.

4-2-5 여기서 東國正韻에 대하여 一言할 필요를 느낀다. 東國正韻은 어디까지나 國語 表記로서의 漢字音 表記 즉 表記(2)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었고 따라서 우리 나라의 傳統的 漢字音이 존중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中國의 漢字音을 충실히 나타내고저 한 表記 (3)과는 절대로 혼동될 수 없는 것이다. 종래의 論著들을 보면 이러한 혼동이 일반적이요, 간혹 그것을 免한 경우에도 中聲에 관해서는 전혀 東國正韻의 特性이 올바로 인식되지 못했었다.7) 가령 東國正韻은 적어도 'ㅗ'와 'ㅜ'에 관한 限 우리 나라의 傳統的 漢字音과 대체적인 일치를 보여 주고 있는데, 종래의 硏究들은 이것을 中國音과 관련시켜서 설명하려 함으로써 正鵠을 얻지 못했던 것이다.8)

우리 나라의 傳統的 漢字音과 東國正韻의 'ㅗ'(가령 銅은 訓蒙字會에 '동', 東國正韻에 '똥')와 漢音의 'ㅜ'(銅은 四聲通解에 '뚱', 蒙古字韻에 tuŋ)와의 對應은 우리의 주목을 끌어 마지 않는다. 中國語 音韻史의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銅'의 母音은 적어도 切韻 이래 [u]였는데9) 이것이 古代에 들어 온 것은 15世紀에 'ㅗ'로 나타나고 當代의 것은 'ㅜ'로 받아들여진 사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古代 이후 15世紀 이전의 어느 時期에 國語에 [u]>[o]의 變化가 있었다고 가정하고 15世紀의 'ㅗ' 'ㅜ'는 각각 [o], [u]를 나타냈다고 추정함으로써만 합리적으로 설명된다. 즉 古代에 [u]로 들어와 傳統化된 漢字音은 그뒤 [o]로 변하여 15世紀에 'ㅗ'로 표기되었음에 대

7) 이 原因은 아마도 東國正韻序가 初聲(字母)이나 終聲에 대해서는 例를 들어 論하면서도 中聲에 대해서는 전혀 言及하고 있지 않은 사실에 있지 않은가 한다.

8) 姜信沆 1964 및 兪昌均 1966 : 555-6 참고. 前者는 'ㅗ'를 [u]로 봄으로써 中國音의 合口의 理論에 맞추려 하였고 後者는 반대로 東國正韻에서 'ㅗ'를 포함한 漢字들이 中國에서 본래 [o]를 가졌었음을 立證하려고 애쓰고 있다.

9) 여기서 詳論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一例로 Karlgren 1954 : 260-261 참고. 이 책의 論證에서는 우리 나라 漢字音의 東韻이 ong인 것이 문제되어 있으나 이것이 古代에는 ung이었다는 우리의 見解에 따른다면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다.

하여 15世紀에는 [u]가 그대로 받아들여져 'ㅜ'로 표기되었다고 보는 것이다.[10]

4-2-6 國語를 外國 文字로 表寫한 代表的인 資料로서 朝鮮館譯語가 있다. 이 책이 보여 주는 漢字에 의한 國語 表寫는 조잡한 것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경향은 찾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李基文, 1968 c 참고).

먼저 'ㅗ'와 'ㅜ'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기로 한다. 편의상 우리의 調査를 開音節에 국한하기로 한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限해서 15·16世紀의 語形을 並記한다.

(오) 今年 我害, 明年 我嫩害, 鴨 我係, 肚帶 我浪 오랑, 衣服 臥思, 來 臥那剌 오나라. (고) 花 果思, 胡椒 果綽, 熊 果門, 綾 果落 고로, 肉果吉, 鷓鴣 果果立賽. (노) 山高 磨那大, 獐 努落 노로. (도) 石 朶二, 猪 朶, 回 朶落你格剌. (로) 綾 果落, 回 朶落你格剌. (모) 樹 那莫, 蕎麥 莫閔, 山 磨一 뫼, 身 磨. (보) 春 播妹, 見 播你. (소) 鹽 所昏, 松所那莫. (조) 粟 在色二, 五拜 打色墨立左雜. (초) 褁 大在. (토) 兎 吐吉. (코) 鼻 課. 象 課吉立.

(우) 天上 哈嫩五會, 井 五悶. (구) 洞 谷母, 鼻孔 課谷母, 湯 谷, 七你谷, 雲 故論. (누) 妹 餒必, 黃 努論必, 眉毛 努色. (두) 二 覩卜二, 仙鶴 杜路米. (루) 碇 必路, 仙鶴 杜路米. (무) 洞 谷母, 鼻孔 課谷母. 問 母勒. (부) 扇 卜冊, 鼓 卜, 筆 卜. (수) 匙 速二, 酒 數本.

이들 漢字의 檢討에서 朝鮮館譯語는 國語의 'ㅗ' 'ㅜ'를 분명히 구별 表寫하였을 뿐 아니라 그 漢字들이 뚜렷한 경향을 보여 주는 사실이 드러난다. 蒙古字韻의 韻類가 가장 간편하고 우리의 目的에 적합하기에 이에 따라 記述하기로 하면 먼저 국어의 'ㅗ'를 위하여 사용된 漢字들은 대부분 歌韻(-o, -u̯o)과 蕭韻(-aw)에 속하는 것들임에 대

10) 15世紀 文獻에 '퉁'(銅)이 나타나는 바, 이것은 中國語 借用語의 하나로서 그 母音이 四聲通解의 그것과 一致하는 점이 注目된다. 이것은 이 단어가 上述한 母音變化(u>o) 이후에 國語에 借用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李基文 1965 참고.

하여 국어의 'ㅜ'를 위하여 사용된 漢字들은 거의가 魚韻(-u, -ü)에 속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注意를 끈다. 이제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蒙古字韻과 四聲通解에서 각각 八思巴字와 正音字로 위의 漢字들의 발음을 적은 것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a) 我 ŋo 어, 臥 o 어, 果 gu̯o 궈, 努 nu 누, 那 no 너, 朶 du̯o 더, 落 law 랍, 莫 maw 맙, 磨 mu̯o 뭐, 播 bu̯o 붜, 所 su 수(今俗音 소), 左 jo 저, 吐 tu 투, 課 k'u̯o 쿼.

(b) 五 u 우, 谷 gu 구, 故 gu 구, 餒 nué 뉘, 努 nu 누, 覩 du 두, 杜 tu 뚜, 路 lu 루, 母 muw 무, 卜 bu 부, 速 su 수(心), 數 šu 수(審).

첫째, (a)에서는 正音 文字의 'ㅗ'와 中國語의 o, u̯o 및 aw의 對當이 절대적임이 드러난다. 이 사실은 'ㅗ'의 音價가 [o]였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의 蕭韻의 aw에 대해서는 '落' '莫' 두 字가 다 現代 中國音으로는 lo, mo로 o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고려에 넣으면 이해가 빠를는지 모른다. 약간의 예외가 있으나 어렵지 않게 설명된다.[11] 둘째, (b)는 국어의 'ㅜ'와 中國音의 u의 對當을 드러내 준다. 여기서는 예외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魚韻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母'와 '餒'가 있다고 하나 蒙古字韻에서 前者는 尤韻에

11) 먼저 '노'와 '努'(nu)의 對當이 그 하나인데 蒙古字韻에서 no를 찾아 보면 '那 儺 奈' 등 몇 字가 발견된다. 그런데 이중 '那'는 가령 洪武正韻譯訓에서는 '너俗音나'로 되어 있고 四聲通解에는 '너'로 表寫하고 注記에 '俗音나 今俗音뇌'라 있으며 실제로 朝鮮館譯語에서는 주로 국어의 '나'를 表寫하는 데 사용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奈'는 또한 佳韻에 속하여 nay로도 발음되었다. 따라서 이 編者들의 발음에서는 국어의 '노'(no)를 表寫할 적당한 文字가 없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 하나의 例外라고 할 수 있는 '所'는 四聲通解에 '今俗音소'라고 明記하고 있으며 飜譯朴通事에는 '소'로 되어 있는 만큼 그 실제 발음은 [so]였던 것으로 推定되므로 例外라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吐'(t'u)는 '兎'項에서 꼭 한번 나타나는데 '토'(t'o)를 표기하기에 더욱 적절한 歌韻字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文字가 택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龍飛御天歌의 다음 地名을 想起케 한다. 兎兒洞 투씻골(7.53). 아마도 15世紀의 국어에 그 分布는 자세치 않지만 兎를 의미하는 단어로 '오'形과 '우'形이 共存했다고 보게 된다. 朝鮮館譯語는 필시 이 '우'形을 表寫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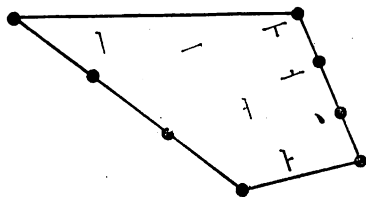
속하며 (muw). 後者는 支韻에 속하여 (nuė) 母音 u를 나타낸 것으로 간주해서 무방한 것이다(이 後者는 粗雜한 表記라고 할 수 있겠다. 이 文字는 "四 餒一"에서는 '녀'를, "菜 餒墨"에서는 '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對當 關係는 15世紀 國語의 'ㅜ'의 音價가 [u]였음을 말해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된다.

朝鮮館譯語에서 國語의 'ㅓ'를 表寫하기 위하여 사용된 중요한 漢字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어 額, 거 格, 더 得, 러 勒, 머 墨, 버 追, 서 色, 허 黑. 이들은 蒙古字韻에서는 모두 佳韻에 속하는 것인데('墨'만은 支韻) 그 音은 매우 定義하기 어려운 것이었던 듯, 四聲通解의 '額'에 다음과 같은 註記가 있음을 볼 수 있다. "俗音읭 蒙韻얘 今俗音엉或영." 이중 '今俗音엉'가 우리의 주목을 끄는데 이것은 現代 中國音을 상기시킨다. 실제로 飜譯朴通事에 보면 '墨' '色'의 左右音은 이미 '허'(上 62) '서'(上 63)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들은 15世紀에 있어서 'ㅓ'가 [ə] 정도의 音이었으리라는 우리의 앞서의 推定을 支持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국어의 'ㅡ'와 'ㆍ'가 어떤 漢字들에 의해서 表寫되었나를 살펴 본다. 第一音節에 있어서 나타나는 例만을 대상으로 한다. (드) 進 得勒, 郊 得勒. (므) 水 悶二. (스) 二十 色悶二. (흐) 天陰 吟嫩黑立大. (ᄀᆞ) 擺齊 格自吉追列 ᄀᆞᄌᆞ기 버려. (ᄃᆞ) 月 得二. (ᄆᆞ) 馬 墨二, 心 墨怎, 梁 墨勒. (ᄉᆞ) 米 色二. (ᄒᆞ) 土 黑二, 一 哈那. 이 漢字들을 보면 '悶', '哈'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에서 'ㅓ' 表寫에 나온 것들이며 더구나 '드'와 'ᄃᆞ', '스'와 'ᄉᆞ', '흐'와 'ᄒᆞ'는 同一字에 의해서 表寫되고 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이 책에서는 '더, 드, ᄃᆞ'의 表寫가 구별되지 않은 것이 된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雞林類事와의 差異다. 類事에서는 'ㆍ'의 表寫는 주로 中國音의 o 또는 a로 이루어졌던 것이다(3-2-9). 그런데 朝鮮館譯語에서

는 'ㆍ' 表寫가 주로 'ㅓ'의 그것과 혼동되었음을 본다. 이 差異는 國語의 母音 推移와 無關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진다(3-3). 'ㅓ'가 前舌母音 [e]인 狀態에서는 이런 혼동은 想像도 할 수 없는 것이다.

4-2-7 15世紀 國語의 母音들의 音價 推定을 위한 위의 작업은 매우 분명한 결론을 가져다 준다. 특히 'ㅗ'와 'ㅜ'가 圓唇 後舌母音으로서 각각 [o], [u]였고 'ㅓ'가 中舌의 [ə]였음을 의심할 수 없게 한다. 여기서 15世紀의 母音들을 母音圖 위에 위치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ㆍ'에 대해서는 종래의 연구를 참작하였다. 李崇寧 1949 참고. 이 母音은 音聲的으로는 'ㅏ'보다도 다소 높은 위치에서 實現된 後舌母音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ʌ]에 가까운 母音이었다는 종래의 추정은 자못 타당한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하여 우리는 15世紀 國語의 母音 體系를 대체로 다음과 같이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편의상 體系(A)라 부르기로 한다.



ㅣ	ㅡ	ㅜ
	ㅓ	ㅗ
	ㅏ	ㆍ

(A)

4-2-7 前期 中世語의 母音 體系는 13世紀에 들어 온 蒙古語 借用語들에 잘 반영되어 있다(Lee, 1964). 그리고 雞林類事의 漢字에 의한 表寫에서도 약간의 암시를 얻을 수 있다.

4-2-8 蒙古語 借用語의 數는 많지 않으나 中世 蒙古語 母音들이 國語의 어떤 母音으로 받아들여졌는가를 확인하기에는 충분하다. 이 借用語들은 15·16世紀에 와서 正音 文字로 표기되었다. 따라서 아래의 記述에서 가량 'ㅗ'라고 한 것은, 정확히 말하면, "15·16世紀의 'ㅗ'에 對應하는 13世紀의 母音"이란 뜻이다.

아래에 이들 借用語에서 확인되는 蒙古語 母音과 正音字의 對應을 表로 나타내고 그 例들을 들기로 한다.

	1	2	3	4	5	6	7
蒙古語	a	o	u	e	ö	ü	i
正 音	ㅏ	ㅗ	ㅗ	ㅓ	ㅝ	ㅜ	ㅣ

(1) aǯirγa→아질개(ᄆᆞᆯ)(兒馬), aγta→악대(䮾), qara→가라(ᄆᆞᆯ)(黑馬).

(2) olang→오랑(肚帶), γodoli→고도리(䮾), šingqor, šongqor→숑골(海青), bora→보라(매)(秋鷹), (3) qula→고라(ᄆᆞᆯ)(土黃馬), turumtai→도롱태(鷂子), sa'uri→사오리(凳), (4) ǯe'erde→졀다(ᄆᆞᆯ)(赤馬), (5) kögsin→궉진(白角鷹), (6) küreng→구렁(ᄆᆞᆯ)(栗色馬), (7) način→나친(鴉鶻), itelgü→익더귀(兎鶻), qarčiγai→갈지게(黃鷹).

위의 表를 4-2-3의 表와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 사이에 현저한 差異가 있음을 발견한다. 무엇보다도 이 表의 2,3의 對應은 o,u에 해당되는 圓唇 後舌母音이 13世紀의 國語에는 하나밖에 없었음을 말해 준다. 이 母音은 [o]보다는 [u]로 추정된다. 6의 對應은 'ㅜ'(정확히는 15世紀의 'ㅜ'에 對應되는 13世紀의 母音)가 非後舌 母音이었음을 말해 준다.[12] 그것은 필시 中舌 圓唇 高母音 [ʉ]에 가까운 母音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의 對應은 'ㅓ'가 13世紀에는 [e]에 가까왔음을 명시해 준다. 한편 5의 對應도, 四聲通解의 'ㅝ'와 비교해 볼 때, 매우 흥미 깊다. 이것은 13世紀에는 'ㅜ'가 中舌母音이었는데 15世紀에는 이것이 後舌母音이 되어 이보다 차라리 'ㅗ'를 擇하게 되었음을 말해 준다.

지금까지의 論議에서는 'ㆍ'와 'ㅡ'가 제외되어 왔다. 사실상 이 두 母音은 蒙古語 借用語에 뚜렷이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 다만 qudurγa 에서 온 '고돌개'(鞦皮)와 onu 에서 온 '오뇌, 오늬'(括)[13]에 'ㆍ'가 보이며 龍飛御天歌의 人名 表記에 蒙古語의 temür(鐵)가 '터믈'(7.21, 7.22) 또는 '터믈'(7.22)로 된 데 'ㅡ'가 보일 뿐이다. 이들 例에서 'ㆍ'와 'ㅡ'가 第二音節에 나타나는 사실과 '오뇌, 오늬' '터믈, 터믈'이 共存하는 사실이 注目된다. 즉 'ㆍ', 'ㅡ'는 第二音節에 있어서의 'ㅗ', 'ㅜ'의 變種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前二者가 後二者와 매우 가까우면서 圓唇性이 적은 것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아 大過 없을 듯하다. 上記의 두 蒙古語 單語가 現代 칼카 方言에서 각각 xudraga, oni 임이 참고된다.

3-2-9 불행히 中國語 音韻史에서 宋代의 音韻이 아직 밝혀져 있지 않아, 雞林類事의 漢字의 用法을 통하여 12世紀 國語의 母音 體系를 밝힌다는 것은 時期尙早인 처지에 있다. 따라서 우리의 檢討는 막연한 암시를 얻는 데 그치지 않을 수 없다.

---

12) 例外로서 蒙古語 tuirun 의 借用인 '뒤곤'(白黃鷹)은 u를 'ㅜ'로 反映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는 蒙古語에서 後續한 i의 영향으로 u가 前舌 쪽으로 끌려 發音된 것을 反映한 것으로 생각된다.

13) 이 蒙古 語單語는 蒙古 文語에 onu, oni 의 兩形이 있다. 그런데 이 單語는 中世 蒙古語(Muqaddimat al-Adab)에는 honi 로 나타난다. 國語의 '오뇌'에 비추어 보아 中世 蒙古語 方言에 *honui 도 있었던 것으로 推定된다. 이것은 語頭에 h를 가졌던 一例인데 이 h가 國語에 받아들여질 때 無視된 것은 자못 흥미 깊은 사실이다. 이것은 中世 蒙古語의 語頭의 h가 國語의 'ㅎ'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너무 미약한 氣音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Poppe 1969 참고.

이 책에서 母音 '丶'의 表寫는 자못 雜多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체로 中國音의 o와 a로 表寫된 사실이 드러난다. 가령 '一曰河屯' (*ᄒᆞ든), '袴曰珂背' (*ᄀᆞ뵈)에서 '河, 珂'는 歌韻에 속하는 字로 中原音韻에서 xo, ko였는데, 이들은 12世紀에 이미 이 母音을 가졌던 듯하다. 이 책의 '索曰那' (*노), '高曰那奔' (*노픈), '黃曰那論' (*노론) 등의 '那'가 이 可能性을 보여 준다. 또 가령 '船曰擺' (*비), '梨曰敗' (*비), '面曰捺翅' (*ᄂᆞᆾ) 등 여러 例에서는 中國音의 a로 表寫되었음을 본다. 아마도 '丶'는 [ɔ]에 가까운 母音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朝鮮館譯語의 傾向과 다름은 위에서(3-2-1) 지적한바 있다.

다음에 15世紀의 'ㅗ'와 'ㅜ'에 對應하는 母音들은 이 책의 表寫에 있어서 구별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가령 '來曰烏囉' (오라)와 '井曰烏沒' (우물), '鹽曰蘇甘' (소곰)과 '炭曰蘇成' (슛) 등의 '烏'와 '蘇'는 'ㅗ', 'ㅜ' 兩音을 표기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책에서는 'ㅗ' 'ㅜ'가 한결같이 中國語의 u로 表寫된 例가 적지 않은 것이다. 例, 石曰突(돌), 客曰孫(손), 身曰門(몸), 眼曰嫩(눈), 珠曰區戌(구슬) 등. 그러나, 이미 위에서 例를 든 '那'와 같은 歌韻字나 '苧曰手施' (*모시), '九曰鴉好' (*아홉) 등의 '毛', '好' 등의 肅韻字들이 'ㅗ' 母音 表寫에 사용된 사실이 주목을 끌기도 한다. 이것은 'ㅗ' (즉, 15世紀의 'ㅗ'에 對應하는 12世紀의 母音)가 中國語의 u보다는 다소 낮게 발음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表寫가 모두 'ㅗ'에 一貫性있게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이것을 지나치게 重視할 것도 아닌 듯이 느껴진다.

4-2-10 이제 주로 蒙古語 借用語의 檢討에서 얻은 結果에 雞林類事의 檢討에서 얻은 약간의 암시를 더하여 前期 中世語의 母音 體系를 再構해 보면 表 (B) (C)와 같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두 體系

는 'ㅓ'의 위치를 달리 잡아 본 것이다(앞으로 便宜上 左圖를 體系 B, 右圖를 體系 C라 부르기로 한다). C는 體系的 考慮에 치우친 것이다.

ㅣ	ㅜ	ㅗ	ㅣ	ㅜ	ㅗ
ㅓ	ㅡ	ㆍ		ㅡ	ㆍ
	ㅏ			ㅓ	ㅏ
	(B)			(C)	

i를 빼놓고 後舌과 中舌의 相關이 성립되어 있다. B는 12·13世紀에 있어서의 'ㅓ'의 位置를 보다 現實的으로 잡아 본 것이다. 雞林類事는 확실치 않으나 蒙古語 借用語는 어느 편인가 하면 體系 B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3 古代語의 母音 體系의 再構는 바로 위에서 본 前期 中世語의 母音 體系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길과 古代 資料를 檢討하는 길이 서로 마주치는 점을 찾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여기서 古代 資料의 檢討가 一次的인 重要性을 지니는 것인데, 이 방면에는 아직 믿음직한 성과가 매우 적다.

종래 알타이諸語와의 比較 硏究에서 國語도 어느 먼 段階에 두 개의 i(즉, *i와 *ï)를 가졌었을 可能性이 제기되어 왔다(Ramstedt 1957, 金完鎭 1965) 中世語에서 敬語法의 先語末 語尾 '-시-'가 언제나 副動詞 語尾 '-아'를 가지는 사실에서 이것이 古代에 -*sï-가 아니었을까 하는 推想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河野六郞 1968 : 207). 우리는 이 先語末 語尾가 古代에 '賜'字로 表記된 사실에서 이 推想을 다소 强化할 수 있을 듯하다. '賜'는 吏讀에서 '샤'로 읽고 있으나 이것이 古代的 讀法이라 하기는 어렵다(古代의 '-샤-'가 中世의 '-시-'로 변화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이다). 鄕藥救急方의 "郁李人 山叱伊賜羅次"에서 이 文字가 '이스랒'(杜詩諺解 15.20), '이ᄉᆞ랒'(飜譯朴通事 上 4)의 '스' 또는 'ᄉᆞ'를 표기하고 있음은 그 古代的 用法을 보여 주는 듯하

다. 한편 處容歌의 "明期"의 '期'의 使用은 *ï 再構의 可能性을 보여 주는 듯이 느껴진다. 이 경우는 後舌 母音 語幹에 接尾辭도 역시 後舌의 -*ï 가 붙었다는 假說을 세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ï 를 再構할 만한 根據는 아직은 너무나 빈약하다.

中世語의 'ㆍ'에 對應되는 母音이 상당한 圓脣性을 지니고 있었음을 示唆하는 듯한 例들이 있다. 가령 處容歌의 '脚烏'는 '*가ᄃᆞᆯ'을 表記한 것인데[14] '烏'(u)가 사용된 사실이 주목된다. 그리고 "波珍飡 或云海干"(三國史記 38)의 '波珍'은 '*바ᄃᆞᆯ'(海)을 表記한 것인데 이 '珍'은 특이한 釋讀字로서 'ᄃᆞᆯ'(tur)로 읽히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暫定的으로 'ㆍ'에 對應하는 古代 母音은 [ɔ]로 추정해 둔다.

古代語 母音 體系에 대한 現存 最大의 資料는 東音(우리 나라의 傳統的 漢字音)이다. 이것은 本質的으로 우리가 中世語의 母音 體系 硏究에서 이용한 蒙古語 借用語와 거의 같은 性格을 가진 것이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것은 대체로 8世紀頃의 母音 體系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硏究는 古代語의 母音 體系가 위에서 우리가 再構한 前期 中世語의 그것과 대체로 一致함을 보여 주었다(河野六郞 1968). 東音의 'ㅗ'와 'ㅜ'가 각각 中國音의 u, i̯u를 주로 반영하였음은 古代語에서도 이들이 後舌과 中舌의 圓脣 高母音이었음을 의심할 수 없게 한다. 古代의 漢字借用 表記法에 있어서의 '烏', '于'의 用法도 이러한 結論을 支持해 준다(李崇寧 1955). 이들은 각각 中世語의 'ㅗ', 'ㅜ'에 對應되는 母音 表記에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ㅓ'가 中國音의 ä를 주로 반영하였음은 古代語의 母音體系가 앞서 (4-2-7) 前期 中世語에서 再構한 體系c와 비슷한 것이었음을 추정케

14) 종래 高麗時代의 處容歌대로 '가ᄅᆞᆯ'로 읽어 왔으나 再考되어야 한다. 이것은 '*ᄒᆞᄅᆞᆯ<*ᄒᆞᄃᆞᆯ'(1日). '바ᄅᆞᆯ<*바ᄃᆞᆯ'(海)과 같은 變化를 겪은 것이다. 中世語의 'ᄒᆞᄅᆞ/ᄒᆞᆯᄅ'의 交替는 '*ᄒᆞᄅᆞᆯ'을 再構케 하는데 이것은 *hɔt(l)과 *ɔr로 이루어진 것으로 推定된다. *ɔr에 대해서는 '이틀, 사ᄋᆞᆯ, 나ᄋᆞᆯ, 열흘' 참고.

한다. 다만 위에서 제기한 '丶'(및 '一')의 圓脣性의 可能性에 대해서는 東音에서 유리한 지원을 바랄 수가 없는 듯하다. 즉 東音에서 '丶'는 주로 中國音의 ə, '一'는 주로 中國音의 ɨə의 반영이라고 한다. 앞으로 좀 더 면밀한 연구가 요망된다.

4-4 위의 叙述을 종합해 볼 때, 國語 母音 體系의 歷史上 最大의 事件이라고 할 수 있는 母音 推移는 13世紀 以後 15世紀 以前, 그러니까 대체로 14世紀에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古代의 體系 C가 前期 中世에 와서 사실상 體系 B로 되었었는데, 이 體系 B와 後期 中世의 體系 A 사이에 그 推移가 일어났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 推移는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일까. 그 端初는 體系 B에서 'ㅓ'가 中舌 쪽으로 움직인 데 있지 않나 생각된다.[15] 이 中舌化에 밀려 '一'가 위로 움직이고 이 압력으로 'ㅜ'가 後舌로 움직이게 되었을 것이다. 'ㅗ'는 다시 'ㅜ'의 압력으로 아래로 움직이게 되고 마지막으로 '丶'가 더욱 아래로 밀리게 되었을 것이다. 이 連鎖的 反應은 하나의 미는 사슬(推進鎖, push-chain)이었던 것이다.[16] 이렇게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丶'의 不安定性이다. 즉 이 母音은 後日 그 獨自性을 잃게 되는데, 이것은 요컨대 사슬의 맨 끝에서 궁지로 밀렸기 때문이었다. 만약 '丶'가 보다 안정된 위치를 찾아 내려 간 것이 端緖가 되었다면, 그리하여 위에 말한 것과는 반대의 당기는 사슬(牽引鎖, drag-chain)이었다면, '丶'의 變化는 結果될 리 萬無할 것이다.

---

15) 年前에 Yidamjab 씨(워싱턴大學, 시아틀)에 대하여 그의 蒙古語(차칼方言)를 調査한 바 있는데, 同 方言에서 國語의 경우와 흡사한 母音推移가 일어났음을 確認한 바 있다. 차칼方言의 母音體系와 칼카方言의 그것을 비교해 보는 것은 우리의 體系 B와 體系 A를 비교하는 것과 흡사하다. 차칼方言에 있어서의 母音 推移의 端初도 [e]>[ə]에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칼카方言의 母音體系에 대해서는 Street 1963 : 47 참고.

i	ʉ	u		i	ʉ	u
e	θ	o			ə	o
	a				a	ɔ
(칼카)				(차칼)		

16) 音韻 體系 특히 母音 體系에 있어서의 連鎖的 推移에 관한 理論은 Martinet 1955 : 48 以下 참고. Push-chain과 drag-chain은 佛語로는 chaînes de propulsion과 chaînes de traction.

4-3 近代國語의 母音

鄭 然 粲

國語 母音體系에 대한 연구는 많은 경우 中世 後期, 즉 訓民正音 制定 당시가 그 時期的 중심이자 出發點이 되어 있고, 이를 先後하여 위로 그 이전의 母音體系에 대하여 言及하기도 하고 아래로 近代國語의 母音體系 내지는 現代國語의 母音體系까지가 대조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생각컨대 이는 15世紀의 훌륭한 자료가 주는 편의와 ㆍ音의 變化, 母音調和의 변화와 같은 흥미있는 課題가 這間의 연구열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미 이루어진 훌륭한 業績들이 밝혀낸 바 事實이 결코 적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나, 한 문제가 밝혀지면서 보다 어려운 문제가 이어서 제기되어 온 듯함도 사실이라 할 것이다. 이제 近代國語 母音에 대한 한 두가지 문제를 논의하려함에 있어서, 이미 이루어진 이들 業績들 중에서 중요한 몇몇을 음미하여 이들 業績들이 밝혀낸 바에 대하여 敬意를 표하는 동시에 거기에 이어서 제기되는 새로운 問題點을 지적하여 이 논의의 出發點을 삼는 것도 무방할 듯하다.

4-3-1 高低對立의 母音體系

15世紀 國語의 母音體系에 대한 연구는 1947년경에 軌道에 올라선 듯하다.[1] 이 무렵의 연구는 「ㆍ」字의 音價推定과 母音調和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訓民正音 制字解의 「中聲凡十一字」에는 「ㆍ」字가 基本字 중에서도 그 首位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現代의 우리는 이 文字를 잃은지 오래였으니, 이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도 먼저 일어났음

1) 李崇寧：母音調和硏究, 震檀學報 16, 1947.
　＿＿：朝鮮語音韻論硏究 第一集「ㆍ」音攷, 1949.

은 당연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ㆍ」字의 音價는 아·오의 間音 [ʌ]일 것으로 추정되고, 十一字의 中聲 중에서도 再出字 四字를 제외한 七字가 표시하는 音이 그 당시의 母音의 基本 單位임이 밝혀졌다. 이 基本 七母音은 다시 解例의 설명과 당시의 표기가 보여주는 母音調和 現象 등을 근거로 면밀한 검토를 거친 끝에, 그 體系가 低母音(ㅏㆍㅗ)과 高母音(ㅓㅡㅜ)의 兩系列의 대립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혀냈던 것이다. 즉 ㅏ對ㅓ, ㅗ對ㅜ, ㆍ對ㅡ와 같은 對立의 짝을 이루는 것으로 믿어졌다.

그런데 解例 制字解의 설명은 이들을 현재의 우리와 같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ㆍ·ㅡ·ㅣ 基本 三字에 대하여는 「舌縮而聲深, 舌小縮而聲不深不淺, 舌不縮而聲淺」과 같이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나머지 두짝, 즉 ㅏ對ㅓ, ㅗ對ㅜ에 대하여는 직접 비교하여 설명하지 않고, ㆍ와 ㅡ를 각각 基準하여 「口蹙·口張」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다. 이 설명만 가지고는 ㅏ가 어떻게 ㅓ와 대립하는지 혹은 ㅗ가 어떻게 ㅜ와 대립하는지 쉽게 알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당시의 ㆍ字를 제외한 나머지 六母音은 現代國語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었으리라는 前提下에, ㅏ對ㅓ, ㅗ對ㅜ, ㆍ對ㅡ가 각각 開口度에서 低對高의 對立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우리들의 해석은 두어 가지 새로운 의문을 제기시켰던 것이다.

첫째, altai諸語 내지는 altai祖語의 母音體系와 우리가 세운 15世紀 國語의 그것이 對立의 性質에 있어선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altai祖語의 母音體系는 前後對立을 特徵으로 함에 대하여, 우리가 세운 體系는 高低對立이었던 것이다.[2)]

前後對立과 高低對立이라는 이같은 不一致는 자연 國語 母音體系에

2) Ramstedt: Remarks on the Korean language, p.211, Mémoires de la Société Finno-Ougrienne 58 : 1928.

一大推移가 있었으리라는 假說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같은 推移의 時期는 대개 15世紀 以前에 있었을 것으로 믿어지고 있었으나, 그 시기의 확정도 보지 못한 채 그에 따른 더욱 많은 問題, 가령 그 原因 등과 같은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15世紀의 母音體系를 前述한 바와 같이 高低對立으로 파악하였던 것이 과연 옳았던가, "ㆍ"에의 關心에 偏重되었던 것이 아닌가와 같은 또 하나의 疑問도 그 후에 이어서 대두되었던 것이니, 이 의문도 國語의 母音體系가 祖語의 前後對立과 같은 性質의 대립이어야 할 것을 전제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4-3-2 前後對立의 母音體系

1963年에 발표된 金完鎭 教授의 「國語母音體系의 新考擦」(震檀學報 24)은 已往의 研究가 안고 있었던 叙上한 바 의문들에 도전하는 새롭고도 진지한 노력의 하나였다고 믿어진다. 이 論文이 가장 힘들여 主張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 結論의 주요한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訓民正音」의 記錄을 충실히 따르건대 15世紀 國語의 七母音體系는 그 構造가 종전에 이해되던 것과는 상당히 달라진다. '이'만을 局外者로 하여 성립되는 相關的 對立은 高母音 對 低母音의 對立이 아니요, 中舌母音 對 後舌母音의 對立이 아니면 안 된다. 15世紀에 있어서만이 아니고, 國語는 그 全歷史를 통하여 한 번도 高母音 對 低母音의 相關的 對立을 가져본 일이 없다…… 同一한 '우', 同一한 '오'라 하더라도 現代語에 와서는 現代語에서와는 다른 위치를 가졌었다 함이 出發點을 마련했다.

이 일부의 결론은 대개 3가지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듯하다. 그 하나는 15世紀 母音體系는 中舌 對 後舌의 前後對立이다함이요, 그 다른 하나는 「오·우」의 15世紀 音은 現代와 다르다는 것이요, 그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訓民正音」의 記錄을 충실히 따른 論理的 귀결이었음을 밝혀 주고 있다. 우리는 이 충격적인 주장을 좀더 차분히 傾聽하고 음미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먼저 이 主張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던 것은 「訓民正音」 制字解였던 것이다.

ㆍ 舌 縮 而聲 深——
ㅡ 舌小縮 而聲不深不淺——
ㅣ 舌不縮 而聲 淺——
ㅗ 與ㆍ同 而口蹙——
ㅏ 與ㆍ同 而口張——
ㅜ 與ㅡ同 而口蹙——
ㅓ 與ㅡ同 而口張——

이 記錄은 종전의 ㆍ音價 추정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바, 바로 그 기록이다. 「舌縮 · 舌小縮 · 舌不縮」을 舌位(localisation de la langue)로 해석하고, 「口蹙 · 口張」을 開口度(degré dáperture)로 해석하는 것도 종전의 견해에서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종전의 ㆍ音의 位置 推定에서, 「舌縮」에 의하여 위치를 後舌에 세우게 되었고, 다시 口張한 ㅏ보다는 높게, 口蹙한 ㅗ보다는 낮은, 중간에 ㆍ를 서게 하였던 것은 金完鎭 敎授의 이 主張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유효하였던 것이다. 다만 이같은 制字解의 記錄이 어찌하여 「으우어」 系列에 대하여는 一貫하여 적용되지 않고, 그것들만 現代國語의 音價와 다를 것이 없었으리라는 전제를 가졌었더냐는 주장인 것이다. 참으로 周到綿密한 논리적 귀결이라 아니할 수 없을 듯하다. 이리하여 從前의 推定圖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 정확히 前後 對立을 이루게 되고, 相關關係 舌縮系列이 首位에 있다하였으므로, 小縮을 徵表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일관된 해석에도 몇 가지 의문은 계속 남아 있는 것

舌 不 縮	舌 小 縮	舌 縮	舌位 / 開口度
聲 淺	聲不深不淺	聲 深	
이	우	오	口 蹙
( )	으	ᄋᆞ	
	어	아	口 張

으로 보인다. 「舌不縮 · 舌小縮 · 舌縮」을 現代音韻論의 舌部位와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 아무런 瑕疵가 없는 것인가? 「口張 · 口蹙」을 開口度로 해석하는 것은 아무런 모자람이 없었는가? 「ᄋᆞ · 으 · 이」는 「縮 · 小縮 · 不縮」으로만 설명하였으니, 이들 三母音은 開口度에서 差異가 없었던가? 만약 開口度에 差異가 있었다면 왜 「訓民正音」에서 그것은 지적되지 않았을가. 「ᄋᆞ · 으」을 같은 開口度로 해석한다면 「이」도 이들과 같은 開口度로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3] 즉 「이」는 蹙位에 서게 되어, 「으 · ᄋᆞ」와 다르니, 解例의 說明에 보다 충실하려면 ( )에 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밖에 새로운 推定圖가 보여 주는 15世紀의 母音音價를 實證하는 일과 그것이 現代國語에서와 같은 音價로 변화하는 과정과 시기 등에 대한 문제 등이 남게 되는데 이 두어 가지 문제에 대하여는 此下에서 한번 더 논의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몇 가지 남아 있는 疑問에도 불구하고 이 論文의 이 部分만으로도 國語 母音體系의 理

3) 「舌縮 · 口張」 등과 같은 術語에 대한 해석은 이밖에도 이미 다른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許 雄 : 國語音韻學, pp. 303~316.
李基文 : 國語音韻史硏究, pp. 101~103.

解에 새로운 方向 提示를 하였다 아니할 수 없을 것이며, 그 一步 前進의 意味를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믿는다. 國語 母音 體系에 어느 時期엔가 前後對立이 있었다면 金 敎授의 이 推定에서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4-3-3 「오·우」의 音價實證

1972年에 우리는 또 하나의 빛나는 硏究 業績을 가지게 된다. 李基文 敎授의 「國語音韻史硏究」(韓國文化硏究叢書 13)가 그것이다.[4)]

李基文 敎授가 母音體系를 밝혀 나가는 出發點은 우선 15世紀 國語의 각 中聲字들의 정확한 音價를 實證하는 일에 있었다. 이는 前述한 바, 「訓民正音」의 記錄을 충실히 따랐던 것과 대조적인 또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李 敎授가 이같은 방법에서 출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강조되어 있다.

> 다시 말하거니와, 解例의 說明은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現代的 觀點에서의 解釋은 자칫 我田引水가 되기 쉽다. 우리는 도리어 解例의 올바른 해석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 자료를 통해 15世紀에 있어서의 中聲字들의 音價를 밝혀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낀다(p.103).

우리는 李 敎授의 이같은 주장에 異議를 내세우기 어려워 보인다. 우리는 그 實證을 주의 깊게 들어 보아야 할 것 같다. 그 實證 作業은 〈外國語를 正音文字로 表寫한 資料와 國語를 外國文字로 表寫한 資料〉를 가능한 限 동원하여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그것을 일일이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正音文字와 八思巴字의 對應을 수립하고, 漢音의 觀點에서 蒙古韻略과 四聲通解의 表寫를 검토하고, 伊路坡에서 日本文字를 正音文字

---

4) 이 著書는 그 題目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國語音韻의 거의 모든 問題를 包括하고 있지마는 여기서는 다만 母音 문제에 한하여, 그것도 부분적으로만 언급하게 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일 것이다.

로 轉寫한 경우를 살피고, 朝鮮館譯語의 漢字에 의한 國語 表寫 등을 두루 조사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러 있다.

> 특히 'ㅗ'와 'ㅜ'가 圓脣後舌母音으로서 각각 [o], [u]였고 'ㅓ'가 中舌의 [ə]였음을 의심할 수 없게 한다. ……15世紀 國語의 母音體系를 대체로 다음과 같이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
>
> ㅣ ㅡ ㅜ
> ㅓ ㅗ
> ㅏ ㆍ (A) (p.111)

이 推定圖(A)에서 ㆍ字를 제외한, 나머지 中聲字들의 音價는 現代國語에서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다. 즉 이들 中聲字들의 音價는 15世紀 이래 現在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없는 것이 된다. 15世紀의 母音體系를 이 推定圖와 같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유력한 資料에 의하여 철저한 檢證을 겪은 연후에 조심스럽게 수립된 이 推定圖를 경솔히 의심하는 것도 지나치다 하겠거니와 아무런 의심없이 동조하는 것은 오히려 待接이 아닌 듯도 하다. 이에 의문 아닌 의문을 하나쯤 붙혀 두기로 한다. 15世紀 母音體系가 이 推定圖와 같은 것이 확실하다면, 訓民正音 解例의 記錄은 좀 의심스러워 보인다. 解例의 記錄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고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推定圖에서 보면 의심스러워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시 이 推定圖는 從前의 推定圖(李崇寧, 1949)에서 音의 위치를 조금 뒤로 물려 조정되었으나, 크게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면 從前의 推定圖가 對立關係의 설명이 어려웠던 것으로 지적되어 왔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推定圖도 역시 對立關係의 설명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推定圖도 여전히 高低對立으로 보았던 것일까.

母音調和가 보여주는 體系가 母音體系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을 지적한 것은(李基文, 1968c, 1969) 근래의 커다란 수확이었다고 할 것이다. 訓民正音의 記錄은 오히려 당시의 母音調和 現象과는 합치하고 있으므로 이같은 사실의 지적은 15世紀 母音體系를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운 장애 하나를 제거했던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다만 母音調和는 出發에 있어서는 당시의 母音體系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적어도 그 당시에는 兩者가 합치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推理가 가능한 것이라면, 이같은 사실이 어느 시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떠한 경과로 15世紀에서와 같은 不一致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不一致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등이 더욱 자세히 밝혀져야 할 새로운 과제로 남아 있지 않나 생각된다.

4-3-4 母音推移의 時期

母音推移의 시기에 대하여도 서로 다른 유력한 두 견해가 있다. 이 두 견해의 差異는 15世紀 母音體系를 前述한 바와 같이 서로 다르게 보는데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訓民正音 中聲字들의 音價를 現代國語의 그것과 다르다고 하면 그 推移의 時期는 자연 訓民正音 制定 이후의 어느 시기에 두어야 할 것이니, 〈1618년에서 1781년 사이에 事態의 本質的 變化가 생겼을 것이 推想되니〉 〈편의상 1750년 경을〉 경계로 近世와 中世를 가르기를 제의하고 있다. 이를 우리는 편의상 18世紀 (推移)說이라고 불러도 좋을 듯하다. 한편 訓民正音 中聲字의 音價가 現代와 같음을 실증하고 母音調和 現象과 母音體系의 不一致를 감안하는 견해는 그 推移의 시기가 14世紀임을 확인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14世紀 (推移)說이라고 불러도 좋을 듯하다. 14世紀說과 18世紀 說이 어느 쪽이 더욱 그럴 듯할까. 14世紀說과 18世紀說이 동시에 다 같이 정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둘 중의 하나가 보다 그럴 듯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그것이 어느 쪽인

가를 결정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같다. 두 견해가 다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訓民正音 中聲體系의 解釋과 實證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推移 時期를 하필이면 14世紀와 18世紀로 정하는 데는 또 다른 각각의 근거가 있었던 것이다.

4-3-5 推移의 始末

14世紀說이 보여주는 推移의 始末은 蒙古語 借用語와 鷄林類事의 表寫 등을 檢討 實證함으로써 前期 中世語의 母音體系가 다음과 같은 體系(B)로 再構된다.

```
ㅣ  ㅜ  ㅗ
ㅓ  ㅡ  ·        (p. 114)
   ㅏ     (B)
```

體系 B는 前記한 바, 體系 A와 다르다. 體系 B에서 體系 A로 바뀌는 것이다. 그 바뀌는 樣相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 그러면 이 推移는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일까. 그 端初는 體系 B에서 'ㅓ'가 中舌 쪽으로 움직인데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 中舌化에 밀려 'ㅡ'가 위로 움직이고, 이 압력으로 'ㅜ'가 後舌로 움직이게 되었을 것이다. 'ㅗ'는 다시 'ㅜ'의 압력으로 아래로 움직이게 되고 마지막으로 '丶'가 더욱 아래로 빌리게 되었을 것이다. 이 連鎖反應은 하나의 미는 사슬(推進鎖, push-chain)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가장 중요한 理由는 '丶'의 不安定性이다. 즉 母音 丶는 後日 그 獨自性을 잃게 되는데 이것은 요컨대 사슬의 맨 끝에서 窮地로 밀렸기 때문이었다. 만약 '丶'가 보다 안정된 위치를 찾아내려 간 것이 端緖가 되었다면, 그리하여 위에 말한 것과는 반대의 당기는 사슬(牽引鎖, drag-chain)이었다면, '丶'의 變化는 結果될 리 萬無할 것이다.5)

한편 18世紀說은 'ㆍ'音의 段階的 變化와 그 繼起的 時期에 重點

5) '어'가 中舌 쪽으로 움직이는 原因은 분명하지 않다. '아'는 連鎖에서 움직이지 않는가.

을 두고 있는 듯하다.

第一次의 變化, 즉 'ᆞ>으'의 結果는 相關的 對立을 이루던 'ᆞ'와 '으' 사이의 對立의 消滅, 즉 中和를 의미한다. 다른 條件의 關與가 없었다면 이 現象이 더욱 확장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때에 [1618~1781 사이의 어느 時點] '으'의 閉母音化와 '으'에 밀린 '우'의 後舌化라는 현상이 일어났고 따라서 '오'는 現代語에서와 같은 위치로 더욱 밀려 내려왔을 것이며, 그 連鎖作用으로서 'ᆞ'는 좀더 低母音化했고, '아'는 中舌音化의 길을 떠났을 것이다. 즉 이때쯤 되면, 'ᆞ'의 音價는 [a]에 가까왔을 것이요, 이럼으로써 이미 [ɨ]의 音價를 가지게 된 '으'와는 아무 친근한 對立 關係도 가질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새로이 中舌化된 '아'와 밀접한 對立 關係를 가지게 되어, 여기서 音韻 'ᆞ'의 消滅의 後半期가 '아'와의 關聯下에 이루어지는 樣相을 띠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6)(p. 27)

이 두 見解는 그 시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始末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몇 가지를 條目別로 정리하여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두 說이 다 함께 ᆞ音의 변화와 깊은 관련을 가지는 것은 같은 점이다.

둘째, 두 說이 推移를 push-chain 으로 보는 것은 같은 점이다.

세째, 14世紀說이 推移의 端初를 前期 中世語의 'ㅓ'의 中舌化에 두고 있는데 반하여, 18世紀說은 1618~1781 間의 '으'의 閉母音化에 둔다. 中舌化와 閉母音化의 原因에 대하여는 兩者 모두 분명한 言及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네째, 14世紀說의 推進鎖는 'ᆞ'를 사슬의 맨 끝에 두고 있는데, 18世紀說은 '아'를 사슬의 맨 끝에 두고 있다.

다섯째, 14世紀說은 '아'를 連鎖의 밖에 둔 듯한데, 18世紀說은 '어'를 連鎖의 밖에 둔 듯하다.

---

6) '어'가 이 連鎖에서 어떻게 되는지 언급이 없다.

여섯째, 14世紀說은 'ᆞ>ㅡ, ᆞ>아를 他母音에의 「合流」로 보는데, 18世紀說은 ᆞ>으를 「中和」로, ᆞ>아는 새로운 對立 關係를 가졌다가 소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合流」의 두 段階 間에는 體系上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나, 「中和」의 두 단계에서는 체계상의 변화를 두고 있다.

일곱째, 두 說은 共히 왜 두 단계가 각각 그렇게 변화했느냐에 대해서 그들의 見解대로 설명하고 있으나, 왜 두 단계가 있었느냐와 왜 非語頭音節에서 시작하였느냐에 대하여는 묻지 않고 있다.

母音推移에 대한 이 두 견해는 그 시기와 그 始末이 서로 다르기는 해도, 國語 母音體系의 史的 發達에 대한 거의 모든 문제를 包括 解決코자 한 중요한 노력이었다는 점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 古代 中世 近世의 母音體系가 여기에 모두 直接 間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두고 두고 이들 견해를 음미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이들 見解 間의 差異를 이 자리에서 모두 다 검토하기에는 좀 벅찬 感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 중, 近代 母音體系에 커다란 관계를 가진 ᆞ音의 단계적 변화에 대하여만 좀더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4-3-6 ᆞ音의 消滅過程

ᆞ音 消滅의 第一段階는 15世紀에 시작하여 16世紀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李基文, 1959). 이 第一 段階가 일어난 위치는 非語頭音節이니, 이 위치에 있던 ᆞ音은 消滅되고, 그 자리에 으音이 들어서서 代身하게 되었다. 이는 종래에 ᆞ>으와 같은 公式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1960年代 이래 「中和」로 보기도 하고 「合流」로 보기도 한다 함은 前述한 바이다.

18世紀說이 이 변화를 中和로 보는 것은 이 변화의 일어난 위치보다는 그 시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 例外的이기는 하나 이 시기에

일어난 變化는 語頭에서도 ㆍ>으와 같은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라 하였다(金完鎭, p.27). 18世紀說이 ㆍ音 消滅 第一 段階에 대하여 이렇게 그 위치보다는 시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시기에는 아직 母音推移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18世紀 母音推移說은 16世紀 當代에 完成된 ㆍ音 消滅 第一段階와는 自然 관계가 있을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ㆍ>으의 변화는 合流일 수 없고 中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견해는 ㆍ>으라는 변화의 방향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대립된 ㆍ~으는 中和의 好條件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中和는 왜 일어났을까? 대립된 아~어와 오~우는 제쳐 두고, 그것도 主로 非語頭 位置에서 唯獨 ㆍ~으 間에만 中和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같은 의문에 대한 해답은 18世紀說이 미처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中和로 보는 견해가 더욱 유력해지려면, 언젠가는 이 해답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면 14世紀說은 ㆍ音 消滅 第一段階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 非語頭 音節에서 'ㆍ>ㅡ'의 變化는 母音推移에 의하여 結果된 'ㆍ'의 不安定性과 語尾의 單一化 傾向이 共同으로 빚어낸 것으로 생각된다(p.120).

14世紀說이 第一段階 變化에 대하여 보여준 이 설명은 매우 明快하여 보인다. ㆍ音 消滅의 要因이 第一次的으로는 ㆍ音만이 안고 있던 그 不安定性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唯獨 「으」에로의 變化方向은 語尾의 單一化 傾向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다시 그것이 非語頭에서 일어나게 된 理由까지를 含意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語尾의 出現 位置가 語頭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說은 참으로 그럴 듯해 보인다. 그러나 다시 가만히 생각하여 보면 이 說에도 多少의 難點은 있어 보인다. 그 첫째는 이미 18世紀說에서 지적되었

던 것과 같이, 例外的인 語頭에서의 變化도 이 시기에는 역시 이 第一段階에서의 ㆍ>으와 같은 방향이었다는 점과 둘째로 非語頭 位置의 ㆍ가 모두 語尾 境界 內에 포함될 수 없으며, 세째 ㆍ音의 不安定이 하필 非語頭 位置만을 擇하여 작용할 수 없으리라는 점과 네째 18世紀說의 指摘과 같이 ㆍ>으의 變化 方向이 계속 확대되어 왜 다음 시기에까지 미치지 않았는가 하는 점 등이 아닐까 한다. 여기서 둘째번의 난점을 「合流」라는 表現이 그것을 다소 緩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緩和되는 것은 변화의 방향이지 그 部位는 아닐 듯하다. ㆍ音의 不安定性을 ㆍ音 消滅의 2段階에 다 같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면, 第一段階의 變化 方向이 그대로 더 확대되었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18世紀說의 指摘과 相馳되는 듯하다.

이러한 多少間의 難點에도 불구하고 14世紀說이 제시한 바, ㆍ音의 第一段階 消滅에 대한 이 설명은 현재까지 제시된 바 어느 설명보다도 좀 더 많은 매력을 지니고 있는 듯이 보인다. 우리는 多少間이라도 이 說을 더욱 강력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실 발견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筆者는 이 ㆍ音 消滅의 第一段階가 혹 聲調消滅의 過程과 무슨 관계가 없을까를 의심한다. 筆者가 이같은 의심을 제기하게 되는 前提條件은 前述한 바 14世紀說에 크게 의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검토한 14世紀說에 대한 筆者의 이해가 이보다 먼저 정당하여야 할것이 요청되므로 14世紀說에 대한 筆者의 理解를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한 번 더 明示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ㆍ音이 사슬의 맨 끝에서 궁지에 몰려 不安定 狀態에 있었던 시기는 이미 14世紀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音이 소멸될 때까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본다. 그에 더하여 ㆍ音을 제외한 나머지 6母音은 계속 안정된 상태에 있게 되었다.

둘째, 〈窮地〉라는 表現은 推定圖 A에서의 位置 表示와 같이 ㆍ音이 아, 오와 더불어 충분한 間隔유지가 쉽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세째, 〈語尾의 單一化 傾向〉이 ㆍ音 消滅에 공동으로 작용하였다는 것도 계속하여 유효한 것으로 보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非語頭音節의 位置가 이 傾向으로 모두 가려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네째, 〈合流〉는 종래의 ㆍ>으와 거의 같은 표현이나, 대체된 으속에 ㆍ의 要素가 合쳐졌다는 뜻이 아니고, ㆍ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으가 들어앉게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렇게 보면 ㆍ에서 변한 으와 본래부터의 으와의 合流라는 表現과는 結果에서만 같다.

이제 ㆍ音의 消滅 過程에 대한 筆者의 未熟한 見解를 덧붙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ㆍ音의 第一段階 消滅과 第二段階 消滅 사이에 18世紀說과 같은 體系上의 變化를 인정하지 않고, 14世紀說과 같이 ㆍ音의 不安定性이 계속되었음을 인정한다면, 第一段階가 ㆍ>으의 방향으로 변한 이유는 〈語尾의 單一化 傾向〉에 돌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나, 그것이 하필 非語頭 位置에서 시작되고, 계속하여 확대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못하는 듯하다. 그러므로 이 第一段階 消滅의 설명에는 이 두 가지 점이 다소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보완 설명하는데, 聲調의 消滅 過程이 간섭하였으리라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ㆍ音 消滅過程과 聲調 消滅 過程은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듯하다.

첫째로 ㆍ音 消滅 過程과 聲調 消滅 過程은 進行 方向이 유사하다. ㆍ音이 非語頭 位置에서 시작하여 語頭 位置에서 끝나는 것은 聲調가 語末 平聲化, 즉 語末에서의 去聲의 소멸에서 시작하여 語頭에서 끝났던

것과 비슷하다.

둘째, ᄋᆞ音 消滅과 聲調 消滅은 시기에 있어서도 거의 一致를 보여주고 있다. 語幹聲調가 변화를 입지 않은 시기에는 ᄋᆞ音의 第二段階變化가 일어나지 않는다. 語幹聲調의 維持가 곧 ᄋᆞ音 第一段階 變化의 語頭쪽에로의 확대를 방지한 유력한 요인의 하나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또 ᄋᆞ音의 變化에 두 단계가 있게 되는 요인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째, 聲調 消滅이 機能 負擔量과 관계 있었듯이 ᄋᆞ音의 消滅도 그것과 관계 있어 보인다. 즉, 語末聲調의 機能負擔量이 零에 가까왔으므로 특별히 주의하여 實現되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고, 이같은 傾向이 차차 一般化되었다고 보겠는데 語末이 아닌 形態部의 聲調라 하더라도 그 기능이 語幹聲調에 비하면 語詞 聲調型을 완결지우는 정도 이외 별다른 기능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니, 聲調 消滅의 第一段階가 形態部에 먼저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ᄋᆞ音 消滅의 第一段階가 주로 非語頭 位置에 하필 먼저 등장하는 이유도 〈ᄋᆞ音의 不安定性과 語尾의 單一化 傾向이 共同으로 빚어내는〉일이기도 하겠지마는, 이 위치에서 ᄋᆞ音의 機能負擔이 주로 으音으로 더불어 共同이었기 때문에 ᄋᆞ音이 소멸하자 자연 으音의 單獨 負擔에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ᄋᆞ音 消滅 第一段階는 그 방향이 「으」로 되고 그 위치가 非語頭가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것이 되니, 이는 〈語尾의 單一化 傾向〉까지가 오히려 이 변화의 결과가 되는 것이고, 語尾의 單一化 傾向의 要因 같은 것을 따로 설명할 필요조차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즉 ᄋᆞ音은 그 不安定性에 의하여 단순히 소멸 하는 것이 되고, 中和나 合流로 보지 않아도 좋게 될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일부 散漫的인 ㆍ>ㅗ의 변화는 'ㅗ'의 隣接이 조건으로 지적

되어 왔었다(李基文, 1972, p.118). 이는 위 지적과 같이 形態上의 隣接일 뿐만 아니라, 推進鎖 上에서도 오의 앞자리에 있었고, 聲調 消滅의 段階的 部位에 있어서도 이미 變化를 입는 圈內에 들어 있었다. 이에 ᄋᆞ音의 不安定性을 고려하면 ᆞ>ㅗ의 變化는, 그 같은 條件의, 그 같은 시기에, 그 같은 방향으로 되는 것이 또한 자연스런 결과였다고 보여진다. ᄋᆞ音의 不定性은 ᄋᆞ音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라는 抵抗力이 가장 弱한 部位에서 먼저 드러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니, 語頭位置에서 먼저 일어나지 못한 것은 語幹이 語義를 담당한다는 기능과 아직도 語幹의 聲調가 변화를 입지 않은 채 건재하였다는 사실이 커다란 抵抗 要素이었을 것이다.

중요한 例外 'ᄒᆞᆰ'이 第一段階 變化에 휩쓸린 것은 설명하기 어려우나, 이 예외가 다음 단계의 변화를 豫示하는 것도 아닌 文字 그대로의 예외인 이상, 그 변화의 요인은 이 語辭의 個別的인 事情에 求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즉 이 語辭는 ᄋᆞ音의 不安定性이 드러나는데 저항이 되는 요소를 덜 가지고 있었거나 혹 그 不安定性을 더욱 조장하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분명히 그러한 요소를 지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의심컨대, 이 語詞의 獨立形이 一音節인 점과 그 聲調가 平聲인 점과 그 頭音 ㅎ의 摩擦性이 불안정한 開母音 ᄋᆞ로 더불어 보다는 안정된 閉母音 '으'로 더불어 實現되기가 더욱 용이하였으리라는 점과 이 시기의 ᄋᆞ音의 변화 방향이 '으'였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니었을가 한다. 이같은 경향은 18世紀說이 추가한 또 하나의 예외 'ᄒᆡ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ㅇ音의 第一段階 消滅에 대한 筆者의 疎漏한 見解를 開陳하였다. 이를 다시 한 번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ᄋᆞ音의 第一段階 變化는 中和나 合流이기보다는 단순한 소멸에 가

같다.

ᄋ音의 第一段階가 非語頭 位置, 보다 정확하게는 形態部에서의 登場이 그 主流를 이루는 이유는 이 위치가 그 같은 변화를 일으키는데 好條件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니, 語末 平聲化로 시작된 形態部 聲調의 불안정성은 이 部位의 ᄋ音의 불안정성에 相乘 效果를 가져왔을 것이고, 같은 기능을 공동 부담하고 있는 안정된 '으'의 존재는 ᄋ音의 소멸에 拍車를 가하였다 할 것이다. 〈語尾의 單一化傾向〉이거나, 〈母音調和의 解弛〉이거나, 이들은 ᄋ音의 消滅이라는 동일한 사실을 다른 측면에서 파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ᄋ音의 불안정성은 語頭에서나 非語頭에서 동일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語頭에 있어서는 非語頭에서와는 다른 강력한 抵抗 要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非語頭에서 ᄋ音의 消滅을 조장하였던 것과는 反對의 條件들이었을 것이다. 즉 그것은 語頭에서 聲調의 安定性이 어느 위치보다도 컸다고 볼 수 있으며, 機能 負擔도 또한 무거웠다고 볼 것이고, ᄋ音 자체에 있어서 語尾部에서의 '으'와 같은 共同 負擔의 짝이 없었으며, 다른 위치에서의 機能負擔보다 월등한 무게를 담당하였을 것이다. 이것이 第一段階가 계속하여 확대되지 못하고 第二段階와 時差를 가지게 된 이유일 것으로 본다.

4-3-7 ᄋ音의 第二段階 變化

旁點의 消滅이 아닌, 聲調의 消滅을 筆者는 좀 늦게 잡고 있다. 聲調의 消滅은 급히 진행되었다고 해도 17世紀 後半期 쯤에 없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7]

ᄋ音 第二段階 變化의 先驅的인 例는 正히 이 시기에 등장한다고 하였다.

……17世紀 後半에 朴通事諺解에 ᄒᆞ야ᄇᆞ리―(破)가 하야ᄇᆞ리―(下 54)

7) 鄭然粲 :「小學諺解」 校正序本의 旁點表記, 1974, 震壇學報 37.

해야ᄇᆞ리ㅡ(上 10)로 나타나며, 譯語類解에 ᄀᆞ새(剪)가 '가외'(下 15)로 나타난다. 이들에 보이는 'ㆍ>ㅏ'는 第二段階 變化의 先驅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李基文, p.121)

이들 두 시기의 一致가 다만 우연적인 사실일까. 筆者는 이 시기의 一致에 우연 이상의 의미를 부여코자 한다. 語頭의 ᄋᆞ音은 그 불안정성을 안고 있던 점에서는 15世紀 이래로 변한 것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語頭에서의 ᄋᆞ音은 非語頭 位置의 ᄋᆞ音과는 달리, 그 不安定을 안은 채, 그런대로 유지될 수 있는 몇 개의 抵抗要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누차 言及한 바와 같이, 그 部位에서의 聲調의 安定, 機能의 무게 등이 安全裝置의 구실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17世紀 後半에 이르자, 그 중요한 安全裝置의 하나가 무너졌던 것이다. 이에 ᄋᆞ音의 不安定性은 더욱 加重되고 제대로 實現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혹이 묻기를 聲調의 消滅로 因한 不安定性의 加重이 하필 ᄋᆞ音에 限하여 작용하였나 할지 모른다. 그러나 다른 母音은 안정된지 오래이므로, 聲調 소멸을 당하여도 加重될 불안정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ᄋᆞ音만의 불안정성이 加重될 수밖에 없었다. 語頭 位置가 가져다 주는 機能 負擔도 이제는 벌써 이 加重된 不安定性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남은 문제는 그 자리를 어느 母音에게 내어주느냐에 있었다. 즉 변화의 방향만이 남았던 것이다.

ᄋᆞ音 第二段階의 方向은 주지된 바와 같이 'ᄋᆞ>아'이었다. 이는 第一段階의 變化 方向이 ᄋᆞ>으이었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 18世紀 中和 推移說은 이 變化 方向의 차이와 시기의 繼起를 중시한 견해였다. 第二段階의 變化 方向이 唯獨 ᄋᆞ>아로 되는데 대한 筆者의 견해는 대개 저 18世紀說의 그 부분과 비슷하다. 그러나 '아'를 밀어 中舌化시킬 힘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필경 그러한 힘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만약 그러한 힘이 있었다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좀 더 ᄋᆞ音의 유지가

연장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사슬의 맨 끝에 밀려 독자성을 잃게 된 ㆍ音〉은 아音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웠을 것이고 따라서 그 音價에 있어서도 아音에 가장 가까왔을 것이고, '아音'과의 구별이 어려웠을 것이다. ㆍ音의 자리에는 '아'音이 들어서게 되어, 그를 흡수하고 말았으니, ㆍ音 消滅의 第二段階가 ㆍ>아의 방향으로 결말을 보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시기는 대체 18世紀 中葉인 듯하니, 漢淸文鑑의 表記, 申景濬·柳僖 등의 證言을 근거로 하고 있다(李基文, p.121)

4-3-8 ㆍ音變化에 대한 干涉

18世紀 推移說과 14世紀 推移說은 國語 母音體系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더 할 수 없이 유력한 견해들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두 견해에 대한 정당한 이해는 바로 後期 中世 母音體系에서 近代 母音體系까지도 한꺼번에 이해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 두견해를 조심하여 검토하고 비교하여 어느 쪽이 보다 유력한가를 알아내고자 하였다. 두 견해에 대하여 한 두가지 새로운 의심을 두어 보기도 하고, 또한 한 두가지 未熟한 見解를 덧붙이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ㆍ音의 二段階 變化까지를 검토한 바, 筆者의 見解는 어느듯 14世紀說에 가까운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筆者의 見解가 14世紀說과 완전 동일한 것은 아니다. 筆者의 見解가 14世紀說에서 좀 다른 점은 주로 ㆍ音의 소멸 두 단계에 대한 解釋에 있으니 이제 이를 다시 한번 밝혀 적으니, 이는 두 견해에 대한 존중과 필자의 견해에 대한 限界를 분명히 하고자 함에 있다.

첫째, ㆍ音의 段階 變化에는 聲調의 干涉이 있었다.

둘째, ㆍ音의 段階 變化에는 그 위치에서 오는 機能負擔量이 干涉하였다.

4-3-9 口蹙 口張에 대한 疑問

近代國語의 母音體系에는 또 다른 큰 問題, 즉 母音 調和와 二重母音 등에 대한 것이 남아 있으나, 이들을 本稿에서 다룰 餘裕는 없어 보이니 다른 機會로 밀어둔다. 다만 남은 紙面의 限度內에서, 지금까지의 論議와 관계 깊은 制字解의 口蹙口張의 解釋에 대한, 한 의문을 제기하여 두고자 한다.

制字解의 說明은 18世紀說의 중요한 근거의 하나였다. 종래의 연구가 이 記錄의 說明을 다만 ㆍ音의 音價 究明에만 치우쳐 적용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아 體系 全體에 適用 解釋한 것은 이 說이 거둔 바 가장 빛나는 성과의 하나일 것이다. 이같은 일관된 解釋態度는 지금도 오히려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할 것으로 믿는다. 다만 얼마 후에 母音調和의 體系와 母音體系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解釋 結果에서 온 母音推移의 時期가 달라져야 함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 등은 制字解 說明에 대한 또 다른 檢討를 불가피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制字解의 새로운 論義에 대한 우리의 가능한 전제는 대개 다음과 같은 것일 수 있을 것이다.

a. 制字解의 說明은 당시의 母音調和 體系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b. 制字解의 說明은 당시의 母音體系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c. 制字解의 說明은 당시의 母音調和 體系와 母音體系를 다 같이 하나의 근거로 이루어졌다.
d. 制字解의 說明은 그의 세 가지 근거 이외의 다른 근거에도 관계되어 있다.

14世紀說과 18世紀說의 성과를 근거로 판단한다면 a 項과 c 項이 보

다 유력해 보이나 結論을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는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 舌縮而聲深——
ㅡ 舌小縮而聲不深不淺——
ㅣ 舌不縮而聲淺——

여기서 〈舌縮 · 舌小縮 · 舌不縮〉이 각각 이들 母音이 발음될 때의 舌의 狀態를 설명한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그것이 舌의 높아지는 部位를 基準으로 정하여진 現代的 舌位(localisation de la langue)와 바로 같은 것인지는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李基文, 163). 縮의 字意는 〈收也 · 斂也 · 退也〉등으로 대개 〈우글어지다〉로 舌의 전체적인 상태를 형용한 듯하다. 이어서 나오는 聲에 의한 설명은 표현이 좀 달라지고 있음이 주목된다. 舌은 다만 〈縮하다에 〈小 · 不〉을 加함으로써 三分한데 대하여, 聲에 대하여는 대립된 深淺을 兩極에 세우고 中間에서 兩者에 다 같이 〈不〉를 加함으로써 三分하고 있다. 三分함에 있어서는 다를 것이 없으나, 표현 방법은 다르게 되어 있다. 聲에 대하여도 〈深〉이든 〈淺〉이든 어느 하나만을 세우고 그것에 〈小 · 不〉를 加함으로써 표현하는 방법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또 舌을 三分함에 있어서는 〈縮〉에 대하는 〈展〉 같은 것을 세울 수 있었다고 가정하면, 〈舌縮 · 不縮不展 · 舌展〉과 같이하여 小를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것이 다만 行文表現上의 문제였을까? 이같은 표현이 의미상의 차이 때문에 채택될 수 없었다면 〈蹙張〉에 대한 해석도 우선 字義를 쫓아, 그와 같이 밖에는 表現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字義에 사로잡히는 것도 안 될 일이지만 字義를 비약시키는 것도 안 될 것이다.

ㅗ與ㆍ同而口蹙——
ㅏ與ㆍ同而口張——
ㅜ與ㅡ同而口蹙——
ㅓ與ㅡ同而口張——

이 口蹙 口張에 대한 해석은 더욱 엇갈린 견해들을 보여 주고 있는 듯하다.[8]

이들 엇갈린 견해들은 대개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a. 中國音韻學의 開合(開口·合口)과 같다.
b. 입술의 모양(張唇과 圓唇)으로 본다.
c. 開口度
d. 입술의 모양과 開口度를 包括하는 槪念

가능한 해석은 거의 제시된 듯하다. 이 4가지 견해에서 또 다른 해석은 있기 어려워 보인다.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그럴 듯한가? 어느 것이나 다 그럴 듯해서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만약 견해 a가 바르게 되었다면, 制字解 表現은 다소 정확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ㅗ與ㆍ同而合口, ㅏ與ㆍ同而開口」와 같은 표현이 가능하였을 것이고, 그 쪽이 더욱 분명하지 않았겠는가, 더욱 이를 확대하여, 「ㆍㅡ 不分開合」 혹은 「不開不合」 같은 표현도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 비교적 잘 알려져 있었다고 생각되는 「開合」을 취하지 않고 오직 「口蹙·口張」을 취한 것은 韻圖上의 開合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고 볼 것이 아닐까.

見解 b의 難點은 〈同一한 規準 口가 '張'에 있어서는 aperture의 基底가 되고 '蹙'에 있어서는 forme de lévere의 基底가 된다는 애매한 論理〉가 지적되고 있다.[9] 그러나 이 견해 b는 그 論理上의 難

8) 李基文：國語音韻史硏究, p.103.
9) 金完鎭：國語母音體系의 新考察, pp.8~9.

點에도 불구하고, 「張·蹙」의 字義에서 오는 매력을 버리기 어려워 보인다. 「口蹙」은 圓唇에 맞다하여도 그럴 듯하고 「口張」을 張唇에 맞다 하여도 그럴 듯하다. 다만 이 경우 「與丶同……, 與一同……」으로 표시된 「丶·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것이 저 「不深不淺」과 같은 표현으로 敷衍될 수 있다면 필경 「不蹙不張」이 될 수 밖에 없겠는데, 그럴 경우 「蹙張」이 「深淺」과 같이, 같은 사실의 정도의 차이에서 대립적으로 파악된 相生하는 개념으로서, 익숙하지 못한 것이 좀 흠이 될 듯하다. 즉 深淺이란 表現은 익숙한데, 蹙張이란 表現이 서툴다는 것이다. 이같은 점이 오히려 「蹙張」을 「深淺」과 같이 보지 않고 그 자의대로 따로 따로 보게 하는 하나의 근거일 수 있을 것이다.

견해 c는 따지고 보면 견해 b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다. 「張」을 開口度로 보는 점에서는 서로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蹙」까지도 開口度로 보는 것이 다를 뿐이다. 동일한 規準 口가 張에서 aperture가 되고 蹙에 있어서 forme de lévere의 基底가 되는 것이 論理上의 曖昧로 지적될 수 있다면, 동일한 開口度를 표시하기 위하여 「張·不張」이라든지 혹은 「蹙不蹙」과 같은 가능한 표현을 굳이 피한 制字解의 表現은 表現上의 曖昧함을 지적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制字解의 표현이 그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開口度로만 일관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우리의 논리는 다소 緩和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蹙張을 開口度로만 일관하여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결과에서 유도되는 母音의 位置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었는지는 다시 얼마쯤 의심되는 바가 있을 듯하다. 「ㅗ·丶·ㅏ」가 「丶」를 基準하여 蹙張으로 갈라지고 「ㅜ·一·ㅓ」가 「一」를 基準하여 蹙張으로 갈라지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

나 「ㆍ」와 「ㅡ」가 같은 開口度에 선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아 낼 수 있겠는가. 「ㆍ舌縮而聲深…ㅡ舌小縮而聲不深不淺 ㅣ舌不縮而聲淺」이 먼저 나왔지만, 여기에는 蹙張에 대한 言及이 없었다. 만약 「ㆍ·ㅡ」가 不蹙不張으로 開口度 三分에서 그 中位에 선다고 한다면 「ㅣ」도 필경 이 三分位의 中位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ㅣ」가 「ㆍ ㅡ」로 더불어 같은 開口度에 섰다고는 생각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ㆍ·ㅡ」가 같은 不蹙不張의 中位에 섰다고 하였도 그것은 「ㅗ·ㅏ」, 「ㅜ·ㅓ」의 각각에 대한 상대적 中位일 수밖에 없고, 「ㆍ·ㅡ」가 바로 같은 中位에 섰다고만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이 된다. 「ㆍ·ㅡ」가 이미 하나밖에 없는 동일한 中位에 선 것이 아니라면 「ㅗ·ㅜ」가 蹙位에 서는 것은 같으나 그 蹙位가 하나밖에 없는 같은 蹙位일 수는 없을 것이고 「ㅏ·ㅓ」가 張位에 서는 것은 같으나, 그 張位가 또한 하나밖에 없는 같은 張位일 수 없을 것이다. 혹이 묻기를 그렇다면 開口度를 몇 개로 分한 것이 되느냐? 도대체 開口度 三分이면 三位 밖에 더 나올 수 없지 않겠느냐 할지 모른다. 그렇다 開口度를 物理的으로 먼저 三分하여 두고, 그것에 各個 母音을 배정하였다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制字解의 記錄은 「ㆍ·ㅡ」를 基準하여, ㅗ·ㅏ, ㅜ·ㅓ 등 口의 상태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制字解의 記錄이 우리의 생각에 맞아 주기를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制字解의 記錄은 의연히 정확하고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文面字意 대로 해석하여 蹙은 脣狀을 취한 표현이요, 張은 開口度를 취한 표현으로 보는 것이 어떨가.

參考文獻

金完鎭(1963), 國語母音體系의 新考察, 震檀學報 23.

―――(1965), 音韻論 및 音聲學(國語學槪論, 語文學硏究會編, 首道出版社, 所收).

安秉禧(1957), 杜詩諺解의 t口蓋音化에 대하여, 李熙昇先生 頌壽記念論叢.

―――(1959), 十五世紀 國語의 活用語幹에 對한 形態論的 硏究, 國語硏究 7.

李基文(1972), 國語音韻史硏究, 韓國文化硏究院.

이병건(1976), 현대한국어의 생성음운론, 일지사.

李秉根(1979), 音韻現象에 있어서의 制約, 國語學硏究選書 8, 塔出版社.

李崇寧(1939), 朝鮮語異化作用에 對하여, 震檀學報 11.

田相範(1977), 生成音韻論, 塔出版社.

鄭然粲(1963), 十五世紀 國語의 活用語幹의 聲調에 對하여, 忠南大學校 論文集 3.

―――(1976), 國語聲調에 관한 硏究, 一潮閣.

許 雄(1964), 齒音攷, 國語國文學 27.

―――(1965), 國語音韻學, 正音社.

Baudowin de Courtenay, J.(1895), *Versuch einer Theorie phonetischer Alternationen*, Trübner, Strassburg.

Block, B.(1949), A Note on Contrast, Language, Vol. 29.

Bloomfield, L.(1933), *Languag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Frei, H.(1929), *La Grammaire de Fautes*. Paris.

Grammont, M.(1933), *Traitê de Phonêtique*, Delagrave, Paris.

Harris, Z.S.(1951), *Methods in Structural Linguis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Jakobson, R. & Halle, M.(1956), *Fundamentals of Language*, The Hague.

Jakobson, R. Fant, G. & Halle, M.(1962), *Preliminaries to Speech Analysis*, M.I.T. 6th ed., Boston, Mass.

Jespersen, O.(1926), *Lehrbuch der Phonetik*, Leipzig.

Jones, D.(1962),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9th ed,, Cambridge.

(1962a), *The Phoneme*, 2nd ed., Cambridge.

Martinet, A.(1956), *La Description Phonolozique avec application au parler Franco-Provençal d'Hantevelle*, Genéve, Paris.

Pike, K.L.(1947), *Phonemic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Sapir, E.(1921), *Language*: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Speech, New York: Harcour, Brace and World.

Saussure, F. de.(1916), *Cours de Linguistique Gênêrale*, Paris.

Trubetzkoy, N.S.(1939), *Grundzüge der Phonologie*. Prague: Cercle Linguistique de Prague.

(李德浩譯, 1977, 音韻論, 汎韓書籍)

Twaddell, W.F.(1935), *On Defining the Phonem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찾 아 보 기

<ㄱ>

歌韻　175
———字　173,181
佳韻　177
可中和對立　81,82,83
簡略表記　18
强度　109
强弱　15,16,116,119,120,123
———言語　123
閤　171
開口度　21,83,87,88,98,99,109,162,163,166,171,186,188,189,206,207,208
———資質　87,88,93,94,96
概念　36
開母音　200
———序列　84
開放　112
———連接　119
———閉鎖音　29,82
個別性　15,16
閤闢　171
開音節　118,175
開合　171,206
去聲　198
缺如的 對立　80
境界　119
硬口蓋　101,102
———系列　97
———音　27,101
慶尙道 方言　122,123
敬語法　182
硬音　31,76,77,82,100
———系列　83
雞林類事　177,179,180,181,182,193
階段對立　80
系列　73,83,87,88,164,168
———關係　73
古代語　182
孤立的 對立　76,79
高母音　94,99,163,186
———系列　162
高音質　54
高低　15,16,109,116,119,120,121,122
———對立　186,187
固定的 對立　81
高調　122
共鳴音體系　128
共鳴資質　87,96,100
共通基語　157,159
共通資質　77,78,81,97,148
過渡　30
———音　31
觀念的 實在　15
關與的　105
———資質　75
口　159,160

口腔 18,19,95,97,103
———子音 100
———質 53
口蓋帆 29
口蓋音 68
口蓋齒莖音 26
句末連接 120
口張 159,170,171,188,189,204,206,207
構造 74,75
構造言語學 63,64,71,72
口蹙 159,170,171,188,189,204,205,206,207
國語母音體系 184,186,189,195,203
國際音聲子母 17,23
國際音聲學의 原理 21
國際音聲學會 17
捲舌音 26
均衡的 對立 80
近代國語 204
近代母音體系 195,203
筋肉緊張 100
氣 104
器官의 緊張 115
機能負擔 201,202
———量 199,203
起伏體系 122
基本母音 21
———圖 23
———度 93
基本的 系列 97
氣息段落 108
記憶上의 關係 73
起源的 149
氣音 82
———系列 83
緊密連接 119
緊張 113
———度 108,110
———相關 100
———狀態 15
———性 104
———質 53

<ㄴ>

/ㄴ(n)/ 144
羅典語 90
內破 112,113
———性 46
———音 29,82,113,114
———化 133
論理的 空間 17

<ㄷ>

ㄷ變則用言의 語幹末音 139
다니엘 존스 21
多面的 對立 76,77,78,97
段階 87
———的 變化 193
短母音 121
單母音體系 129
單位文字 162
單位要素 108
單音 20,117,118
당기는 사슬 193
帶氣音 30

對立 93
——關係 38, 83, 191
——項 80, 85
大音素 50
代替 65
——法 60
代替環境 60
代替項目 60
代表音 149
獨語 123
東國正韻 174
同類 49
東音 183, 184
同音異義語 65
同一系列 99
同一段階 99
同一性 13, 16
同族語 157
同型性 71
同化 119
된소리의 發達 136
頭音 118, 119
——規則 118
頭子音群 148
鈍重質 54
等質的 多面對立 79
等質的 對立 78, 80
等積分布 66, 67, 68
等値的 對立 80
/ㄸ(t')/ 142

<ㅁ>

摩擦性 200
摩擦音 21, 30, 31, 53, 70, 76, 98, 99, 103
——體系 128
——類 100
摩擦持續音 30
末音 76, 118, 119
——規則 118
面狀 89, 90
——體系 89, 90
鳴音度 111, 112, 115, 116, 117
母音 18, 19, 56, 103, 104, 110, 117, 158, 166, 168, 170, 202
——度 92
——圖 22, 163, 178
——資質 86, 96, 106
——點 113, 114, 115
——調和 201, 204
——質 52
——體系 87, 88, 89, 90, 91, 92, 96, 157, 158, 159, 160, 163, 164, 168, 178, 179, 183, 185, 187, 192, 204
——體系圖 95
——體系 基本圖 93
——推移 178, 184, 192, 195, 196, 204
蒙古語 157, 158, 179, 180, 181, 182, 183, 193
蒙古韻略 171, 172, 173, 190
蒙古字韻 172, 173, 174, 175, 176, 177
無關 83
——母音 160
無氣性 77
無氣音 82
無序 三系列 體系 89

無聲音 30,70
無聲子音 100
無聲的 環境 67
無聲質 53
無徵表 系列 84,85,164
無徵表項 80,85
默音化 151
文字記號 23,38
物理的 實在 13,14,15
物理的 實在說 44,45
物理的 音聲 40
物理的 音長 121
物理的 定義 46
미는 사늘 184,193

<ㅂ>

/ㅂ(p)/ 130
ㅂ變則用言 132
朴通事諺解 201
半開母音 88
半母音 18,30,118,128
———體系 128
半閉母音 88
半閉半開母音 24
發音 41
———器官 20,31,38
尤韻 176
配列關係 73
排他的 分布 67
飜譯朴通事 173,177
闢 171
辨別性 86
辨別位置 81,82
辨別的 75
辨別的 開口度 88
辨別的 機能 38,48,81,82,115,120,123
辨別的 單位 48
辨別的 對立 48
辨別的 母音資質 87
辨別的 部位資質 97
辨別的 音聲資質 45,46
辨別的 子音資質 96
辨別的 資質 38,39,45,47,50,52,54,55,57,64,75,76,77,86,87,88,92,95,96,99,100,104,105,115,121
辨別的 資質束 51
辨別的 資質의 묶음 20
變異音 61,62,69
副動詞 語尾 182
部位資質 87,88,94,96,101
北京官話 122
分散質 53
分節音 116
分節音素 120,122
分布 45,66
不變對立 81
不深不淺 207
佛語 104,111,115
鼻腔 95,100
———共鳴 87,100
———質 53
非關與的 48,98,105
比較의 基盤 75,76,77,97
比例的 對立 76,79,83,98,101
鼻母音 104

非母音質 52
非辨別的 48
———資質 45,46
非線狀對立 79
非成節音 110,111,115,117,118
非抑制質 54
鼻音 29,31,76,101,103,104,117
———相關 101
鼻子音 100,118
非子音質 52
非噪音質 53
/ㅃ(p')/ 135

<ㅅ>

/ㅅ(s)/ 144
四角體系 90
四聲 122
———通攷 171,174
———通解 171,172,173,174,176,177,180,190
四肢的 相關束 85
三序 無系列 89
三肢的 相關束 85
上加 86
———音素 120
相關 82,83,84,86,87,99,100,102,103
相關關係 50
———雙 83,84,85
———束 85,86
———對立 161,163,164,168,169,194
———徵表 83,84,86,164
相補的 變異音 61,62
相補的 分布 61,66,77
上昇的 二重母音 129
生理的인 分類 160
生成音韻論 56,63,71,76,77,92,96,104,105,106
西班牙語 90
序列 49,83,87,88
線狀 89
———對立 79
———體系 87,88,89
先語末 語尾 182
線條狀 108,110
———의 關係 74
選擇關係 73
舌 159,160,205
舌端 27,76,95,101,102
———系列 97
———音系列 96,97
舌面 19
舌背 101
舌背音系列 96,97
舌不縮 159,170,188,205
舌小縮 159,162,170,188,205
舌身 95,105
舌位 87,188
舌位置 205
舌音全淸 138
舌音次淸 140
舌尖 102
舌縮 159,162,170,188,205
舌側音 19,29,31
———系列 97
聲 159,205

聲帶 103
———振動 70
聲門 52,101,102
———音 28,70,101
———破裂音 103
———化音 30,31
聲不深不淺 159,170,188,205
聲深 159,170,188,205
聲淺 159,170,205
成節强勢 115
成節母音 112
成節音 110,111,113,114,115,117,
118
聲帶 振動 53
聲調 122,123,197,198,200,201,202,
203
———言語 122,123
———消滅 198,200
消極(−) 55
———的 資質 77
———項 101
sonority 108,109
小音素 49
隨意的 變異音 59,131
垂直線狀 89
水平線狀 88,89
水平體系 122
遂行 57
蕭韻 175,176
———字 181
唇 101
瞬間音 31,98,99
唇輕音 ㅸ 132
唇音 101,102
———系列 96,97
———全濁 135
———全淸 131
唇齒音 25
順行同化 150
스펙트로그래프 13
視覺記號資料 38
示差的 資質 38
申景濬 203
深 159
心理的 實在說 41,42,44
18 世紀 推移說 192
15 世紀 國語 190
15 世紀 母音體系 187,191,192
/ㅆ(sʔ)/ 147

<ㅇ>

樂音 19
알타이語 164
알타이 語族 158
알타이 原語 157
알타이諸語 182
altai 祖語 186
兩面的 對立 76,77,79,83,98,101
陽母音系列 164
兩唇音 25
兩項對立 51,52,95
兩項對立說 55
語幹 200
———聲調 199
語頭 41
語尾의 單一化 196

語末聲調 199
語末平聲化 198,201
語尾의 單一化 傾向 198,199,201
語詞聲調 123
———言語 123
魚韻 176
語義 65
語音飜譯 166
語彙的 韻素 120
抑揚段落 108
抑制質 54
抑制閉鎖音 82
抑止閉鎖音 29
言語能力 57
言語音 11
言表 108
軟音 76,82,100
軟口蓋 76,77,95,100,101
———音 27,70,101,102
———音系列 96
連續性 16
連鎖關係 74,108
連鎖的 反應 184
連接音素 119
聯合關係 72,73,74
英語 112,115,117,123
銳輕質 54
오실로그래프 13
外破 112,113
———音 29,112,113,114
曉母音 172
龍飛御天歌 180
韻素 117,119,120
韻律的 資質 119
圓唇 207
———系列 85
———高母音 179,183
———母音 23,24
———性 23,166,183
———의 相關 85
———後舌母音 178,179
———後舌音 78
原元素 81,82
琉球語 166,167
流音 76,103
有氣相關 100
有氣性 104
有氣音 30,76,82,100,134
———系列 84
———의 發達 142
誘導過程 149
有無的 對立 80,83,98,100,102
有聲相關 100
有聲性 46,104
有聲音 30,70
有聲子音 100
有聲的 環境 67,68
有聲質 53
流音 56
有徵表系列 83,84,85,164
有徵表項 80
柳僖 203
音價 162,169,170,171,203
陰母音系列 164
音像記錄 15
音聲 13,16,17,18,19,37,38,40,41,
45,70,116
———空間 17

——器官 113
——記號 18
——分類 93,96
——實驗室 46
——連鎖 111,112,113
——의 總和 44
——資質 46,47,48
——的 類似性 62,67,70,71
——的 資料 63,65
——的 資質 39,45,64
——的 差異 64
——表示 105
——學 159,165,170
——學的 音節 114,116
——環境 45,59,61,62
音素 45,46,49,50,70,71,103,116,118,120
——結合 62
——論 66,105,106,108
——論 層位 64
——分析 63,64,66,69,71,72
——設定 45,59,62,72
——設定의 手順 58
——의 數와 字母의 數 127
——의 定義 72
——的 差異 49,50
——體系 74,86,116
音韻 36,37,38,40,169
——論 63,159,162,165,169
——論的 單位 48
——論的 對立 48
——論的 音節 114,116,117
——論的인 空間 35
——映像 40
——의 定義 40
——의 總和 44
音長 121
——言語 121
音節 19,70,109,110,112,113,114,115,117,119,121,123
——構成 18,19
——頭音 118
——末音 118
——의 境界 111,114
——主音 19
——核 118
音波 記錄 47
音響對立 48
音響學的 19
音形表示 105
意味 73
——論 72
吏讀 182
伊路波 173,190
理論的 音節 114
23개의 子音素 128
弛緩 113
——質 53
二重母音 20,204
移音 56
伊太利語 91
異化作用 132
異質的 對立 78
異質的 多面對立 79
異質的 多面對立關係 97
咽頭音 27
ㅅ變則用言 146
日本文字 173,190

日本語 90,117,118,166,167,173
剩餘資質 52,87,120

<ㅈ>

自然言語 56,89,92,93,94,97,99
自由變異音 59,68
子音 104
———體系 157
———群 119
———相關體系圖 103
———資質 86,106
———接變 131
———質 52
資質 80,83,93,96,99,102,103,104,
120
———母型 95
———表示 95,145
淺 159,188
雜音 104
張 159,160,206
長短 15,16,109,116,119,120,121
長母音 121
長音 31
張唇 207
障碍 100
———音 98
———克服資質 96
———方法 99,100
———方法資質 99
———段階資質 97
———性 104
再音素化 135
再出字 186
低母音 94,99,163,186
———系列 162
———化 194
低音質 54
低調 122
積極(十) 55
———資質 95
———項 101
前腔 53
前舌開母音 168
前舌母音 22,24,178
前舌圓唇系列 84
前舌平唇系列 84
前舌閉母音 21
顫音 30,31
典型的 音節 114,115
前後對立 186
漸進的 對立 80
接尾辭 105,183
juncture phoneme 128
精密表記 18
正音文字 173,179,190
正音字 172,176
第二次音素 120
第一次 基本母音 23
制字解 159,160,162,163,164,170,
171,185,186,188,204,206,
208
條件變異音 67,69,98,131
造格語尾 62
朝鮮館譯語 175,177,181,191
調音 20
———方式 16,29,83,96,103,111
噪音性 104

調音樣式 18
調音的 61
調音位置 16,17,29,41,47,96
調音點 23,83
調音行爲 20
噪音 19
——質 53
中間母音 99
中間音 118
中國語 122,165,167,168,176,180,181
中國音 177,184
中國音韻學 170
中斷質 53
中度序列 84
中立位 95
重母音體系 129
重複分布 66,69,71,133
中舌 182
——高母音 172,173
——母音 94,163,164,167,180
——半開母音 168
——音 162
——閉母音 24
——化 194,202
中聲 171
——凡十一字 185
——字 171,190,191,192
——體系 170,193
中世國語 123,158,159
中原音韻 173,181
重音 121
中和 81,82,133,138,163,194,195,196,199,200
——位置 81,82
持續相關 99
持續音 31,98,99,103
持續質 53
指示的 意味 64
支韻 177
——字 173
集中質 53
徵表 83,163,164,188
——資質 86

<ㅊ>

借用語 179,180,181,182,183,193
次淸 172
處容歌 183
蹙 159,160,206
添加 65
聽覺映像 36
聽覺的 61
——인 分類 160
聽取器官 38
體系 74,75,88
——의 類型 90
體狀 88,90
——四角體系 91,93
——體系 89
最代體系 129
最小對立 65
——語 60,64,65,121,122,133,138
——의 짝 60
最小辨別性 51
推進鎖 194,200
縮 159,171

出現環境 44,45
層位 63,108
———混合 64,69,71,106
齒莖 27,101,102
———口蓋音 27
———音 26,27,68
齒音 26,101,102
———系列 96
———全濁 147
齒擦音 104
齒間音 26

<ㅌ>

/ㅌ($t^ʕ$)/ 140
彈音 30
土耳其語 91,157
通口 76,77
統辭論 72
———的 層位 63
統辭構造 74
統合關係 72,74,108
틀거리 61

<ㅍ>

/ㅍ($p^ʕ$)/ 132
8母音體系 129
八思巴字 172,173,174,176,190
破裂音 29
破擦音 27,30,103
平音 82,100
平聲 200
平唇系列 85
平唇母音 23,24
平音 100
———系列 84
———質 54
閉母音 78,88,200
———序列 84
———化 194
閉鎖 112
———性 76
———音 29,30,41,53,77,98,99,100,101
———音類 100
———音 體系 128
閉音節 118
包括的 分布 66,68
表音的 意味 64

<ㅎ>

下降的 二重母音 130
漢音 172,190
漢字音 174
漢字借用 表記法 183
漢淸文鑑 203
咸鏡道方言 122
合用並書 148
合流 195,197,198,199,200
項目 49
———過程式 105
———配列式 105
———表 105
海東諸國記 166
鄕藥救急方 182
響音 76,98,99,118

現代 國語 91,93,119,158,186,188,
189,191,192
———의 音素의 數 128
現代音韻論 189
懸壅垂音 27
現場作業 63
狹母音 88
形態論 63,72
———的 制約 132
形態面 73
形態部 201
———의 聲調 199
形態素 71,105,117
———構造 116
呼氣壓 110
後腔 53
後期 中世 母音體系 203
喉頭音 28
———體系 128
喉頭化音 30
後舌 172,182
———開母音 21
———高母音 172
———母 21,24,166,178,180
———低母音 168
———中母音 172
———圓脣系列 84
———平脣系列 84
———閉母音 78,165
喉音 172
訓蒙字會 174
訓民正音 159,160,162,164,170,185,
188,189,190,191,192
休止 109,119,121

▨ 著者 略歷 ▨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國語國文學科 卒
同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卒(文學博士)
忠南大學校 文理科大學 敎授 歷任
現 西江大學校 文科大 敎授

▨ 著　書 ▨

洪武正韻譯訓의 硏究(一潮閣)
國語聲調에 관한 硏究(一潮閣)
慶尙道方言聲調硏究(塔出版社)
鄕歌의 語文學的 硏究(共著, 一潮閣)

1980년 3월 1일　초판발행
1987년 8월 30일　중판발행

發行處／開文社(倫)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19—8
등록 1965.8.3. No. 2—61
전화 267-9757

저　자／鄭　然　粲
발행인／金　敎　俊
인　쇄／二友印刷社

값／4,500원
파본은 언제든지 바꾸어 드립니다.